

2015년도 문화재위원회

**제5차 통상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 10. 8(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목 차

## 【심의사항】 1건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1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떡	공개
---	------------------------	----

## 【검토사항】 9건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공개
---	--------------------	----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1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공개
2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공개
3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대다존자)	공개
4	고려 오백나한도	공개
5	성화칠년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	공개
6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공개
7	유가사지론 권20	공개
8	조선왕조의궤(분상/비유일/완질/활자,분상/비유일/비완질)	공개

## 【보고사항】 1건

1	동산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보고	공개
---	--------------------------	----



# 심 의 사 항



## 【심의사항】

### 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안건번호 동산 2015-05-001

#### 1.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 (淸州 明岩洞 出土 ‘丹山烏玉’銘 高麗 墨)

##### 가. 심의사항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4.11.24)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 2015년 제4차 회의(8.13)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검토되어 30일간 지정예고('15.08.26~'15.09.24)하고,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청주 명암동 출토 ‘단산오옥’명 고려 먹  
(淸州 明岩洞 出土 ‘丹山烏玉’銘 高麗 墨)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청주박물관)
-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명암로 143 국립청주박물관
- 수 량: 1개(殘片)
- 규격(cm): 세로 11.2 × 가로 4.0 × 두께 2.9
- 재 질: 고려 먹(高麗 墨)
- 제작연대: 고려시대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세로 11.2cm 가로 4.0cm 두께 2.9cm의 長方形에 2片으로 분리된 高麗墨으로 龍紋과 波狀紋 등의 文樣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三國時代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記錄文化가 융성하여 文房四寶의 발전도 매우 우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傳統의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삼국·고려시대의 古墨이 전래되는 것도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조선시대의 古墨도 전래되는 것이 흔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우리나라 高麗時代의 우수했던 고려먹의 양상을 窺見할 수 있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傳統墨의 研究는 물론 傳統製墨法의 研究에도 매우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遺物이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여러 측면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文化財名은 <丹山烏玉銘 高麗墨>이 합당할 듯하다.

○

이 <丹山烏玉>명 목은 고려시대의 먹으로서 또 무덤에서 출토된 최초의 것으로서 매우 귀중한 먹이다. 또한 먹의 세련된 외양이나 고려 먹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점에서 당시의 먹의 보편적인 쓰임과 製墨의 기술 등을 추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지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

조사문화재 <丹山烏玉>은 세로 11.2cm 가로 4.0cm 두께 2.9cm의 장방형 먹으로 용 문양과 파장 문이 있는 먹이다.

먹은 문방사우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기록문화에 있어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송연먹의 경우는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중요한 약재이며 현재도 약으로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먹이 제조된 것으로 보지만 아쉽게도 제대로 된 유물이 전해지지 않았고 문헌상에도 조선 후기부터 먹 제조에 관한 기술이 나오지만 식민지 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전통먹의 제조법이 단절돼 있었다.

심지어 지금 현재도 전통먹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丹山烏玉>은 고려시대 우수했던 우리의 기술력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단절된 전통먹의 연구를 이어주는 귀중한 자료로 본다.

따라서 <丹山烏玉>은 국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함.

조사보고서

□

#### ○ 현 상

- 書誌記述 :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의 形態記述은 다음과 같다.

[丹山烏玉] / [製作者 不明]. -- 高麗墨. -- [丹陽] : [製作處不明], [高麗時代 推定].

1枚(2片) ; 세로 11.2 × 가로 4.0 × 두께 2.9 cm.

墨 種: 高麗墨

出 土: 忠淸北道 淸州市 明岩洞 41-1 (1號 高麗墓)

文 樣: 龍紋·波狀紋

銘 文: 丹山烏[玉]

狀 態: 전체 1枚가 2片으로 分離되고 部分的으로 破損되어 있어 차후 墨匠 등의 專門家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傳來歷: 2000-2001년간에 國立淸州博物館이 淸州東部右回道路 建設區間인 忠淸北道 淸州市 龍潭洞과 明岩洞 41-1의 소재의 第1號 高麗 石槨墓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出土되어 현재 國立淸州博物館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다

評 述: 文化財名은 <丹山烏玉銘 高麗墨>이 합당할 듯하다.

□ 現 狀 :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2000-2001년간에 國立淸州博物館이 淸州東部右回道路 建設區間인 忠淸北道 淸州市 龍潭洞과 明岩洞 41-1의 소재의 第1號 高麗 石槨墓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出土되어 현재 國立淸州博物館에 의하여 所藏·維持·管理되고 있는 고려먹이다.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의 현재 상태는 전체 1枚가 2片으로 分離되고 部分的으로 破損되어 있어 차후 墨匠 등의 專門家에 의한 補修가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傳統 墨은 어떤 종류의 炭粉(그을음)이든 阿膠와 섞어서 固體로 제조한 墨塊를 凡稱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傳統 墨은 그 주성분에 따라 그 성질이나 품질이 달라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주성분인 炭粉의 종류에 따라 松烟墨과 油煙墨으로 대별된다.

松烟墨은 소나무를 태운 炭粉과 아교를 섞어서 固體로 굳혀서 제조한 墨으로 ‘숯먹’ 또는 ‘개먹’이라고도 한다. 松烟墨의 주원료인 松烟의 炭素粒子는 油煙의 탄소입자보다 크며, 不純物의 영향으로 인하여 色의 변화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松烟墨에도 油煙墨에 비해 약간의 불순물이 더 섞여 있으므로 墨色이 厚朴하며 빛의 반사가 적고 色彩를 흡수하는 편이라 검은 색이 강한 것이다. 또한 松烟墨은 오래되면 靑墨化되기도 한다. 筆寫用으로는 油煙墨보다 松烟墨이 더 적합하였으며, 우리나라의 松煙墨은 平安道の 陽德에서 생산된 것이 유명하였는데, 그 精品은 墨色이 鮮光하고 膽氣가 香淡하였다.

油煙墨은 植物性이나 動物性 및 鑛物性의 기름을 태운 炭粉과 阿膠를 섞어서 고체로 굳혀서 제조한 墨으로 ‘참먹’이라고도 한다. 油煙墨은 宋朝에서 개발되어 繪畫의 세계를 바꾸어 놓았다. 번짐의 효과가 없는 松烟墨에 비해 번짐이 효과가 좋은 유연묵이 나오면서 그 효과를 그림에도 나타낼 수 있었던 때문이었다. 四君子나 山水畫 등에서 沒骨法이나 苔法 등으로 墨色의 農談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油煙墨의 덕택이었던 것이다. 油煙墨이나 唐墨은 글씨를 쓰는 데는 좋았으나, 木版을 印出하는 데에는 번지고 희미하여 松烟墨만 못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三國時代에 이미 墨이 사용되고 있었음은 高句麗가 松烟墨을 唐에 歲貢으로 바쳤다(陶宗儀, 『輟耕錄』, 卷第29. 墨條.)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또한 陸友(?~?, 元朝人)의 『墨史』에서 “高麗가 進貢한 墨은 猛州(平安南道 孟山の古稱)의 것이 가장 좋고 順州(平安南道 順天의古稱)의 것이 그 다음이며… 그 墨을 어떤 것은 平虜城(平安南道 永柔 북쪽 35리에 있었던 古城)에서 進貢된 墨이라 하였으며 어떤 것은 順州 혹은 猛州에서 進貢된 墨이라 하였다”<sup>1)</sup>라고 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平安南道를 중심으로 하는 關西地方이 그 위치가 중국과 가까워 이곳에서 생산된 墨이 주로 중국으로 輸出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墨 중에서는 ‘翰林風月’·‘草龍珠張’·‘芙蓉堂’·‘首陽梅月’ 등이 上品이었다. 忠北 丹陽地域에서 생산되었던 ‘丹山烏玉’이나<sup>2)</sup> 報恩의 福泉寺 부근에서 생산된 ‘福泉墨’도 良質의 墨이었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sup>3)</sup>

1) 陸友, 墨史. 卷下. 高麗條.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高麗貢墨 猛州爲上 順州次之 … 往時潘谷嘗取高麗墨 再杆入膠 遂爲絕等 其墨 有曰平虜城進貢者 有曰順州貢墨 或曰猛州貢墨.

2)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 淸州: 泰一文化社, 2003. pp.28-30.

3) 徐居正 著, 『四佳詩集』. 第50卷. 詩類. 『謝忠淸金監司礪石送福泉妙墨』條.

福泉烏玉品多奇 十笏分來喜可知 珍重文房堪作寶 摩挲病腕興臨池.

우리나라 傳統의 製墨法은 魚叔權(?~?, 朝鮮中期)의 「攷事撮要」, 洪萬選(1643~1715)의 「山林經濟」, 徐有渠(1764~1845)의 「林園十六志」 중의 <怡雲志>, 辛仲厚(敦復, 1692~1779)의 「東國厚生錄」 등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魚叔權의 「攷事撮要」에 수록된 <韋仲將合墨法>과 <俗例造墨法> 및 洪萬選의 「山林經濟」에는 수록된 松烟墨의 제조법 등을 要約하거나 轉載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傳統의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으나, 현대에 들어서 관심이 있는 墨匠들에 의해 傳統적인 製墨法이 復元되고 있는 중이다.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2000-2001년間に 國立淸州博物館이 淸州東部右回道路 建設區間인 忠淸北道 淸州市 龍潭洞과 明岩洞 41-1의 소재의 第1號 高麗 石槨墓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出土된 고려먹이다. <丹山烏[玉]>은 당시 무덤에서 처음 발굴되었을 때, 아래 부분이 갈려 있고 먹집게로 짚은 흔적이 있어 실제 사용되던 墨을 무덤에 넣었음을 알 수 있다.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의 ‘丹山’은 忠淸道 丹陽을 지칭하며, ‘烏玉’은 蘇軾(1037~1101)의 <孫莘老寄墨> 詩에 “근자에 唐夫子께서 멀리 烏玉玦을 보내 주셨네”<sup>4)</sup>라고 한 데서 온 墨의 別稱인 ‘烏玉玦’의 略稱이다. 따라서 前面에 있는 ‘丹山烏玉’은 ‘丹陽 墨’이라는 뜻을 알 수 있다. 이는 「世宗實錄」이나 「東國輿地勝覽」 등에서 “丹陽郡은 본래 高句麗의 赤山縣인데 新羅 때에 그대로 따라 柰堤郡의 領縣으로 삼았으며, 고려 때 丹山縣으로 고치었다 … 土産은 山芥·松茸·辛甘草·墨 <가장 좋은 墨을 ‘丹山烏玉’이라 한다> 등이다”<sup>5)</sup>고 기록하고 있는 데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밖에도 忠淸道에는 報恩의 法住寺 부근에 福泉寺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생산된 ‘福泉墨’도 良質의 좋은 墨이었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sup>6)</sup>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세로 11.2cm 가로 4.0cm 두께 2.9cm의 장방형에 2片으로 분리된 高麗墨으로 龍紋과 波狀紋 등의 文樣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三國時代부터 近代에 이르기까지 記錄文化가 융성하였던 결과 文房四寶의 발전도 매우 우수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傳統의 製墨法은 斷絶되어 더 이상 繼承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삼국·고려시대의 古墨이 전래되는 것도 없는 실정이며, 심지어 조선시대의 古墨도 전래되는 것이 흔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우리나라 高麗時代의 우수했던 고려먹의 양상을 窺見할 수 있는 문화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傳統墨의 研究는 물론 傳統製墨法의 研究에도 매우 귀중하게 活用될 수 있을 遺物이다.

따라서 調査文化財 <丹山烏玉>은 여러 측면에서 國家文化財로 지정하여 研究하

4) 蘇軾, 「蘇東坡詩集」. 卷25. ‘孫莘老寄墨’條.  
近者唐夫子 遠致烏玉玦.

5) 春秋館 編, 「世宗實錄」. 卷第149. <地理志>. ‘忠淸道丹陽’條.  
丹陽郡本高句麗赤山縣 新羅因之爲柰堤郡領縣 高麗改爲丹山縣…土産山芥松茸辛甘草墨<最良號爲丹山烏玉>.

6) 徐居正 著, 「四佳詩集」. 第50卷. 詩類. ‘謝忠淸金監司礪石送福泉妙墨’條.  
福泉烏玉品多奇 十笏分來喜可知 珍重文房堪作寶 摩挲病腕興臨池.

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文化財名은 <丹山烏玉銘 高麗墨>이 합당할 듯하다.

#### ○ 문헌자료

- 春秋館 編, 「世宗實錄」. 卷第149. <地理志>. 忠清道 丹陽.
- 朴文烈, “오프셋印刷用 傳統 油煙墨의 開發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55輯(2013, 09). pp.5-38.
- 朴文烈, “오프셋印刷用 傳統 松烟墨의 開發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06). pp.5-42.
- 朴文烈, “印出用 松烟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42輯(2009, 06). pp.227-266.
- 朴文烈, “印出用 油煙墨의 標準粘度에 관한 實驗的 研究”. 「書誌學研究」. 第40輯(2008, 09). pp.5-45.
- 朴文烈, “韓國 傳統 墨의 製造法에 관한 研究”. 「韓國圖書館·情報學會誌」. 第39卷 第3號(2008, 09). pp.457-477.
- 朴文烈, 「金屬活字匠」. 大田: 文化財廳, 2001.
- 朴文烈, 「古印刷出版文化의 理解」. 清州: 泰一文化社, 2003.
- 徐有渠, 「林園十六志」. 影印本. 서울: 서울대학교, 1980. 怡雲志3. 文房雜製. ‘東墨法’條.
- 辛敦復 著, 「(東國)厚生錄」. 筆寫本. [筆寫地不明]: [筆寫者不明], [1862頃]. 卷下. ‘造墨’條.
- 魚叔權 著, 「攷事撮要」. 戊申字本. [刊行地不明]: [刊行者不明], 肅宗 1(1675). 卷下. ‘韋仲將合墨法’條, ‘俗例造墨法’條.
- 鄭玄 註, 「周禮」. 影印本. ([刊行地不明]: [永懷堂], [刊行年未詳]). 冬官. ‘考工記’條.
- 韓尙默, 「松烟墨」. 서울: 書藝文人畫, 2007.
- 韓尙默, 「尙墨」. 서울: 月刊 書藝文人畫, 2005.
- 洪萬選 著, 「山林經濟」. 影印本. 서울: 景仁文化社, 1973. 卷3. 雜方. ‘造膠法’條, ‘造墨’條.
- 計楠 著, 「墨餘贅稿」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麻三衡 著, 「墨志」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著, 「論古今墨論」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著, 「論墨」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萬壽祺 著, 「墨表」2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宋犖 著, 「漫堂墨品」3卷, 「附墨論」1卷. 「文房四寶」. 臺北: 世界書局, 民國74(1985).

- 宋應星 著, 董文 校, 「校正天工開物」. 中國學術名著 第5輯. 學術叢編 第2集 第1冊. 臺北 : 世界書局, 民國68(1979).
- 沈繼孫 著, 「墨法集要」 1卷, 序 1卷, 目錄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楊家駱 主編, 「文房四寶」. 中國學術名著 第5輯. 學術叢編 第1集 第31冊.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魚叔權, 「稗官雜記」 卷4.
- 陸友, 墨史 3卷, 目錄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晁貫之, 墨經 1卷, 目錄 1卷, 提要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何遠, 墨記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李謙魯, 文房四友. 서울 : 대원사, 1997.
- 이영재, 먹. 「生活文物研究」. 제4호.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2002.
- 張仁熙, 雪堂墨品 1卷. 「文房四寶」. 臺北 : 世界書局, 民國74(1985).
- 정승웅, 천진기, 박찬욱 공편, 먹. 「文房四友調查報告書」. 서울 : 國立民俗博物館, 1999.

## □

### ○ 현 상

<丹山烏玉>명 묵은 충북 청주시 명암동 고려묘에서 출토된 길이 11.2cm 너비 4cm 두께 0.9cm의 고려먹이다. 발굴일자는 1998년 5월 28일이다.

반으로 동강나 있는 이 먹은 앞면에는 테두리 안에 중첩된 波狀文이 드러나 있고 중앙에는 윗부분을 뾰족히 처리한 장방형의 세로 테두리 안에 ‘丹山烏’ 세자가 돌출되어 있다. 烏자 아래 ‘一’字획이 암아 있는데 이는 玉자로 추단된다. 여기서 丹山은 옛 단양의 명칭이며 烏玉은 먹의 별칭이다.

뒷면에는 비룡의 문양이 도드라져 있다.

이 먹을 통하여 단양 일대에 예부터 벼루생산과 더불어 製墨의 본거지임도 가늠어 볼 수 있다.

### ○ 내용 및 특징

- 銘의 필체

글씨의 체는 고려에 주종을 이루었던 구양순의 유풍이다. 비록 가는 필선이기는 해도 遒勁함과 단아한 풍모에서 고려의 기식이 충분히 드러나 있다.



## ○ 현 황

조사문화재 <丹山烏玉>은 2000~2001년간 국립청주박물관이 청주 동부 우회도로 건설구간인 충청북도 청주시 명암동 41-1의 소재의 제1호 고려 석곽묘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어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소장 관리되고 있다.

<丹山烏玉>의 현재 상태는 발굴 당시 2편이었으나 이후 여러 조각으로 균열이 진행되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서 전문적인 보존처리 되어 국립청주박물관서 전시하고 있다

## ○ 내용 및 특징

전통떡은 그을음과 아교를 섞고 수만 번의 반죽을 해서 제조되고 최소 6개월의 건조를 거치면서 고형화 되는 것이며 제조 과정에서 재료로 쓰는 아교의 끈끈한 냄새를 없애고자 향료를 첨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통떡은 주성분인 그을음의 종류에 따라 송연떡과 유연떡으로 분류 되는데 송연떡은 소나무를 태운 그을음을 포집하여 아교와 섞어서 만드는데 입자의 크기가 50~300나노로 입자가 크고 입자간 인력과 정전기력이 커서 커다란 클러스트 형태로 응집되어 있어 단단한 느낌을 준다

유연떡은 식물성 기름을 태운 그을음으로 아교를 섞어서 만드는데 입자의 크기가 20~50나노 크기로 입자가 작아 떡 제조시 멩치기가 힘들며 송연떡 보다 수분이 더 들어가야 된다. 유연떡은 반죽시 수분이 더 들어 감으로 건조 과정서 송연떡 보단 유연떡이 수축력이 더 크지만 부드럽게 갈리고 강도는 송연떡 보단 약하다. 이러한 잘 멩쳐지지 않는 유연떡의 제조상 특징은 건조된 완성품 떡에서도 나타나는데 오랜 시간 반죽한 떡을 치대야 떡의 표면이 깨끗해 지는데 치대는 시간과 된 반죽과 진 반죽 등에 따라 떡의 표면에 마치 얼굴의 여드름 같이 울룩불룩 튀어 나오는 돌기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유연떡은 일본서는 주로 떡 표면을 연마해서 없애고 중국은 많은 문양을 넣거나 금박 등으로 싸기도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 중기 이전의 떡이 전해지지 않아서 형태를 몰랐었다

떡이란 유물 자체가 없이 문서상에만 존재 했다. 단산오옥의 발굴은 이러한 고려떡이 존재 했으며 과거의 고려떡이 어떤 특징을 보여 주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떡 표면에 울룩불룩한 돌기가 있고 많은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일본 정창원에 있는 신라 떡이나 우리나라 박물관에 있는 조선 후기 떡을 보면 문양이 단출하고 표면도 깨끗하며 단산오옥과는 다른 모양새다.

<丹山烏玉>명 떡이 성분 분석이 안되어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송연과 유연이 섞인 형태로 제조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한중일 삼국중 최초이고 고려떡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료로 본다.

따라서 <丹山烏玉>은 우리나라 전통먹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이러한 고려의 먹 기술이 있었기에 직지와 같은 금속활자 인쇄술이 가능 했던 것으로 사료된 바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 관리해야 된다고 본다.

#### ○ 문헌자료

- \*한상묵, “尙墨” 서울 ; 月刊 書藝文人畫, 2005
- \*한상묵, “松烟墨” 서울 ; 書藝文人畫, 2007
- \*한상묵, “수용성 먹의 분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안성 한경대 화공과, 2003
- \*이겸노, “문방사우” 서울 ; 대원사, 1989
- \*정종미, “색과칠” 서울 ; 학고재, 2001
- \*이영재, “生活文物研究” 제4호, 서울 ; 국립민속박물관, 2002
- \*周紹良, “清墨談叢” 중국 ; 紫禁城出版社, 1999
- \*松井茂雄, “墨” 일본 ; 日貿出版社, 1983



단산오옥명 먹



단산오옥명 먹

# 검 토 사 항



## 【검토사항】

### I.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5-05-002

#### 1.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 가. 검토사항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국보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승격 신청(’15.2.2)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26/5.28/7.21/9.3)를 실시하고 본위원회 검토사항으로 부의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보물 제1021호(1990. 3. 2지정)
- 명 칭: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
- 소유자(관리자): 내원사
- 소재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내원로 256, 내원사 (대포리)
- 수 량: 1구
- 규격(cm): 상높이 102, 어깨너비 52.5, 무릎높이 15.3, 무릎너비 85.2  
광배높이 118, 광배너비 80, 대좌높이 79.5
- 재 질: 석조
- 제작연대: 766년(혜공왕 2)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대좌 중대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전하는 국보 제 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명문에 의하여 통일신라시대인 766년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좌상은 기년명 불상으로서 통일신라 불교조각사 연구의 기준작이 된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지닌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현존하는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 불상보다 가장 앞선 시기의 불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산 정상부 노천에 봉안하는 불상의 시원 형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산 정상부에 불상을 조성한 가장 이른 예라고 추정되는 석굴암 본존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기년명 불상이자 지권인 비로자나불상 중에서 가장 이른 예라는 점, 산 정상부에 봉안한 특이한 봉안 방법을 보여 준다는 점, 국보 제 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국보 제 233호 납석사리호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일괄 지정될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부산박물관 소장 <영태이년명사리합>의 명문에 의하여 현존 最古인 766년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으로 판명되었다. 다소의 파손과 훼손이 있지만, 대좌, 광배, 불신 등 모든 부분이 유존하고 있으며 대좌에서 반출된 사리합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본 불상도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

○

이 비로자나불상은 발견된 납석사리호의 명문을 통해 766년이라는 조성연대와 法勝과 法緣 두 승려가 죽은 豆湍哀郎의 뜻을 받들어 석남암수 觀音巖에 봉안하였다는 기록을 가진 중요한 불상이다. 특히 우리나라 最古의 紀年銘의 智拳印 비로자나불상으로서 우리나라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시원양식일 뿐만 아니라 편년자료가 부족한 고대조각사 연구에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특히 지권인을 한 如來形의 비로자나불 형식이 766년에 정립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불교 사상의 대두와 불교사의 새로운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이 비로자나불상은 동아시아를 통틀어 명문이 밝혀진 최초의 지권인 石造毘盧遮那佛像으로서 도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불교미술사 연구에 매우 귀중하고 획기

적인 자료임에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8세기 중엽경에는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석탑과 마찬가지로 불상에도 납입되었다는 사실을 이 불상을 통해 알 수 있어, 우리나라 불상복장의 시원적 형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미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가 국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 제233호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이를 봉안했던 석불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현재의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각각을 별도로 국보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이미 국보 제233호 지정되어 있는 납석사리호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함께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두 유물의 소장기관이 상호 다르므로 국보 제233호를 모범으로 하여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납석 사리호”로 명칭을 정하고 가지 번호를 부여하여 국보 제233-1호를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국보 제233-2호를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산청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통일신라 766년이라는 조성연대가 뚜렷한 불상으로서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라는 점에서 불교 미술사는 물론 불교사적으로도 매우 귀중하고 가치가 높다고 생각된다. 이 불상의 대좌에서 발견된 납석제사리함은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비로자나불상도 함께 국보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신, 대좌, 광배를 모두 갖춘 불상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다.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현재 남아있는 비로자나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된 것이며, 한국조각사의 기준 작품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1980년대에 불상의 대좌에서 영태(永泰) 2년(766년)의 명문이 새겨진 사리항아리가 발견되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로자나불을 언제부터 사찰의 주불로 봉안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예로 미루어 본다면 8세기 후반부터는 일부 사찰에서 봉안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산청 석남암사지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비록 佛身과 광배가 깨어져 온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온전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766년의 상대편년자료를 지녔고, 현재 알려진 불상형 비로자나불좌상 가운데 가장 이른 예라는 점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국보 지정 명칭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1990년 3월 ‘석남암수 석조비로자나불좌상(石南巖藪 石造毘盧遮那佛坐像)’이라는

명칭으로 보물 제1021호로 승격된 이후, 2010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재정비 때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山淸 石南巖寺址 石造毘盧遮那佛坐像)’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른다. 사리호에 ‘巖藪’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석남암수’는 ‘석남암사지’에 비해 이곳이 절터임을 일반인이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모든 유물을 관련 기록(혹은 명문)에 의거하여 변경하는 것도 자칫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지정명칭은 이미 국보 제233호로 지정된 납석사리호와 함께 일괄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납석사리호’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국보로 지정예고함.
  - 국보 제233호 “ 傳 산청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와 일괄 지정

## 조사보고서

## □

### ○ 현 상

1966년, 신라오악종합학술조사단의 보고와 선행 연구에 의하면, 현재 내원사 비로전에 봉안되어 있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원래 내원리 산 152번지인 지리산 해발 902m의 높이에 있는 觀音巖 위에 있었다고 한다. 실제 이곳을 답사해 보면, 비록 원래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산재된 돌 부재들로 미루어 보아 불좌상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관음암 위에서 지리산의 주봉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봉안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불신과 대좌, 광배를 각각 따로 만들어 조합하였으며, 대좌도 상대와 중대, 하대를 별도로 제작하여 쌓아 올렸다. 불좌상은 원래 산 정상에 노출된 상태로 봉안되어 있어서 풍화 작용으로 인하여 마모가 심각한 편이다. 전언에 의하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지금의 위치로 옮겨오는 과정에서도 일부 파손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불상에서는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이 흔적을 통하여 목이 부러졌고, 불신 우측의 다리 부분, 복부 등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손된 불상을 고정하기 위하여 불신 뒷부분과 밑 부분을 시멘트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원래 불신은 뒷부분이 약 10cm, 밑 부분이 5 cm 정도 인위적으로 깎여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불상

의 뒷면과 측면에서는 입체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미간의 백호와 목의 삼도 또한 시멘트로 후보된 것이다.

광배도 상당부분 파손되어 없어진 상태로, 특히 좌측 밑부분이 약 10cm 정도 떨어져 나갔으며, 일부는 부러져 시멘트로 보수되어 있다. 대좌는 불신과 광배에 비하여 온전한 편이지만, 하대 모서리 일부가 부러져 나간 상태이다. 한편 대좌 중대석의 중앙에는 깊이 19cm, 폭 12cm~14c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고 한다. 비로전 안 불상 우측에는 원래 봉안처에서 수습되었다고 전해지는 돌 부재가 보관되어 있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입자가 굵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봉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모와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이다. 그러나 불상의 존격을 알려주는 수인과 편년의 기준이 되는 불상의 비례나 양식을 고찰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다.

### ○ 내용 및 특징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나 불신과 광배, 대좌를 갖춘 존상이다. 불상은 적당한 크기의 광배를 배경으로 상·중·하대를 갖춘 팔각연화대좌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있다. 인위적인 훼손과 자연적인 마모로 인하여 원래의 면모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으나, 남아 있는 상태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비례가 적절하고, 상당한 표현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불상은 인위적으로 뒷부분과 밑부분이 깎여나간 것을 고려하면, 원래는 머리와 몸체, 상체와 하체의 비례가 매우 안정감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적당한 크기의 육계와 장방형에 가까운 둥근 얼굴, 삼각형의 길쭉한 귀, 오뚝한 코, 미소를 머금은 입을 갖추고 있다. 법의는 통견식으로 입고 있으며, 남아 있는 옷주름을 통하여 법의가 신체의 굴곡을 따라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둥근 어깨와 약간 내민 가슴, 법의 위로 살짝 드러난 허리, 굴곡진 발바닥 등에서 수준 높은 표현력을 읽을 수 있다. 수인은 명치 앞에 놓인 오른손으로 배 앞에서 치켜세운 왼손 검지를 살짝 잡고 있는 지권인[비로자나인]을 결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권인과 비교해 보면, 다소 손 자세가 어색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권인을 결한 것은 분명하다.

광배는 2중의 돌기선으로 두광과 신평을 구분하였으며, 돌기선이 이어지는 곳에는 연화문을 새겨 광배를 보다 화려하게 장엄하였다. 개개의 연꽃 무늬는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불상 조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짐작하게 한다. 두광은 16개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평은 당초문으로 장엄하고, 그 외연에 화염문을 새겼다.

상대와 중대, 하대를 별도로 만들어 조합한 대좌는 상대에 비해 하대의 폭이 훨씬 넓은 편이다. 또한 상대의 양련은 단판 형식의 연꽃잎 16개를 이중으로 겹쳐

놓았으며, 하대의 복련은 복판으로 표현하였다. 팔각형인 중대의 각 모서리에는 기둥돌이 새겨져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상대 윗부분에 광배를 올려 놓기 위하여 높이 18.5cm, 폭 13.4cm의 별도의 단이 각출되어 있다. 대좌 상대 위에 광배를 올려 놓기 위하여 따로 단을 고부조로 마련한 것은 매우 드문 예에 속한다. 아마 원래 봉안되어 있었던 지리산 902m 고지에서 불상 조성에 적합한 석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조성 연대에 대해서는 불상에서 반출되었다고 전해지는 [국보 제 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1981년 부산박물관 소장, 1169g, 참고 자료1)와 관련하여 영태 2년, 즉 신라 혜공왕 2년(766)으로 비정되고 있다. 반출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납석사리호가 이 불좌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좌 중대의 구멍과 납석사리호의 크기가 일치하고, 명문에 새겨진 석남암수 관음암이 불상이 원 봉안처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리호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함께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양식적인 특징과 광배의 형식과 문양, 대좌의 형식이 8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것과는 일치한다.

#### <참고 자료1.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명문>

##### 1. 사리호 몸체 명문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 願爲石毘盧遮那佛成 內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在內如 願請內者豆溫愛郎 靈神賜那二僧 那若見內人那向尔 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影中逕類那吹尔 逕風 逕所方處一切衆生那 一切皆三惡道業滅 尔 自毘盧遮那是十 覺去世爲尔 誓內之

##### 2. 사리호 밑면 명문

內物是在之 此者恩術恒惟爲 一二介反藥者大 還病■爲逐■

#### □

##### ○ 현 상

현 산청 내원사 소장 석비로자나불좌상은 지리산 중턱(해발 1000미터가량)의 폐사지에서 전래한 불상으로, 이동과정에서 불상의 뒷면과 밑면에 인위적인 손상을 입었으며, 목 또한 손상된 후 보수된 상태이다. 화염문과 연화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배는 절반가량만 남아 있다. 대좌는 복련형 하대, 팔각주형 중대, 앙련형 상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 윗면의 뒤쪽에 이어진 突帶는 광배 하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는 대좌에서 반출된 ‘납석제호’(부산박물관 소장)를 제외한 불신, 광배, 대좌가 함께 봉안되어 있으나, 입자가 굵은 조질화강암 재질의 불상이 오랜 기간 동안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상의 표면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양감이 강한 얼굴과 몸체, 조밀하고 입체적인 양각으로 이루어진 옷주름 등에서 전형적인 통일신라 8세기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연화문과 화염문으로 구성된 광배, 3단의 연화대좌 등도 8세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하체가 빈약하고, 측면에서 보았을 때 몸통이 빈약한 것은 이동 과정에서 행해진 인위적 훼손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들을 감안한다면 매우 입체적이고 양감이 풍부한 통일신라기 불상임에는 틀림이 없다. 현 부산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영태2년(766)명 석합이 석남암수의 비로자나불상의 대좌 중대석에서 출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본 상도 현존 最古인 766년의 절대연대를 가진 비로자나불상으로 인정되었는데, 양식과 기록이 합치되는 결과이다.

「蠟石製壺 造成記」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賜豆溫哀

郎願爲石毘盧遮那佛

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

在內如 願請內者豆溫

愛郎靈神賜那二僧等那

若見內人那向尔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

影中逕類那吹尔逕風

逕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

皆三惡道業滅尔自毘盧

遮那是等□見去世爲尔誓

內之

□

## ○ 조사내용

이 불상은 원래 내원사의 북쪽 지리산의 중턱 해발 888.7m(좌표 N35.32924° E127.79881°)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삼면(三面)은 절벽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절벽 위에 마련된 5평 남짓 작은 공간의 터에 불상을 봉안하였는데, 현재 그 원형

이 많이 훼손, 변형되어 있으나 타원형 모양으로 대략 370×290cm 규모의 적심을 다졌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다. 불상을 놓았던 정면은 앞이 탁 터진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멀리 지리산의 최고봉인 천왕봉이 조망이 되며, 이곳이 바로 사리호의 명문에 등장하는 觀音巖(관음바위)으로 추정된다. 이 관음바위는 산을 오르는 도중에도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돌출되어 있다.



석남암사 관음바위 원경(불상의 원봉안처)

석남암사 관음암지근경(불상의 원봉안처)

이 불상은 지금의 내원사로 이안되기 前 석남리에 사는 이성호 형제가 사지에서 옮겨 와 집안에 봉안하고 있었다. 이를 주민들이 洪圓鏡이 중창한 내원사에 양도할 것을 권유하여 결국 내원사로 이안하게 된 내력을 가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불상을 사지에서 옮겨 오는 과정에서 이들은 불상의 무게를 덜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불상의 등과 무릎 부분을 깎아 내었다고 하며, 그 흔적으로 인하여 불상이 완전치 못하고 불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현재 파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불상과 대좌, 광배 등 불상을 구성하는 3부를 모두 갖추고 있다. 臺座 및 光背는 불상이 원래 있었던 자리 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1988년 수습하여 內院寺에 옮겨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복원시켜 놓은 것이다.

한편,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나무뿌리를 캐러 다니던 이 지역 주민에 의해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되었고, 이후 진주의 목공예 제작소에서 여러 손을 거쳐 1981년 부산박물관에서 입수한 것이다. 박경원 선생의 논문에 수록된 반출, 이안, 소장 경위는 아래와 같다.

6.25 사변이 나기 전 1947년경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에 사는 이성호 형제가 이 석불을 반출하여 10년 동안 자기 집에 봉안하였다가 1959년경 내원사에 양도하였던 것이다. 내원사의 圓鏡住持는 1953년 회진된 內院寺에 들어와서 복구에 노력한 결과 절도 차츰 면목을 갖추게 되고 지방의 신망도 높아지면서 신도들이 이성호 모자에게 권유하여 내원사로 이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이 불상을 下山搬出한 이성호 형제는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두부를 분단하고, 등과 무릎 아래 부분을 쪼아내었다고 한다.<sup>7)</sup>

6.25 사변 전후하여 내원사계곡은 共匪들의 소굴이 되어서 토벌작전 중 이 일대의 산림이 거의 소실되었다. 수복 후 한때 이 지방 주민들은 불타다 남은 나무뿌리를 화목으로 채굴하기도 하고 형태가 이상한 고목의 뿌리는 목공예품으로 가공하기 위하여 진주지방으로 팔기도 하여 농한기의 부업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무뿌리를 캐러 다니던 주민들에 의하여 험준한 산중에 있던 석불대좌 속에서 석함(石函)이 발견되었고 그것이 진주의 목공예 제작소에서 여러 손을 거쳐 우리 박물관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sup>8)</sup>

이 불상은 통일신라 비로자나불상의 확실한 예이다. 766년의 분명한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작품이어서 불상의 양식편년의 기준자료일 뿐만 아니라 비로자나불상의 도상 연구에서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석남암사지는 신라의 오악(五嶽) 중 하나인 중악에 위치한 사찰로, 창건 연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다. 766년에 조성된 비로자나불상과 사지에 흩어져 있는 석탑재 등을 통해 늦어도 8세기 중엽 경에는 법등을 밝혔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지가 위치한 지리산은 일찍부터 신라의 오악 중 남악으로 중요시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의 지방 확산과 더불어 지리산 지역에도 중요한 사찰들이 속속 창건되었다. 즉 斷俗寺, 三壯寺, 智谷寺, 內院寺, 大源寺 등이 8~9세기 대에 창건되어 법등을 밝혀 왔음을 사지에 잔존하는 유물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중 단연 주목되는 사찰은 우리나라 현존 최고의 비로자나불을 봉안한 석남암사지와 경덕왕을 위해 창건했다고 전하는 단속사이다. 석남암사지 대해서는 전하는 기록이 없지만, 불상의 중대석에서 발견된 납석사리호 명문을 통해 永泰二年(新羅 惠恭王 2, 766년) 釋 法勝 · 法綠 등에 의해 불상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속사는 이순(李純)이 경덕왕을 위하여 창건한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또 신행선사가 신라 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8세기 중엽경, 이 지역과 중앙정부와의 활발하고 긴밀했던 교류 관계를 엿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앙의 한층 발전된 조각 기술과 양식, 그리고 새로운 도상이 빠르게 이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석남암사지에 보이는 비로자나불상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불상은 대좌와 광배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균형 잡힌 형태와 섬세하고 탄력적인 표현기법 등에서 전성기 양식을 엿 볼 수 있다. 대좌는 하대 복련석과 팔각의 중대석, 상대 양련석의 삼단 연화대좌로 구성되어 있으며, 팔각 중대석은 모서리

7) 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像」, 『考古美術』 168(韓國美術史學會), 1985, p.3.

8) 朴敬源, 「위의 글」, p.6.

에 기둥을 모각하였고 표면에는 문양을 새겨 넣지 않고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단 판복엽의 하대양련과 아무런 조식이 없는 낮은 중대석, 그리고 단판 仰蓮을 중첩 시킨 상대석은 8세기 중엽경의 대좌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광배는 불상의 광배 뒷면에서 높은 턱을 마련하고 그 곳에 꽃잎형 거신광배를 놓은 점이 특색이 있다.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 나불좌상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766년

우선 머리는 나발로 표현되었고, 복발을 엮어 놓은 듯 육계가 크고 뚜렷하다. 둥근 얼굴에는 양감이 과장되지 않고 적절하여 탄력적인 부피감이 느낄 수 있으며, 이목구비는 반듯하고 균제되어 상당히 균형감 있게 묘사되어 이상적인 상호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균형 잡힌 신체비례와 균제된 상호는 석굴암 본존불이나 경주 남산 보리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에 제작된 불상들의 비교할 수 있다. 컷바퀴는 둥글게 돌리고 상·하각의 연골의 표현도 뚜렷하게 새겼으며 컷구멍도 열쇠 구멍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내었고 컷불에는 耳孔을 모각하여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후반 불상의 귀표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통견으로 걸친 大衣는 표면의 마멸이 심하여 옷 주름의 표현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은은하게 빛을 비추면 물결이 일렁이듯 금방이라도 불신 전면에서 가라앉아 있던 주름이 돌아 오른다. 옷 주름은 두께가 무척 얇고 골 깊이가 일정한 세밀한 주름 선을 사용하였는데, 불신의 아름다운 굴곡과 살결을 따라서 유려하게 흘러내려 불신의 아름다운 부피감을 잘 드러나게 하였다. 길상좌로 앉은 두 발은 모두 노출시켰으며, 무릎의 측면은 부드럽게 둥글리고 발목에서 뻗어 가는 사선 주름이 신축성 있게 표현되어 무릎의 살결과 골격도 잘 드러나는 듯하다. 수인은 智拳印

을 결하고 있는데, 오른손은 가슴 부근에서 곧게 세운 왼손의 검지의 첫마디를 쥐고 있는 모습이고, 왼손은 무릎과 거의 수평 되게 내린 채 검지만 곧게 세워 주먹을 쥐었다. 왼손 검지가 특히 길어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비로자나불상의 그것과 달리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경전의 내용을 잘 적용한 사례로 생각된다.

○ 사리호 명문

사리호 외면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法緣二僧并

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

郎願爲石毗盧遮那佛

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藪觀音巖中

在內如 願請內者豆溫

愛郎靈神賜那二僧亦那

若見內人那向余頂禮爲那

遙聞內那隨喜爲內那

影中逕類那吹余逕風

逕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

皆三惡道業滅余自毗盧

遮那是亦覺去世爲余誓

內之

(해석:문명대의 해석을 따름)

영태2년 병오(혜공왕 2년, 766년) 7월 2일에

法勝·法緣 두스님이 함께 뜻을 만들어

과거로 나아가신(돌아가신) 豆溫愛郎이 발원한

석비로자나불을 조성하여

석남암사 관음암에 봉안하였다.

발원하여 청한 이인

두온애랑의 영혼이시나

두 스님들이나

혹 (불상을) 본 이나

(불상을) 향해서 정례한 이나

멀리서 (불상에 대해서) 들은 이나

(이를 듣고) 따라서 기뻐한 이나

불상을 지나간 중생들이나

바람이 불어 (불상을) 지나간 바람이 경과한  
모든 곳의 일체 중생들이나  
이런 일체 모두가  
삼악도의 업이 소멸되고  
비로자나로부터(에 의하여) 곧 평등하게 깨닫고  
세상을 떠나지기를(等覺과 去世가 이루어지기를)  
서원하나이다.

바닥면  
內物是在之  
此者恩亦恒性爲  
二介反藥者  
還病?爲逐?

#### ○ 문헌자료

朴敬源·丁元卿, 「永泰二年銘蠟石製壺」, 『年報』 6,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83  
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像」, 『考古美術』 168, 韓國美術史學會, 1985  
姜友邦, 「韓國毘盧遮那佛像의 成立과 展開」, 『美術資料』 44, 國立中央博物館, 1989  
文明大, 「石南巖寺毘盧舍那佛像의 研究」, 『佛教美術』 11, 東國大學校博物館, 1992  
文明大, 「지권인 비로자나불의 성립 문제와 석남암사(石南巖寺) 비로자나불상」, 『圓音과 古典美』, 예경, 2003

#### □

#### ○ 현 상

현재 보물 제 1021호로 지정되어 있는 산청 내원사 법당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이 불상의 원 봉안장소는 내원사 뒷산 능선을 따라 올라가면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석남암사 관음암으로 관음바위라고 불리는 넓은 바위 위쪽에 위치한 절터에는 불상이 안치될 수 있을만한 약 370cm x 290cm 넓이의 정지(整地)된 공간이 있고 적심석으로 생각되는 석재들이 흩어져 있다. 여기서 다시 계곡을 따라 내려가다 옆쪽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석남암사터가 있다. 즉, 산지가람인 석남암사의 부속암자였던 관음암에 비로자나불상이 봉안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의 재료는 입자가 거친 화강암으로 풍화가 심하여 표면이 마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얼굴(도 1)은 양 뺨이 통통하고 이목구비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인간적이고 자비로운 상호(相好)를 보이고 있어 조형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머리에는 작고 동그란 육계가 표현되었고 양어깨에서 가슴에 이르는 불신(佛身) 부분은 양

감이 느껴지며, 양 손은 앞으로 하여 왼손 검지를 곧게 펴고 그 첫마디를 오른손으로 쥐어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도 2). 어깨에 걸친 가사(袈裟)는 팔과 소매부분에 유려한 주름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으며, 결가부좌한 다리를 덮은 옷자락에도 도드라진 양각의 옷주름이 부드럽게 새겨져 있다.

결가부좌한 두 발도 크고 사실적인데, 다리의 높이(坐高)가 유난히 낮은 것은 불상을 산 정상에 절터에서부터 마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인 훼손이 있었기 때문이며 같은 이유로 등 부분도 훼손되어 편평하고 몸통의 두께가 얇아졌다.

불상 뒤에 놓인 광배는 삼분의 일 가량 깨졌으나 연화두광과 신광(身光)을 구획하는 두 줄의 선과 원문(圓紋)이 장식되어 있고 화염문의 조각도 섬세하다. 대좌는 팔각연화대좌인데(도 3), 특이하게도 대좌 윗면의 뒤쪽에 광배를 올려놓기 위한 턱이 마련되어 있다. 상대양련좌는 단판연화문, 하대복련좌는 복판연화문이 각각 16엽씩 돌려져 있고 상대와 중대의 받침은 2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대석의 높이는 19.3cm로 대좌 전체높이(79.5cm)에 비해서 낮은 편이며, 화려하게 장식된 신라시대 9세기 대좌와 달리 부조(浮彫)된 장식은 없고 우주(隅柱)만 조각되어 있다. 이 중대석(도 4)에 뚫려있는 원통형의 사리공(상부직경 14cm, 하부직경 12cm)에는 영태 2년(766)의 명문이 있는 납석제 사리호(높이 14.4cm, 직경 12~3cm)가 납입되어 있었는데 현재 국보 제 233호로 지정되어 부산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사리호 표면과 바닥에는 다음과 같은 명문이 새겨져 있다.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釋法勝法緣二僧并」內奉過去爲飛賜豆溫哀「郎願爲石毘盧遮那佛」成內無垢淨光陀羅尼并「石南巖藪觀音巖中」在內如願請內者豆溫「愛郎靈神賜那二僧那」若見內人那向尔頂禮爲那「遙聞內那隨喜爲內那」影中逕類那吹尔逕風「逕所方處一切衆生那一切」皆三惡道業滅尔自毘盧「遮那是術覺去世爲尔誓」內之」(표면)

內物是在之」此者恩術恒性爲」二介反藥者」還病爲逐」(바닥면)

(표면) 영태(永泰) 2년 병오 7월 2일에 석법승(法勝)과 석법연(法緣) 두 승은 함께 받들어 돌아가신 두운애랑(豆溫哀郎)의 원을 위해 석조비로자나불(石造毘盧遮那佛)을 이루어 무구정광다라니와 함께 석남암사(石南巖寺)의 관음암(觀音巖)에 둔다. 원하여 바라는 것은 두운애랑(豆溫愛郎)의 영신(靈神)이나 두 승려나 이것을 본 사람이나 향하여 정례(頂禮)한 사람이나 멀리서 들은 사람이나 수희(隨喜)하는 사람이나 그림자 가운데를 지나간 이나 불어서 지나간 바람이 지나간 곳의 모든 곳에 있는 일체의 중생이나 일체 모두의 삼악도(三惡道)의 업이 소멸하여 스스로 비로자나불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뜨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바닥면) 호(壺) 안에 있다. 이것은 은혜를 항성(恒性)으로 삼는 것이다. 두 개 반의 약은 도로 꺼내어 병을 쫓을 것(鄭炳三 역).

위 발원문을 통하여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좌상이 영태(永泰) 2년(766)에 법승

(法勝)과 법연(法緣)의 두 승려가 발원하여 조성된 사실과 불상과 함께 「무구정광다라니」를 관음암에 봉안한 것을 알 수 있다.

### ○ 내용 및 특징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은 훼손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불두와 불신의 비례가 적절하고 조각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당시 우수한 조각장인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 상과 비교될 수 있는 동시대의 불상으로는 이 상보다 약 8년 정도 앞서 조성된 김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758년경, 도 5)을 꼽을 수 있는데, 양감이 풍부한 얼굴과 사실적으로 조각된 이목구비의 표현에서 서로 상통한다. 왕실진골세력의 발원으로 조성된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과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의 조형적인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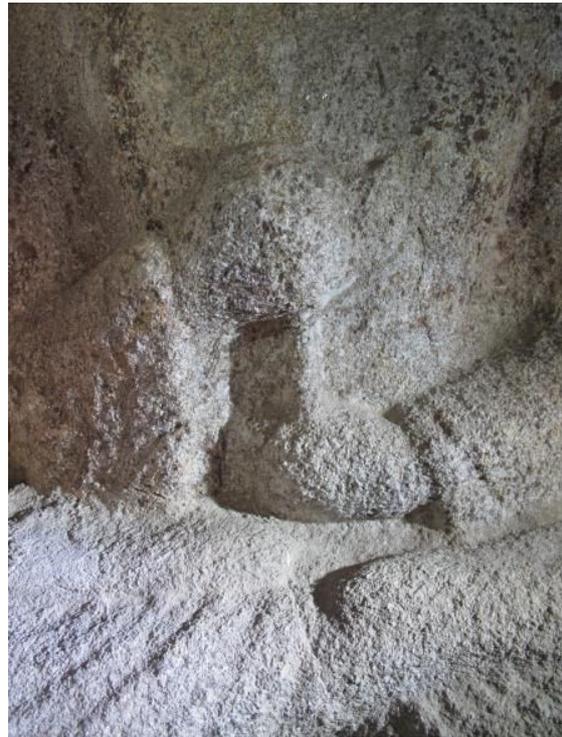
석남암사 비로자나불상이 학계에 알려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비로자나불상의 도상이 전래된 시기를 신라하대 9세기 중엽경으로 생각하였으나, 석남암사지 비로자나불상의 출현으로 지권인 비로자나불 도상의 전래시기가 거의 1세기에 가깝게 앞당겨지게 되었다. 비로자나불(Vairocana)은 화엄경의 주존(主尊)으로 일찍이 중국 남북조시대부터 조성되었으나 특유의 수인(別印)이 없었으므로 다른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시무외·여원인(通印)으로 표현되어 명문이 없으면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런 경우에는 대의(大衣)나 광배에 많은 불상을 그리거나 새기는 방법으로 모든 부처의 진신(眞身)이며 법신(法身)인 비로자나불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당대(唐代) 번역된 금강정경계(金剛頂經系) 경전인 「금강정염송성불의례」(不空金剛 譯)에 지권인에 대한 언급이 처음 나타나고, 「섭진실경(攝眞實經)」(般若 譯)에는 지권인의 형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언급되어 있다. 이 경전들은 8세기 중엽에 역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보다 단지 십여 년이 지난 뒤에 지권인 비로자나불이 신라에서 조성되었다는 것은 신라의 활발한 대당(對唐) 교류 속에서 당대 불교 새로운 변화가 신속하게 신라에 전해졌음을 말해준다.

### ○ 문헌자료

- 한국고대사회연구회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朴敬源, 1985,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坐像-智異山 內院寺 石佛 探查 始末」, 『考古美術』 168, pp. 1-21.
- 文明大, 「智拳印毘盧遮那佛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毘盧遮那佛像坐의 研究」, 『佛敎美術』 11, pp. 55-90.



도1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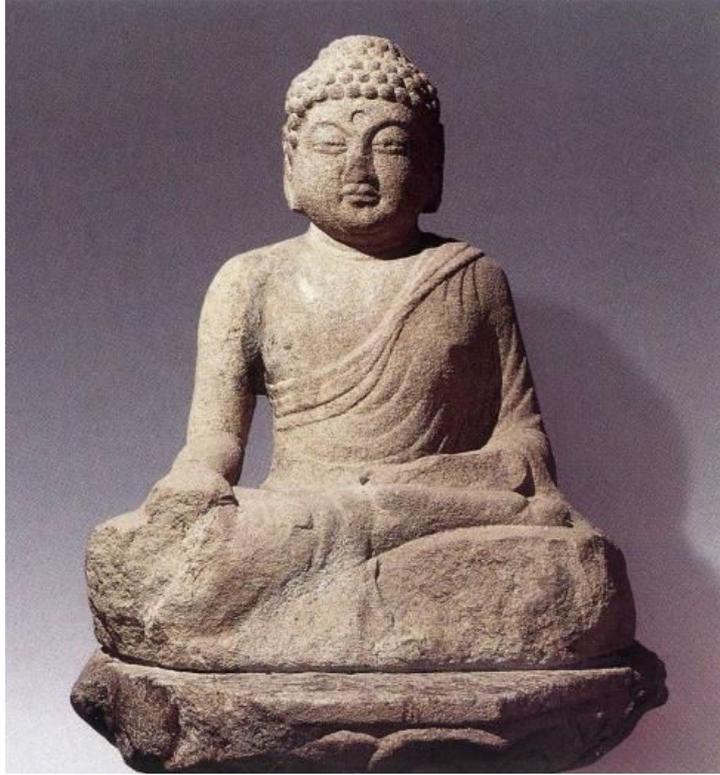
도2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의 수인



도 3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



도 4 중대석의 사리공 모습 사진



도 5 갈항사지 석조여래좌상, 통일신라 758년경,  
경북 김천

## □

### ○ 현 상

이 불상은 현재 경남 산청군 내원사에 봉안되어 있다. 불상을 반출하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하부와 등 부위를 쪼아내었고, 얼굴은 마모되었지만, 광배와 대좌는 하나의 세트로 잘 갖추어져 있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아 있는데 당당하고 모습으로 8세기 최전성기 신라불의 특징을 잘 갖추었다. 육계는 알맞게 솟았는데 표면이 다소 깨어졌으나 나발의 흔적이 남아있고, 머리와 얼굴 윤곽은 둥글고 원만하다. 통견(通肩)의 가사가 전신을 감싸고 있으며, 두께가 얇고 주름선이 유려하여 신체의 굴곡과 양감이 잘 드러난다.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은 불상 형식이며, 수인은 지권인(智拳印)을 하고 있는 ‘불상형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다. 비로자나불상은 머리모양에 따라 크게 불상형과 보관형(寶冠形)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불상형’의 머리형식이 보편적이며 ‘보관형’은 드물다. 오른손을 위로 하여 왼손을 아래로 하여 정확하게 지권인을 맺고 있는데, 두 손의 위치가 조금 낮게 처리되었고 왼손의 검지가 길게 표현되어 있다.

배 모양의 광배는 윗부분과 향해서 오른쪽 부분이 깨어져 있으나, 특징을 살펴보기에는 문제가 없다. 테두리는 불꽃무늬이고 두광과 신광의 테두리는 두 줄로 이뤄져 있으며, 중간 중간 둥근 고리무늬를 새기고 있다. 두광의 중심부는 16잎의 연꽃잎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변으로 당초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런 모양의 광배 역시 8세기에 유행했던 불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대좌는 하대, 중대, 상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대는 팔각에 복판(複瓣)의 연꽃무늬를 복련으로 새겼으며, 중대는 팔각에 각 모서리마다 우주(隅柱)가 있다. 복판의 연잎이나, 팔각의 중대석과 우주를 갖춘 이러한 형식의 대좌는 석굴암 본존의 대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8세기 대좌의 전형적인 모양이다. 다만 중대뿐만 아니라 하대도 팔각평면으로 제작된 가장 이른 기년작은 766년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다. 팔각평면의 하대는 이후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전형적인 형태로 자리 잡는다. 원형평면의 상대, 팔각평면의 중대와 하대의 형식은 통일신라시대 가장 애용되던 대좌의 형태이다. 바로 766년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형식이 ‘삼단팔각’ 연화대좌의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석남암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동일한 형식의 대좌는 경주 남산 보리사 석불좌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역시 팔각중대에 각 모서리마다 우주를 모각하고 있으며 하대의 평면이 팔각이다.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부터 전형 형식을 갖춘 ‘삼단팔각’ 연화대좌는 이후 고려시대 전기까지 형식의 큰 변화 없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

### ○ 내용 및 특징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사 마당에 방치되어 있던 것

을 1966년 여름 신라오악학술조사단이 발견한 것이다. 이 상이 현재 내원사에 있게 된 연유는 1947년경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에 사는 이성호 형제가 이 석불을 원 봉안처에서 반출하여 약 10년 동안 자기 집에 봉안하였다가 1959년 내원사에 양도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성호 형제는 불상을 반출하면서 그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등과 무릎 아래 부분을 쪼아내었다고 한다. 이성호 형제가 불상을 반출한 원 봉안처는 행정구역으로 경남 산청군 삼장면 내원리 山152번지이며, 지리산의 해발 880여미터 고지이다. 이 불상의 제작자는 불상을 제작한 후 산 정상에 높은 절벽 돌출 기암 위에 5m×6m의 평평한 대지를 마련하고 이곳에 불상을 봉안하였다.

한편 부산박물관은 1981년 ‘永泰二年(766)’이라는 명문이 있는 납석사리호를 입수하게 된다. 이 사리호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사리호가 있었던 원 위치가 비로자나불좌상이 반출된 곳과 같은 장소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을 다시 주목하게 된다.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의 대좌의 사리공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리호 표면에는 15行 136字의 造像記가 새겨져 있고, 그릇 밑면에는 4行 21字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대좌 중대석의 중심에 뚫린 사리공은 원형으로 중대석을 관통하고 있고, 윗지름 14cm, 밑지름 12cm로 높이가 14.5cm, 지름12~13cm인 사리호가 들어가기에 알맞은 크기이다. 명문에는 조성일과 조성한 불상명칭 및 봉안장소, 발원내용 등이 담겨 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영태 2년 병오 7월 2일에 범승·범연 두 스님이 함께 뜻을 받들어 과거로 돌아가신 두운애랑을 위하여 석비로자나불을 조성하여 『무구정광다라니경』과 함께 석남암사 관음암에 봉안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은 766년에 조성되었고 석남 암사의 관음암에 봉안했던 것임이 분명해 졌고, 이 후 이 상은 766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비로자나불좌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당시 학계에서는 경전의 번역과 지권인의 수용상황으로 미루어 9세기 중엽에야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유행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석남암사 석조 비로자나불좌상의 발견으로 8세기 중엽에도 지권인 비로자나불상이 제작되었음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학계의 의견은 수정되었다.

## II.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예고

안건번호 동산 2015-05-003

### 1.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가. 검토사항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09.6.2)이 있어 지정조사('10.4.23, '10.5.4)후 본위원회('12.2.9)에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하였음
- 예고 기간('12.2.22~3.21) 중 이견(붙임 1)이 접수('12.3.19)되어 재조사('12.5.15) 후 본위원회('12.6.14)에서 심의했으나 ‘과학적조사(탄소연대측정), 내부묵서확인 후 재심의’ 사유로 보류되었음
- 이에, 과학적조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내부묵서 확인을 위한 조사('15.7.17) 및 방사선탄소연대측정('15.8.4) 결과(붙임 2), 고려시대(AD900~945)로 추정됨에 따라 불교조각분야 소위원회('15.8.28)에서 제작연대를 논의하고 참석위원들의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의결됨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 비지정
- 명 칭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奉化 淸涼寺 乾漆藥師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 소유자(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청량사
- 소재지 :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247 청량사
- 수 량 : 불상 1구, 복장유물 일괄(19건 208점)
- 규격(cm) : 상 높이 90, 불두 높이 35.6  
어깨 폭 54.2, 무릎 폭 72.5

- 재 질 : 건칠
- 제작연대 : 고려 전기(1560년 중수, 1715년 중수)
- 제작자 : 초창 미상(初創 未詳)
  - 중수화원(1560년) : 성연(省衍), 세준(世峻)
  - 중수화원(1715년) : 혜주(慧珠), 원책(圓策), 삼해(三海), 정행(淨行)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소위원회 참석위원 종합의견서】

○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흙으로 대체적인 형태를 만든 다음 그 위에 삼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서 일정한 두께를 얻은 후 조각하여 만든 건칠불이다. 섬유 겉면에는 칠과 토분(土粉)을 혼합한 토회칠이 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불상의 뒷면 하단에 노출된 포층의 두께는 약8-9mm, 층수는 최소한 7겹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여래상은 수인이라든지 양감있는 신체와 대의 표현 그리고 안정감있는 비례 등 전체적으로는 8세기 통일신라시대 석굴암 불상의 전통을 계승한 상이다. 그러나 재료는 물론 긴장감이 있는 생경한 얼굴과 과장된 불신, 옷주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불상은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900-945년 사이에 제작되었음이 밝혀졌는데 이는 양식적으로 파악되는 연대와도 부합된다. 이를 통해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건칠불상으로 확인된 점은 매우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조형적 우수성은 물론 제작연대의 추정이 가능한 最古의 건칠불로 파악되는 등 그 중요성과 가치가 증명되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전체적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고려시대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과학적 시료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동반하고 있는 복장 유물을 통하여 여러 번 보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근대 이후에 대대적인 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근대적 방법으로 수리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상 내부의 삼베 표면의 색이 검은 끼가 약간 섞인 붉은 색이라는 점, 눈을 감입하거나 흙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도된 절개선이 다른 건칠불상과 달리 육계의 가장자리 외에 목에서도 확인된다는 점, 잘라낸 목 부분에 나무로 덧댄 흔적이 있다는 점, 그리고 불상 내부의 목 부분에서 허리 뒷부분으로 좌우로 내려오면서 꿰맨

자국이 보인다는 점 등이다.

비록 건칠약사여래좌상이 고려시대 초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높으나 이후 대대적인 수리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사실 원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따라서 문화재로서의 역사성은 갖추고 있으나 원 모습에 대한 예술성이나 그에 따른 희소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보다 지방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고한다.

##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지정예고 기간 중 제작시기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어 관계전문가의 재조사를 거쳤으며, 재조사(‘12.5.15)에서도 제작기법과 제작시기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12.6.14)의 검토결과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에 2015년 7월 17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과학적 연대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를 실시하였고, 시료는 불상의 표면을 이루고 있는 7-8층으로 포접층 중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시료를 채취하여 미국의 BETA연구소에 의뢰하여 방사성탄소연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시료의 탄소연대는 900-945년으로 측정되어 불상의 양식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불상은 내부를 관찰하면 앞면과 뒷면을 바느질 하여 이어붙인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제작 당시의 것인지 아니면 근대기의 기법으로 제작된 것인지 좀 더 깊이 있는 성찰이 요구되지만, 현재로서는 비교할 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해인사 건칠회랑대사좌상이 앞면은 건칠, 뒷면은 나무로 제작하여 이어붙인 것이 확인되고, 나말여초기 가장 성행했던 철불에서는 외틀을 이어 붙여 성형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던 바, 이러한 제작기법이 당시에 유행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건칠불상은 재료적 특성상 후대에 손상되어 다시 보수하면 그 흔적이 분명히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X-Ray촬영 사진을 보면 불상의 팔뚝에 나무를 덧대어 보강·보수한 흔적과 이마 부분에 다른 재질로 보강한 흔적만 뚜렷이 확인될 뿐, 불상의 윤곽을 이루고 있는 포접층은 대체로 수리 흔적 없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인다. 한편 육안으로 내부를 관찰하면 목 부분에 하얀 이물질로 접합한 흔적이 확인되는데, 이는 불상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이 부서져 후대에 접착제로 보수·접합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수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을 정확하게 잘라 내어 수리하여 이를 이어 붙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불상은 고려전기 어느 시점에 제작되어 여느 불상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보수(기록상으로 고려후기와 1560년, 1715년 중수되었음)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 온 것으로 생각되며, 제작 당시의 원형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원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작기법 등 추가적인 연구과제는 남아 있으나 불상의 양식과 소지층의 방사성탄소연대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고려 초기 건칠 불상의 귀중한 자료로 생각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봉화 청량사는 천년고찰로 사찰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는 훌륭한 문화재가 전하고 있다. 이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 건칠여래좌상은 통일신라 8세기 중엽 석굴암 본존상의 형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외형상으로 통일신라 조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석굴암 본존상의 도상은 나말여초에도 유행하였으나 양식적인 면에서는 시대에 따른 변화가 반영됨으로써 석굴암 본존상과 동일한 상호(相好)가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석굴암 본존상의 도상 뿐만 아니라 양식적인 면에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나말여초 조각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제2차 조사에서 이 건칠불상의 복장물들도 일부는 청량사에 함께 전해오는 고려시대 14세기의 건칠문수보살좌상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이 문수보살상은 등판이 훼손되어 복장 안에 납입되었을 복장물들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건칠불상의 내부를 관찰해 보면, 앞, 뒤의 두 부분을 나누어 불상을 제작한 후, 이를 고정시켜 접합하기 위해 끈으로 기운(이어붙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띠 형태의 천을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른쪽 팔은 따로 제작하여 붙였으며, 그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안쪽에 목심(木心)을 넣어 보강하고 있음이 X-ray 사진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앞뒷면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하는 방법은 석고틀[逆型]을 이용한 것으로 근대기에 일본에서 창안되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다고 알려져 있는 건칠 제작기법이다.

건칠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선시대 1560년명의 「천인동발원문」과 1715년의 중수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천인동발원문」에는 청량산 연대사(蓮臺寺) 약사여래상을 지원(至元) 5년(1339)에 개금하였고, 그 245년 후에 다시 중수하면서 좌우보처 보살상과 광배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당시에는 고려시대에 조성된 약사여래좌상과 조선시대 1560년에 조성된 일광·월광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약사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건칠불상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편을 이용한 AMS탄소연대측정을 통해 알려진 10세기 전반의 연대와 부합한다.

그러나 석굴암 본존상을 그대로 모방한 건칠불상의 형태와 석고틀을 사용한 건칠제작기법은 이 상이 後代에 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10세기 전반이라는 탄소측정연대는 조선시대까지 이 사찰에 봉안되어 있던 고려초기 건칠불상의 제작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건칠불상은 조선시대까지 전해오다가 어느 시기에 크게 훼손되어 다시 제작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 훼손된 불상 몸체의 남은 부분을 새로 만드는 불상의 내부에

넣어 불상을 조성하였다고 추측된다. 석굴암 본존상을 모방한 점과 석고틀을 사용한 후대의 제작기법이 보이는 점은 탄소연대측정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제작시기를 올려보는 것에 대해 심각한 오류 가능성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보물지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이 불상은 1차 조사 당시 고려시대 건칠불상으로 판단되어 보물지정이 추진되었으나, 제작기법과 양식상 의문점이 제시되어 2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상의 제작시기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BETA연구소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실시한 바 있다.

불상의 밑 면 건칠 층 가운데 부분의 삼베를 측정된 결과 방사성탄소연대가 AD900~945년경으로 측정되었다.

과학적 분석을 신뢰한다면 이 불상이 고려시대 제작된 건칠불상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문화재로 지정할 가치도 있다고 생각된다.

○

이 불상은 직물포와 옷칠을 여러 겹 중첩시켜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건칠 불로, 관계전문들의 청량사 현장조사 당시 외형 틀로 조형할 때 생기는 연결부분 등 전통기법으로 조성된 건칠불과 다른 흔적들로 인해 근대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음.

그러나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외형 틀을 이용한 건칠불 조형방식이 우리 고유의 전통기법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불상의 조성연대나 역사적 가치를 결정 지을 수 없으므로 건칠불에 사용된 직물을 시료로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을 시행할 것을 문화재청 관계자에게 요청하였음.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불상조성에 사용된 직물포 중 중간층 부분에서 채취한 시료를 전문기관[베타연구소]에 의뢰하여 방사성탄소연대측정[AMS]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직물시료의 연대는 A.D. 900년대로 확인되었음.

이와 같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로 볼 때 오염에 의한 오차 범위를 고려하더라도 건칠불의 조성연대는 10세기 중·후반일 것으로 추정되고, 근대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음.

다만 1차 조사 당시 외형 틀의 사용흔적으로 생각되었던 불상 내부의 연결부분, X-선 투과사진에서 보이는 일부 수리 흔적 등으로 볼 때 이 불상은 수리 복원과 정에서 최초 불상조성 당시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 【2차 조사자 의견】

○

재조사 결과,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석고틀을 사용한 근대기의 건칠 기법으로 제작된 불상이라고 판단되므로 보물로 지정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조사와 함께 탄소연대측정과 같은 과학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도상적·형식적으로 나말여초 불상들의 특징과 연결된다.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약사여래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제작 기법적인 전통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현상, 내용 및 특징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건칠불상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불상 속 칠폴로 붙여진 삼베의 색깔이 검은 색이 아닌 붉은 끼가 많이 보인다는 것, 삼베 표면에 미세하게 남아 있어야 하는 흠이 전혀 없다는 것, 육계 가장자리의 절개선에 의해 잘려나간 부분이 다른 이물질로 마감되었다는 것, 목에서부터 허리 뒤쪽으로 내려오면서 삼베를 꿰맨 것으로 보이는 흔적 등이 그것이다.

고려시대 후기나 조선시대에 조성된 현존하는 건칠불상들과 달리,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의 이러한 특징들이 조성 시기가 다른 것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과학적 분석 결과가 나온 후에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

청량사 건칠불좌상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작기법이나 양식적인 면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건칠불로 보기는 어렵다. 그 보다는 석고틀을 사용하여 제작한 근대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렇게 석고틀을 사용한 건칠기법으로 작품을 성형한 예는 극히 드물며, 특히 청량사상처럼 불상으로 제작되어 사찰에 봉안된 예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청량사 건칠불좌상은 근대적 기법으로 제작된 최초의 건칠불상이란 면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므로 도지정문화재 등 합당한 지위로 지정하여 관리해야 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좀 더 명확한 불상의 제작연대를 확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미량의 시료라도 채취하여 성분 분석이나 방사성탄소동위원소 분석 등 과학적 조사를 추가로 실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된다.

○

시대를 파악하기 어려운 직물의 경우 대체로 직물의 조직, 무늬, 폭, 실의 꼬임 등에 의해 어느 정도 시대구분이 가능하다. 특히 문직물의 경우는 시대마다 무늬의 구성이 달라 구분이 쉬우나 평직으로 제작된 직물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삼베와 같은 마직물은 고려시대 이전에는 모두 꼬임이 있는 실로 제작하였으나 점차 꼬임이 없는 실을 사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동과 곡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도 꼬임을 약간 주어 제작하기도 하므로 고려 이후의 시대 구분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

청량사 건칠불 내부에 배접되어 있는 직물과 복장된 직물은 모두 평직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오래전부터 널리 사용되던 직물들이다. 이 직물들을 육안으로 시대를 구분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방사성탄소연대에 의한 측정에 의해 정확한 시대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불상 내부의 상태로 볼 때 일반적인 건칠불상 제작기법이 아닌 역형(逆形) 방식으로 제작된 불상으로 판단된다.

불상 내부의 직물편(또는 옷칠)의 AMS 탄소연대측정을 통해 조성연대를 확인한 후 문화재 지정여부를 결정해야한다.

## 【1차 조사자 의견】

○

비록 상의 정확한 제작 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상의 양식으로 보아 통일신라의 전통을 이어주는 신라 말 고려 초의 철불 조성에 이어 고려 전반기 언젠가 건칠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을 추정할 수 있어 건칠상 조성의 상한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상이다. 상에서 나온 복장물 중의 기록을 보면 여러 번의 재복장이 이루어진 듯 1560년의 결원문(結願文)이 있고 이 후 1715년에 중수한 기록이 있다. 복장물 중에 고려의 시중 최종준이 1239년에 납시(納施)한 다라니가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연대추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이 건칠상을 지지하는 층이 파손되고 있어 상 내부에서 목조로 보강하고 있으므로 국가보물로 지정하여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청량사 건칠여래좌상은 고려 13세기에 중수된 상으로 재료인 건칠과 수정을 이용한 눈동자 감장기법 등 고려 시대에 등장하는 특징을 지닌 작품이다. 또한 눈,

코, 입의 생경한 표정이라든지 건장한 어깨에 비해 허리가 짧고 무릎이 낮은 점도 특징으로 고려 전기의 영천 선원동 철불, 충주 지역의 철불들과 비교된다. 이들 불상들과의 양식적 공통성은 충주에서 소백산맥으로 이어지는 육로라든지 남한강과 낙동강 수로와 연결되는 지역적 특징과도 연결되어 양식적인 유파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건칠여래좌상은 조형성이 뛰어나고 고려 전기 불상의 지역성 연구에 중요한 자료인 점 그리고 건칠불상 가운데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 상징성을 참고해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

이 불상은 정확한 조성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1560년), 그리고 조선 후기에 걸쳐 중층적으로 중수된 사실을 전하고 있어 불상의 중수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 불상은 얼굴, 팔이나 어깨, 손 등 부분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후대의 후보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양식적 특징상 통일신라 전성기 양식을 모델로 해서 고려 전기에 제작한 불상으로 추정된다. 비록 후보된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가 미미하고 고려 전기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불상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작례 중 하나로 주목된다.

이 불상은 건칠불상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예일 뿐만 아니라 고려 전기에 유행한 복고양식 불상 연구에도 귀중한 사례로 평가되므로, 함께 발견된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불의 복장전적은 불경류와 다라니류이다. 시기는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불경류는 대부분 고려 후기 및 조선 전기 또는 후기의 인본 내지는 필사본으로 단간(斷簡) 또는 낙장(落張)이 많아 온전한 것이 거의 없다. 다라니류는 복장의식의 사상적 의미로서도 표현되고 복장품의 후령통을 싣다거나 충전용이라 양(量)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복장전적은 불량답시주목록 2책과 다라니류 4종만을 복장유물과 함께 일괄로 하여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마. 의결사항

### ○ 보류

- 앞·뒤판을 페멘실의 연대측정 필요, 카슈의 사용여부 확인.

## 조사보고서(2차)

□

이 불상은 건칠기법으로 제작된 상으로서 고려 후기 건칠불상으로 판단되어 국가 보물로 신청되었으나 지정예고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조사 결과, 불상의 앞면과 뒷면이 서로 이어져 있었고(노끈류로 연결하여 그 위에 천테이프를 발라 이어서 고정), 두부(頭部)도 따로 제작하여 이어붙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건칠불상의 앞, 뒷판을 따로 만들어 이어 붙여서 조합하는 것은 전통적인 건칠기법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석고를 이용한 역틀의 제작기법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건칠기법은 흙을 사용하여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베를 여러 겹 입히며 칠을 바른 뒤에 두부 뒷면과 몸통의 등판 혹은 밑판의 구멍을 통해 안에 있는 흙을 빼내는 방법이다. 이에 반해서, 근대의 석고기법은 석고로 만든 모형 안쪽에 베를 입히고 칠을 바르기 때문에 상의 두께가 균일해지며 불상 내부에 흙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앞, 뒷 판을 이어 붙여 조합하므로 이어붙인 흔적이 반드시 남아있게 된다. 이처럼 석고를 이용한 건칠제작기법은 근대 일본에서 창안된 기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일제강점기에 처음 알려진 기법이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조선시대 1560년명의 결원문과 1715년의 중수기록이 발견되었고, 고려 후기 철원최씨 집안의 시중(侍中) 최종준이 1239년에 인시(印施)한 다라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최종준 다라니는 약사여래상의 조성시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종준 인시의 다라니가 처음 알려진 것은 서울 수국사(水國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복장조사에서였으며, 수국사의 다라니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있는 데 반해서, 청량사의 다라니는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먹이 짙게 묻친 조악한 상태로 찍혀져 있어 청량사 약사여래좌상에서 나온 다라니와 차이가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약사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가정(嘉靖) 39년(1560)의 「천인동발원문」에는 약사여래상을 지원(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였고, 그 245년 후에 다시 중수하면서 좌우보처 보살상과 광배를 만들었다고 언급되어 있다. 즉, 이 기록에 따르면, 청량산 연대사(蓮臺寺)에는 고려시대의 약사여래좌상과 조선시대 1560년에 조성된 일광·월광보살상으로 이루어진 약사여래삼존상이 봉안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석굴암 본존형 건칠불상의 복장 속에 약사여래상과 관련된 문서들과 복장이 발견되었다면 원래의 약사삼존여래상이 어느 시기에 훼손되어 그 복장물이 근대기에 새로 조성된 건칠여래좌상의 복장 속에 넣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청량사에는 이번에 재조사를 실시한 건칠약사여래좌상 외에 또 다른 건칠상이

전하고 있다. 이 상은 보살좌상으로 전통 건칠기법으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건칠불 제작에 쓰이는 ‘베’가 아닌 ‘모시’가 사용되어 고려 후기의 고급 건칠상으로서 주목된다. 이 보살상은 배면(背面)이 크게 훼손되었고 내부의 복장물도 잃어버린 상태여서 복장물의 교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

### ○ 현 상

현재 청량사 유리보전에 주존으로 봉안되어 있는 불좌상은 건칠기법으로 조성된 것이다. 근년에 발견된 복장물에는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과 「결원문(結願文)」 등의 중수 원문이 있다. 이들 중수원문(重修願文)은 가정(嘉靖) 39년(1560, 명종 15) 불상을 중수 할 때 참여한 사부대중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이 중 「천인동발원문」은 이전의 중수 상황까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불상의 내역을 알려 준다. 즉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이 파색(破色)되었기에 지원(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고, 그로부터 245년 후 화사(化士) 순묵(淳默)이 파색(破色)된 것을 다시 중수하고 좌우보처(左右補處)인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그리고 화광(火光) 등을 가정(嘉靖) 39년 10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하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중수기에 기록된 약사불좌상의 협시보살이었던 일광보살상과 월광보살상은 현재 없어진 상태이며, 문수보살상과 지장보살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좌는 1734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며, 조성에 관한 목서가 남아 있다. 그러나 불상이 처음 조성할 때 넣었을 조성 발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하게 언제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건칠약사여래좌상은 편단우견의 착의법에 결가부좌하고 있다. 항마촉지인을 결한 오른손은 촉지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고, 왼손에는 약합이 놓여 있다. 이 약합은 왼손바닥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적당한 나무를 잘라서 올려 놓은 것으로 불상 조성 당시부터 전해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불상은 나말여초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양식적으로 생경한 느낌도 없지는 않다. 특히 불신에 비해 상당히 크고 길게 만든 양 손은 나말여초 불상의 손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손바닥과 손가락의 미세한 부분을 질감이 풍부하게 모델링하였는데, 이러한 조형적인 특징은 고려 초기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건칠약사여래좌상을 X-ray로 촬영한 결과, 몇 겹의 삼베를 접착제로 발라서 불상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난히 돌출된 백호와 그 주변이 다른 재질로 마감되었고, 오른쪽 팔뚝에는 나무가 끼어 있으며, 양 손도 성분을 알 수 없는 재질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건칠불상은 불두와 불신은 건칠로 마감하지만, 양손은 나무로 제작하여 끼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한편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다른 건칠불상들이 짙은 검은색으로 마감된 것과는 달리 칠의 농도가 약하여 삼베가 검은 끼를 머금은 붉은 색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칠불상이 완성된 후에 불두 속에 있는 흠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두의 일부를 절개한 절개선이 X-ray 사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육계 가장자리 부분에 도려 된 흔적과 도려진 부분을 다른 재질로 마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 ○ 내용 및 특징

우리나라 조각 중에서 건칠 기법을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가장 이른 것은 해인사의 희랑대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건칠불상의 역사는 당과의 교류가 빈번했던 통일신라시대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기록이나 건칠불상의 유례는 남아 있지 않다. 우리나라 건칠불상은 현존하는 작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건칠불상의 제작기법이나 양식적인 특징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비록 조성 연대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조사된 건칠 불상의 예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불상 내부에 칠풀로 발라진 삼베가 매우 검은 색을 띠고 있다는 점, 불상 내부 삼베 표면에 불상을 모델링할 때 사용되어진 흠이 묻은 흔적, 불두 부분에 있던 흠을 빼내기 위하여 불두의 일부를 절개한 절개선 등이 그것이다.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백호와 육계, 양 손 등 일부분이 다른 재료로 마감되었다. 약사여래좌상의 도상적인 특징들은 통일신라 말기부터 고려시대 초기까지 조성된 불상들과 유사하다. 고려시대 초기의 충주 대원사와 단호사 철불좌상이나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신라시대 불상의 도상적 전통을 답습하면서 양식적으로는 약간 생경한 모습이 건칠약사여래좌상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건칠약사여래좌상은 기존에 알려진 건칠불상과 현재 청량사 유리보전에 봉안된 건칠문수보살좌상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다른 점이 확인된다. 즉 불상 내부의 삼베 표면의 색이 검은 끼가 약간 섞인 붉은 색이라는 점, 불상 내부 삼베 표면에 남아 있어야 할 흠의 미세한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절개한 부분이 육계의 가장자리 외에도 목에 나타난다는 점, 잘라낸 목 부분에 나무로 덧댄 흔적, 그리고 불상 내부의 목 부분에서 허리 뒷부분으로 좌우로 내려오면서 께맨 것으로 보이는 자국 등이 그것이다.

[사진 자료]



사진1.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사진2. 건칠약사여래좌상 양손의 조형적인 모습



사진3.  
건칠약사여래좌상  
오른팔 이은 흔적



사진4. 건칠약사여래좌상 내부 꿰맨 자국



사진5. 건칠약사여래좌상 내부 삼베 붉은색

사진6. 청량사 건칠문수보살좌상(우) 및 내부 삼베 검은색



## □

### ○ 현 상

건칠불의 제작기법은 크게 고전기법과 근대기법의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고전기법은 소조로 원형을 제작한 후, 원형의 표면에 칠과 풀을 섞어 만든 호칠(糊漆)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인피(靛皮)섬유(삼베나 모시)를 바르고 경화시킨다. 이때 형태를 유지 시키며 한 층씩 천을 붙이고 경화시키는 과정을 반복한다. 천을 올리는 횟수는 불상의 크기나 천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천에 바른 호칠이 완전히 경화하면 안쪽에 있는 원형(소조)의 흙을 제거하고, 표면에 각회(角灰), 자설(磁屑), 골회(骨灰), 합회(蛤灰), 전회(甄灰), 배설(坏屑), 지회(砥灰) 등의 광물질 성분과 칠을 혼합하여 만든 회칠(灰漆)의 하지를 도포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금박이나 채색을 하여 상을 완성하는 것이 고전적인 협저 제작기법이다. 따라서 완성

후에는 안쪽에 소조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거나, 혹은 X-ray 사진에 투영되며, 형태를 유지시키면서 천을 바르기 때문에 옷주름 선이나 무릎 부분 등은 층의 두께를 달리 하는 경우가 많으며, 마무리 부분에서 회칠로 형태를 수정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감층의 두께를 부분에 따라 달리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 다른 제작기법으로는 근대에 고안된 기법으로 석고틀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건칠기법이 있다. 점토로 소조의 원형을 제작한 후 석고로 외형을 제작한다. 석고틀은 상의 앞과 뒤를 나누어 2개의 자형(雌型-凸)으로 만들고, 팔이나 다리 부분 등 복잡한 부분은 자형(雌型-凸)의 틀을 따로 제작한다. 앞면과 뒷면의 각각의 석고틀 안쪽에 이탈제(離脫劑)를 바른 후 그 위에 붓으로 회칠을 칠하여 경화시킨다. 회칠이 경화하면 그 위에 호칠로 천을 바르고 경화시키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한다. 천이 완전히 경화하면 앞면과 뒷면을 접착시키는데, 접착 부분에 곡소[호칠+목분(木粉)]를 칠한 후 2개의 틀이 맞물리도록 하여 합체시킨다. 이때 석고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철사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곡소로 접착한 부분이 경화하면 끈 형태로 자른 천을 접착 부분에 붙여 보강한 뒤, 석고틀에서 건칠을 떼어내어 표면을 마무리 하여 완성시킨다. 이 기법은 결국 겉 부분에서 속 부분으로 천을 쌓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칠의 두께나 천의 두께가 일정한 특징을 가진다.

청량사 건칠불좌상은 상의 아래 부분에서 7겹 정도의 천을 붙여 만든 것이 확인되었으나 칠의 성분이 적고 풀의 성분이 많은 것을 육안관찰 만으로도 판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내부를 관찰해 보면 상은 크게 앞, 뒤 부분을 나누어 제작한 후 이를 고정시켜 접합하기 위해 끈으로 기운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끈 형태의 천을 붙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X-ray 사진에서도 상이 앞, 뒤로 나뉘어져 접합된 선이 확인되며, 그 부분은 상의 표면에서도 접합 부분이 도드라져 요철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오른쪽 팔은 따로 제작하여 붙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형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안쪽에 목심(木心)을 넣어 보강하고 있음이 X-ray 사진에서 확인된다.

## ○ 내용 및 특징

청량사 건칠여래좌상은 표면의 회칠층이 아주 얇고 균일한 층을 이루고 있고, 앞뒷면을 따로 제작하여 접합해 만든 것이 확인되는 등 석고틀을 이용한 근대의 건칠제작기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

## ○ 현 상

### 1. 건칠불의 배접직물

건칠불의 내부에는 성근 직물로 배접이 되어 있는데, cm당 7~8을 정도의 밀도를 보이는 성근 직물이 사용되었다. 이 직물은 곳곳에 삼기를 한 흔적으로 보아 마직물이 확실하며 직물의 태로 보아 삼베로 여겨진다.



사진1. 건칠불 내부 삼베 배접상태



사진2. 삼베의 확대

우리나라의 삼베는 고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계층에서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되던 직물이다. 고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삼실에 S방향으로 꼬임을 주어 사용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점차 꼬임이 거의 없는 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안동과 곡성에서는 지금도 꼬임을 준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에 꼬임이 많으면 직물의 강도가 높아지나 아무래도 시간과 노력이 더 요구되므로 점차 꼬임을 주지 않고 짜고 있다. 그러므로 실의 꼬임은 마직물에 있어서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건칠불의 삼베에는 꼬임이 잘 남아 있으나 청량사는 인동 인근에 위치하므로 안동포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삼베의 폭은 고려시대부터 33cm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건칠불에 배접되어 있는 삼베의 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 2. 복장 직물

복장직물은 목서가 적힌 황초폭자(黃綯幅子)를 비롯하여 총 5점이다. 이 가운데 4점은 양 가장자리에 식서가 남아 있어 직물폭을 알 수 있으며, 청색주 1점만이 작은 직물편으로 되어 있다.

#### - 황초폭자(黃綯幅子)

황색주(黃色紬)로 만든 황초폭자(黃綯幅子)이다. 가운데에는 남(南), 동(東)의 방향을 나타내는 목서가 적혀있으며, 가장자리에는 ‘귀비보체양주(貴非保体兩主)’라는 목서가 있다. 밀도는 약 22을 정도로 그다지 치밀하지 않으며 섬유가 손상이 되어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



사진3. 황초폭자(黃綯幅子)



사진4. 황초폭자(黃綯幅子)의 목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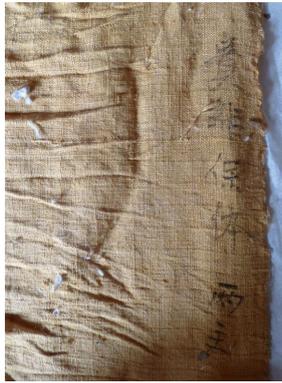


사진5. 황초폭자(黃綯幅子)의 목서



사진6. 황초폭자(黃綯幅子)의 목서의 확대

- 삼베

직물의 밀도는 cm당 16×15올이며 폭이 35cm 정도이므로 7새에 해당되는 삼베이다. 윗부분이 잘려서 손상되었는데 현재는 ‘…天德, …氏保体’라는 목서만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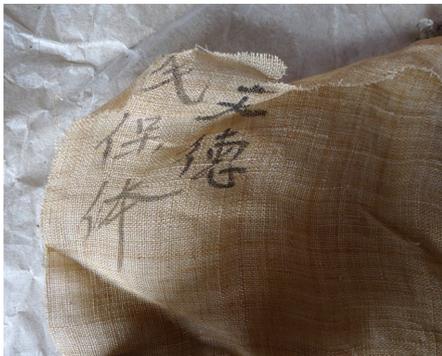


사진7. 삼베의 목서



사진8. 삼베 확대

- 청색주(靑色紬)

청색주의 크기는 31.5×46.5cm로 장방형이다. 실의 굵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친 직물이며 밀도는 38×35올 정도이다.



사진9. 청색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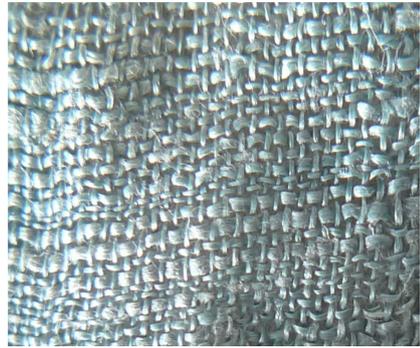


사진10. 청색주 확대

- 무명

물들이지 않은 소색(素色) 무명이다. 실의 직경은 0.1~0.4mm까지로 차이가 많이 나며 밀도는 cm당 21~22올로 10새 정도의 무명이다.



사진11. 무명



사진12. 무명 확대

- 청색주(靑色紬)

크기가 11.5×13.0cm인 작은 직물편이다. 재질은 청색주이며 밀도는 48×45올로 치밀한 편이다. 한 쪽에는 식서가 남아있다.



사진13. 청색주



사진14. 청색주 확대

□

○ 현 상

- 외관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은 외관 상태로 보아 근래에 카슈 등의 합성도료를 이용하여 다시 개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시행된 X-ray촬영의 사진을 통해 볼 때 불상의 오른쪽 팔은 따로 만들어져 몸체에 근접한 부분에서 연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관조사에서도 확인된다.

- 내부 상태

불상 내부는 식물(삼베)로 깨끗하게 마감되어 있으며 흙이나 기타 오염물이 보이지 않고 색상은 약간 붉은 황색을 띄고 있다. 불상 내부의 어깨 쪽에 몸체의 전·후 부분을 조립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끈(?)의 흔적이 보이며 불두의 상부와 전·후 부분은 연결부를 곡소(옷칠+풀+툽밥 등의 혼합물)로 접합한 흔적이 남아있다.

[사진 자료]



사진1 . 건칠불상 외관



사진2. 건칠불상의 바닥마감 상태



사진3. 건칠불상 팔부분의 연결부



사진4. 건칠불상의 내부 상태



사진5. 건칠불상의 내부 마감 및 연결부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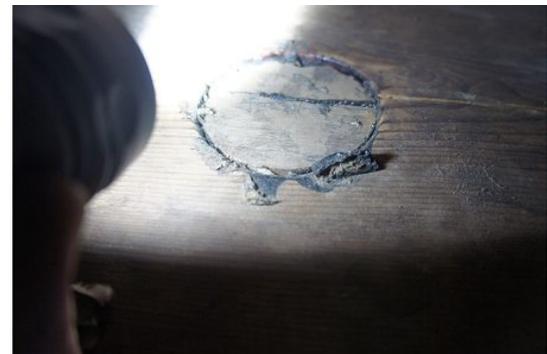


사진6. 건칠불상의 바닥마감 불상 내부 쪽 목서

## 조사보고서(1차)

□

이 상은 높이 90cm이고 무릎 폭이 72.5cm인 항마촉지인 불좌상으로 약함을 왼손에 들고 있어 약사불로 알려져 있다. 상의 비례에서 어깨의 폭이나 결가부좌의 무릎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상의 재질은 건칠로 조성되었으며 상이 일부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속으로 목재로 받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건칠상들은 대부분 고려시대 말기의 예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나 해인사의 희랑조 사상이 건칠로 된 것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고려 초부터 건칠의 상들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상의 양식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에서 고려 초 까지 유행한 항마촉지의 수인이나 얼굴의 눈꼬리가 길고 옆으로 올라간 모습은 고려시대 초기의 특징으로 특히 충주의 단호사와 대원사에 있는 두 구의 철불좌상과 양식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얼굴 표정과 상 전체의 비례로 보면 보물 제513호의 영천 선원동 철불 좌상과도 유사하다.

□

청량사 유리보전 내에 있는 건칠여래좌상은 항마촉지의 수인에 오른발을 위로 한 결가부좌로 앉아 있으며 넓은 어깨에 건장한 불신이 특징이다. 얼굴은 비교적 큰 편이지만 탄력 있는 모습에 위로 치켜 올려진 눈과 뚜렷한 코와 입이 중앙으로 몰려 생경한 분위기를 보인다. 머리의 작고 촘촘한 나발은 불상의 재료인 건칠과는 다른 재료로 판명되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 주목된다. 기법적인 면에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넓고 건장한 어깨와 불룩 솟은 가슴, 편단우건의 대의, 두 무릎 사이로 흘러 내린 부채꼴의 옷자락, 간결한 옷주름 등은 항마촉지인과 더불어 통일신라 이후부터 유행한 석굴암 불상 형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얼굴의 표현이라든가 넓은 어깨에 비해 짧은 허리, 넓은 무릎 너비에 비해 매우 낮은 무릎 등 비례 면에서 큰 변화를 보인다.

이 여래좌상은 내부 조사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눈에는 수정으로 눈동자를 감입하였으며 7~8겹의 삼베를 이용한 건칠상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백호 주위와 오른손, 목 부위에 수리한 흔적이 있으며 오른쪽 어깨 내부에는 나무로 보강을 해놓은 상태이다. 또한 오른쪽 팔 역시 나무를 넣어 원형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외형상으로도 머리 부분이 앞으로 나온 듯하며 오른쪽 어깨는 안에 나무로 보강하였지만 심하게 내려 앉은 상태로 이에 따라 양 무릎의 높이도 차이를 보인다.

이 여래상은 고려시대 철불인 영천 선원동 철불좌상(보물 제513호)과 건장한 어깨라든지 편단우견의 착의법과 육계의 표현 그리고 위로 올라간 눈꼬리와 입 가장자리를 판 모습까지도 닮았다. 같은 얼굴 모습은 충주 지역의 대원사나 단호사 철불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이 불상 안에서는 개금중수기(改金重修記)와 다라니 등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복장에는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인시(印施)한 만다라에 나타난 기해년(己亥年, 1239년) 간지(干支) 라든지 1560년(명종 15) 순묵(淳默)이 중심이 된 개금중수시의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에 적힌 지원 5년(至元 5年, 1268년) 등이 있어 제작연대 추정에 참고가 된다.

## □

### 1) 건칠약사여래좌상

현재 청량사 유리보전(琉璃寶殿)의 주불(主佛)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X-ray 조사결과 칠(漆)과 포(布), 회(灰)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건칠불상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법으로 제작한 불상은 중국의 남북조시대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히 언제부터 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칠상 가운데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고려 전기에 제작된 함천 해인사 희랑대사상(希朗大師像, 보물 제999호)이다.

이 불상은 엄숙한 상호, 당당하면서도 육감적인 양감, 균형 잡힌 신체 모습, 탄력과 절제 넘치는 선 등에서 분명 통일신라 전성기의 양식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칠기법의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상의 복장에서는 불상의 초창과 관련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법사리(法舍利) 겸 충전용(充填用)으로 납입된 경전과 다라니, 그리고 중수와 관련된 원문 2점이 발견되었다. 중수 관련 원문은 「천인동발원문(千人同發願文)」과 「결원문(結願文)」이다. 이 2점의 중수원문(重修願文)은 가정(嘉靖) 39년(명종 15, 1560) 불상을 중수 할 때 참여한 사부대중의 목록을 적은 것이다. 특히 중수원문 중 하나인 「천인동발원문」에는 이전의 중수상황도 소략하게 기록하고 있어 이 불상의 제작시기 추정에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다. 즉 이 기록에서 초창은 알 수 없으나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이 파색(破色)되었기에 지원(至元) 5년 10월에 개금하고, 그로부터 245년 후 화사(化士) 순묵(淳默)이 파색(破色)된 것을 다시 중수하고 좌우보처(左右補處)인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 그리고 화광(火光) 등을 가정(嘉靖) 39년 10월에 만들기 시작하여 12월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처음 중수가 있었던 지원(至元) 5년은 원대(元代)에 2번 사용된 연호이다. 즉 지원 5년은 1268년과 1339년에 해당하지만, 발원문에 간지(干支)가 없으므로 어느 해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더욱이 1268년의 245년 후는 1513년이고, 1339년의 245년 후는 1584년이므로 두 가지 모두 중수발원문이 쓰여진

1560년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복장에서 함께 발견된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이다.

이 진언의 오른쪽 모퉁이에는 세로로 ‘기해시월일 시중 최종준 인시(己亥十月日侍中 崔宗峻 印施)’라는 간기(刊記)가 찍혀 있는데, 이 진언을 인시(印施)한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 ?~1249)은 최유청(崔惟淸, 1095~1174)의 손자로 신종(神宗) 3년(1201)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를 거쳐 대몽항쟁 기간이었던 고종 재위 시에 15년 간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한 인물이다. 따라서 이곳에 등장하는 기해년(己亥年)은 1239년에 해당한다. 이 진언으로 정확한 중수 연대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불상의 중수 시 불상의 중수 시점과 가까운 시대의 전적이나 다라니 등이 납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39년과 가까운 지원 5년에 중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1715년에도 약사여래와 좌우 보처에 대한 중수가 있었다. 대좌는 1734년에 새로 조성한 것이며, 조성에 관한 목서가 남아 있다.

우선 약사불상의 현상과 양식적 특징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높고 큼직한 육계가 표현되었으며, 작고 둥글둥글한 나발은 별도로 만들어 촘촘히 부착하였다. 큼직한 육계에서 지발부(地髮部)로 이어지는 헤어라인은 부드럽고 완만하다. 이마는 좁고 면이 다소 거칠며, 양미간에는 어색할 만큼 큼직한 백호가 박혀 있는데 후보된 것이다. 반개한 눈꺼풀은 물결치듯 표현하였고 긴 눈초리를 치켜 올려 사바세계를 굽어보듯 처리한 시선은 다소 강인해 보인다. 이러한 눈매는 통일신라시대 중엽 경에 조성된 불상들에서 볼 수 있는 눈매와 달리 고려 전기로 추정되는 부석사 소조여래좌상이나 고려 전기의 단호사, 대원사 등 충주 지방의 철조여래좌상의 강인한 눈매 등과도 비교된다. 가름하게 정돈된 얼굴은 양감이 팽창하여 탄력적이며, 광대뼈는 도드라졌고 입술 아래쪽을 깊이 눌러 엄숙한 미소를 만들어 내었다. 턱 아래로는 자연스럽게 군살 턱이 자리 잡았다. 귀는 어깨 부근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귓볼은 물방울 모양으로 크게 구멍을 뚫었다. 상하각의 표현은 불분명하며 이공(耳孔)의 형태는 1274년에 중수된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의 그것과 유사하다.

굵기와 길이가 알맞은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다. 팽팽한 근육이 자리 잡은 가슴은 넓고 당당하며 허리는 잘록하다. 무릎은 낮고 넓은 편이며, 오행은 깊다. 불신에는 대의(大衣)를 편단우견으로 걸쳤는데, 주름은 절제미가 돋보이는 가운데 육감적인 불신에 착 감기듯 얇게 밀착되어 이상적인 불신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팽팽하게 걸친 대의자락 위로 도드라지게 드러난 왼쪽 젓가슴이나 가슴 아래로 흘러내린 두 가닥의 짧은 주름, 그리고 겨드랑이와 양 발목을 향해 팽팽하게 감겨 들어가고 있는 요철이 있는 입체적인 주름과 무릎 앞으로 자리 잡은 부채꼴형 주름, 팔자형(八字形)으로 처리한 등 주름 등은 석굴암 본존불상이나 경주 남산 냉골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엽 경의 전성기 불상을 연상시키지만, 이들 보다 과장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은 무릎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 축지인을 취하였고, 왼손은 복부 앞에서 선정인(禪定印)을 취하고 구슬 모양의 약기(藥器)를 올려놓아 약사불상의 도상적 특징을 보이지만, 제작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560년에 작성된 발원문에 약사불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사불상으로 조성, 봉안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1560년 중수 개금 때 새로 조성된 협시보살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 상에서 보이는 볼륨감 넘치는 불신의 표현, 긴장감 넘치는 선, 균형 잡힌 몸매, 간결함 속에 긴장감이 돋보이는 옷 주름 등은 석굴암 본존불이나 경주 남산 냉골 석조여래좌상, 그리고 경주 안계리 석조여래좌상 등 8세기 중·후반 경에 조성된 불상들과 양식적 친연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작고 촘촘한 나발, 물결치듯 표현한 강인한 눈매, 다소 과장된 근육의 표현, 귀의 형태나 옷 주름 등의 세부표현에서 영천 선원동 철조여래좌상이나 광주 하사창동 철조여래좌상, 부석사 소조여래좌상 등 고려 전기에 제작된 복고풍 불상 양식 계통과의 유사점이 확인된다. 이 불상 역시 고려 전기 통일신라 전성기 불상을 모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복장유물

후령통은 종이로 만든 것으로 표면에는 옷칠하였다. 후신(喉身)에는 사방주(四方呪)를 묵서하였고, 후개(喉蓋)는 팔엽개(八葉蓋)의 형태로 팔엽대홍련지도(八葉大紅蓮之圖)를 나타내었다. 후령통 내에는 종이로 만든 원통형의 오보병(五寶瓶)을 납입하였다. 오보병은 오방색을 띠며, 표면에는 묵서로 방위에 따라 범자를 적었다. 밑면에는 비단으로 만든 오륜(五輪)을 부착하였으나 청(靑), 백(白), 흑색(黑色) 보병(寶瓶)에만 남아 있고 황색은 따로 떨어져 있다. 보병 내에는 오곡(五穀), 오보(五寶), 오향(五香), 오황(五黃), 오약(五藥), 오개(五芥), 오보리수엽(五菩提樹葉) 등을 한지로 싸서 넣고 양면에 물품명과 봉자(封字)를 묵서하였고<표 2 참조>, 이외 비단으로 만든 오산개(五傘蓋), 저(杵) 등을 납입하였다. 동(東) 마노병(瑪瑙瓶)에는 대맥(大麥), 대황(大黃), 나청(蘿靑), 화(花), 청백저(靑帛杵), 청개(靑蓋), 반월형(半月形) 조각, 묵서가 없는 한지 4첩 등을 납입하였고, 서(西) 산호보병(珊瑚寶瓶)에는 도(稻), 소황(小黃), 곽향(藿香), 계피(桂皮), 백개자(白芥子), 화(花), 야합수엽(夜合樹葉), 백백저(白帛杵), 백개(白蓋), 삼각형(三角形) 비단 조각, 묵서가 없는 한지 2첩 등을 납입하였다. 남(南) 마니보병(摩尼寶瓶)에는 진주(珍珠), 감초(甘草), 정향(丁香), 옹황(雄黃), 자개자(紫芥子), 화(花), 추엽(楸葉), 홍백저(紅帛杵), 홍개(紅蓋), 묵서가 없는 한지 2첩, 적색 비단 조각 1점 등을 납입하였고, 북(北) 유리보병(琉璃寶瓶)에는 청녹두(靑菉頭), 유리(琉璃)(?), 아리(阿利), 침향(沈香), 자황(紫黃), 만청(蔓靑), 흑개자(黑芥子), 화(花), 흑개(黑蓋), 흑백저(黑帛杵), 반월형 비단 1점, 묵서가 없는 한지 2첩 등을 납입하였다. 중(中) 수정보병(水晶寶瓶)에는 마자(麻子), 우황(牛黃), 황개자(黃芥子), 성루엽(聖樓葉), 화(花), 황개

(黃蓋), 목서가 없는 한지 1첩 등을 납입하였다.

이외 다라니, 전적류, 황초폭자, 제보향(諸寶香)이라는 목서가 있는 한지 몽치 1점, 한지로 만든 오보병 2점, 시주자명이 있는 삼베편, 비단편 등이 발견되었다. 후령통의 형태나 납입방식 등은 문경 봉암사 목조아미타여래상(1586년 작)의 복장 납입 방식과 유사한 점이 있어 1560년 중수 때 납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천인동발원문 千人同發願文(1560년)

1.

性海」釋空」戒崑」性一」正堅」能了」智蟾」雪仁」玉連」處澄」智安」雪熙」思允」信雄」玉澄」道文」儀淳」信道」行淳」善弘」雪旭」性天」雪還」

2.

學敬」敬熙」智空」道文」海連」熙祖」處敏」能印」信澗」法澄」靈隱」智湖」釋熙」玄牛」佛行」靈機」印贊」學敬」能印」志優」學靈」

3.

正衍」智安」惠弘」惠澄」雪岑」覺淳」元旭」雪雲」信峻」性玉」智雲」雲熙」克湖」元悟」性崑」一宗」戒澗」熙尙」靈秀」道軒」法根」信峻」覺月」

4.

信敬」印草」智還」天寶」永貞」法淳」法修」法源」崇印」崧悅」贊崇瓊」崇鮮」崇彥」惠雄」僅文」靈默」玄則」熙晟」性修」處林」天雲」尙澄」印祖」學淳」祖玄」僅敬」

5.

天一」性連」敬仁」僅敬」性熙」雙雲」雙明」熙允」熙牛」雙勳」崇坦」自澄」學敏」惠澄」惠林」宗敬」印玉」竹林」法修」贊靈贊」戒林」淡行」祖仁」省雲」宗印」智宥」

6.

小童秩」漢元」鳳壽」眞伊」億從」鶴壽」壽量」宓伊」鶴守」連守」雲鶴」連壽」億良」億良」靈贊」

7.

東方藥師如來造成卽不知年數年久破色改金則」至元五年十月日畢造其後計數二百四十五年 又於化土淳默」破色重修」

左右補處日光++(=菩)++(=薩)月光++(=菩)++(=薩) 及火光等造成 嘉靖三」十九年十月爲始十二月日 畢造」

證明 釋空」持殿 惠峻」禪宗維那 祖澄」法堂持寺大化主 雪旭」

畫員 省衍」世峻」供養主 信問」戒幢」

書寫 寶鏡」

嘉靖三十九年庚申仲冬日目錄」

○ 결원문 結願文(1560년)

1.

大施主 白裴山兩主」大施主 李莫同兩主」大施主 張挨貞兩主」大施主 崔世元兩主」大施主 李屎仇知兩主」大施主 崔莫松兩主」大施主 盧銀孫兩主」大施主 金永孫兩主」大施主 永眞兩主」孔內隱孫兩主」琴元補兩位」琴仰尙兩位」琴億兩位」琴守億兩位」

2.

琴文淳兩位」權繼林兩位」權繼根兩主」崔貴男兩主」崔元補兩主」崔武金兩主」崔莫同兩主」今德兩主」禹莫孫兩主」劉苐叱之兩主」鄭苐叱同兩主」林武金兩主」林順山兩主」李銀孫兩主」金忠男兩主」

3.

金千兩主」金大山兩主」全龍金兩主」李亨兩主」林碩金兩主」姜玉連兩主」全自孫兩主」金內ㄱ同兩主」必非保体」千德保体」朴元兩主」林無作只兩主」林承良兩主」林每邑孫兩主」林孫兩主」黃延孫兩主」

4.

金萬碩兩主」裴守貞兩主」金世長兩主」崔碩兩主」金今孫兩主」林成武兩主」朴長孫兩主」金有永兩主」金宰兩主」朴命孫兩主」

畫員 省衍」惠峻」證明 釋空」持殿 惠峻」法堂持寺 雪旭」禪宗維那 祖澄」

5.

供養主」信星比丘」戒幢比丘」化主」淳默比丘」

6.

嘉靖三十九年庚申十二月初一日蓮臺寺 藥師三世如來改金重修記錄」

○ 발원문 發願文(1715년)

聞夫發願者造成者現增福壽當生淨刹是以有善君子同願發心各出珍財重修補」

滿月教主藥師如來與左右補處日光月光兩大菩薩尊像安于清涼山蓮臺寺共結良」

緣同願發心各各施主與緣化各各比丘大化士等同往西方極樂國土見佛接引親見彌陀佛即」

蒙授記同證菩提之願者茲記后祿」

1.

施主秩」

黃金大施主李氏良春」黃金供養兼大施主金士奉兩主」黃金大施主比丘竺灵」

烏金大施主金石松兩主」黃金施主嘉善大夫鄭善兩主」黃金大施主崔己哲兩主」

供養大施主全貴奉兩主」黃金施主鄭戒玄兩主」布施大施主鄭氏禮梅兩主」布施供養

大施主朴一先兩主」供養施主盧應積兩主」供養施主尹勝積兩主」供養施主崔仁發兩主」

供養施主趙男兩主」黃金施主李億孫兩主」黃金施主戒琳灵駕」黃燭施主趙礼山

兩主」 施主朴伯萬兩主」 施主崔己先兩主」 施主羅一先兩主」 施主李億萬兩主」 施主比丘禪鑒」 施主比丘德祐」 施主比丘密順」 施主權宗京兩主」 施主比丘處默」 施主比丘宝明」 施主比丘緇侃」 施主比丘就晉」 施主金戒弘兩主」

2.

施主文悟奉兩主」 施主劉氏心禮兩主」 施主朴業龍兩主」 施主比丘彩日」 施主崔一龍兩主」 施主金氏召史兩主」 施主金奉 兩主」 施主鄭戒先兩主」 施主金氏三禮」 緣化秩」 證師 比丘圓澤」 持殿 比丘法察」 善手良工」 比丘慧珠」 比丘圓策」 比丘三海」 比丘淨行」 別座」 比丘密瓊」 供養主」 比丘覺明」 比丘禪月」 負木」 朴一先」 居士得行」 大化士」 剋念」

3.

山中大德」 比丘片雲」 和尚」 比丘密謙」 三剛」 比丘大欽」 山中老德比丘清學」 比丘應梅」 比丘竺海」 比丘敏惠」 比丘德祐」 比丘圓鑑」 比丘法勝」 比丘呂閑」

4.

康熙五十四年乙未六月日清涼山蓮臺寺」  
藥師如來與左右補處塗金重修記」

#### ○ 대좌목록서(1734년)

雍正十二甲寅秋七月～龍席(?)造成記」

釘鐵施主姜龍男兩主」

山中老德 比丘竺靈」

持殿 廣訥」

三綱」 三寶 ○倫」

書記 日淵」

和尚 碩梅」

造工比丘 三印」

化主比丘 覺清」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与衆生」 皆共成佛道」

#### ○ 참고문헌

- 崔聖銀, 「13世紀 高麗 木造阿彌陀佛像과 腹藏墨書銘」, 『韓國史學報』 30, 고려사학회, 2008
- 林南壽, 「清涼寺 傳藥師如來坐像考」, 『民族文化論叢』 43, 嶺南大學校, 2009

□

#### ○ 내용 및 특징

건칠약사여래좌상 복장유물 가운데 인쇄자료 중, 지정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번	명칭	수량	연대	규격 (세로×가로cm)	특징
1	불량답시주목록	1책	1698	37.5×32.5	寫本. 蓮臺寺시주기
2	불량답시주목록	1책	1713	36.5×30.5	寫本. 蓮臺寺시주기
3	별칭	1책	조선 후기	30.8×21	寫本
4	총림사찰사명일영혼규	1책	조선 후기	38×33	寫本
5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	1매	16세기	66×54.5	목판본,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6	금강계만다라	166매	조선 후기	37×38	목판본. 날장임
7	범자다라니	3매	조선 후기	51×57	목판본. 날장임
8	주사범자다라니	21매	조선 후기	42×48	주색으로 필사한 다라니. 날장

### 1.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

蓮臺寺 編.

寫本. [肅宗 24(1698)] 1冊(5張). 37.5×32.5cm.

年紀：康熙三十七年(1698)年戊寅三月初七日始入.

첫머리에 ‘연대사(蓮臺寺)’라 표기하고 행을 바꾸어 집강(執綱) 의철(義哲), 지전(持殿) 해선(海善), 삼강(三綱) 극념(克念), 산중노덕(山中老德) 종흡(宗洽), 삼익(三益) 등 10인의 명단이 있다. 이어서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이라 쓰고 시주자 직함, 이름순으로 필사하였으며 작성 시기는 1698년(숙종 24)으로 추정된다.

### 2. 불량답시주목록(佛糧畚施主目錄)

蓮臺寺 編.

寫本. [肅宗 39(1713)]. 1冊(8張). 36.5×30.5cm.

年紀：康熙伍拾貳年(1713)年癸巳七月日蓮臺寺佛糧畚施主唱魂冊重錄一件以置於山中滿月庵.

첫머리에 ‘연대사(蓮臺寺)’라 표기하고 행을 바꾸어 집강(執綱) 여심(呂諶), 지전(持殿) 취책(就策), 삼강(三綱) 인봉(印鵬), 산중노덕(山中老德) 편운(片雲) 등 7인의 명단이 있다. 이어서 불량답시주자(佛糧畚施主者) 명단을 시주자 직함, 이름순으로 필사하였으며 작성 시기는 1713년(숙종 39)으로 추정된다.

### 3. 총림사찰사명일영혼규(叢林寺刹四名日迎魂規)

寫本. 1冊(3張), 38×33cm.

과지옥진언(破地獄眞言), 멸악취진언(滅惡趣眞言), 보소청진언(普召請眞言) 등의 진언이 수록되어 있다. 앞 뒤 표지가 없고 장정이 해제되어 날장 형태이며 얼룩이 있다.

#### 4. 별칭(別請)

寫本. [年紀未詳], 1張. 30.8×21cm. 낱장  
원문(願文) 형식임.

#### 5.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三十七尊種字曼陀羅八葉一輪)

木板本. [고려 후기]

1매 : 圖. 13.3×16.5cm. 전체크기 66×54.5cm.

刊記 : 己亥(1239)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목판본 다라니로 상단 첫단은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三十七尊種字曼陀羅八葉一輪) 4판을 연결하여 인쇄하였는데 1판은 결락되었다. 둘째 단에는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이라 쓰고, 왼쪽에 ‘己亥(1239)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라는 시주자명이 있는 다라니를 2단으로 하여 4판을 연결하여 인쇄하였고 동심원이 아닌, 안쪽부터 바깥으로 7겹을 풀어 나오면서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은 시중(侍中) 최종준(崔宗峻)이 시주하여 관각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 고려 문종 때 설치된 중서문하성의 최고 관직(종1품)이며, 유일한 종1품 실직으로서 명실상부한 수상직이었다. 최종준(崔宗峻)은 고종 년간에 시중을 지냈으므로 여기서의 기해년은 1239년(고종 26)으로 추정된다.

#### 6. 금강계만다라(金剛界曼陀羅)

木版本.

166매. 사주단변 34×37.5cm.

만다라를 둘러싼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왼쪽에 ‘일체여래전신사리보협진언(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오른쪽에 ‘팔엽심연자삼십칠존만다라(八葉心蓮子三十七尊曼陀羅)’라 적고 네 모서리의 사방을 범자로 표시하였다.

이 만다라와 관련된 아무런 기록이 없어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복장 시 대량으로 인출하여 납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7. 범자다라니(梵字陀羅尼)

목판본. 3매, 四周單邊. 匡廓 45.6×23.1cm. 전체 크기 50×57cm.

다라니를 둘러싼 광곽은 45.6×23.1cm이며, 상단에 연화대좌가 있고 하단에는 3행의 범자가 있다. 아미타삼존 다라니로 추정된다.

#### 8. 주사범자다라니(朱寫梵字陀羅尼)

寫本. 21매, 42×48cm.

주색으로 필사한 5행의 범자 다라니이다.

## 《복장유물》

### <표1> 복장유물 목록

구분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발원문	1	結願文	종이	1	1560년	65.6×41.8	*嘉靖三十九年庚申十二月初一日蓮臺寺 藥師三世如來改金重修記錄.
	2	千人同發願文	종이	1	1560년	66.0×41.5	*嘉靖三十九年庚申仲冬日目.
	3	發願文	종이	1	1713년	36.5×30.5	*康熙五十四年乙未六月日清涼山蓮臺寺 藥師如來與左右補處塗金重修記.
	4	願文	종이	1	조선시대	27.3×28.4	*稽首歸命十方三寶慈尊特……
복장유물	5	喉鈴筒	종이	1	조선시대	높이 23.3 폭 6.8	*내부에 오보병을 납입함. 오보병 납입물목은 <표2>참조. *보병의 크기는 높이 18.5cm, 폭 2.5cm임.
	6	西方寶瓶	종이	1	조선시대	21.0×31.0	*표면에 西方 封, 藿香 小黃 無를 묵서함. 중수시 납입한 오보병 중 서방으로 추정됨. *내용물은 없음.
	7	南方寶瓶	종이	1	조선시대	21.0×31.0	*표면에 南方 封이라고 묵서함. 중수시 납입한 오보병중 남방으로 추정됨. *내용물은 없음.
	8	黃綃幅子	비단	1	조선시대	37.5×98.0	*南, 東, 言, 貴非保休兩主라는 묵서가 있음.
	9	諸寶香	종이 나무 금속	1몽치 (일괄)	조선시대	23.0×32.5	*표면에 諸寶香 封이라고 묵서함. * 금속제 후령통, 향목편 및 五方鏡 중 三角, 半月鏡 그리고 메달형태의 柄鏡을 납입함.
	10	삼베	삼베	1	조선시대	35.0×68.0	* 天德, …氏保休라는 墨書가 있음.
	11	청색직물편	비단	2	조선시대	①31.5×46.5 ②11.5×13.0	
	12	백색직물편	면	1	조선시대	37.0×93.0	
복장전적	13	封緘紙片	종이	2	조선시대	①23×38.6 ②10×41	① ‘梵’字와 ‘封’字를 주서로 씀. ② ‘封’字를 주서로 씀.
	14	불량답시주목록	〃	1책	1698	37.5×32.5	寫本. 蓮臺寺시주기
	15	불량답시주목록	〃	1책	1713	36.5×30.5	寫本. 蓮臺寺시주기
	16	삼십칠존종자만다라팔엽일륜	〃	1매	16세기	66×54.5	목판본, 己亥十月日侍中崔宗峻印施.
	17	금강계만다라	〃	166매	조선 후기	37×38	목판본. 날장
	18	범자다라니	〃	3매	조선 후기	51×57	목판본. 날장
	19	주사범자다라니	〃	21매	조선 후기	42×48	주색으로 필사한 다라니. 날장
계	19건 208점						

<표2> 오보병 내 납입물목

	物目	동	남	서	북	중앙	비고
오보병	五輪	靑綃暗輪		白綃鏤輪	黑綃哈輪	黃綃 坎輪	각 방위에 따른 범자오류를 묵서
	五穀	大麥		稻	靑菴頭	麻子	
	五寶		珍珠		琉璃(?)		
	五藥		甘草	桂皮	阿利		
	五香		丁香	藿香	沈香		
	五黃	大黃	雄黃	小黃	紫黃	牛黃	
	五芥	蘿菁	紫芥子	白芥子	蔓靑 黑芥子	黃芥子	
	五色彩幡						
	五色線						
	五時花	花	花	花	花	花	
	五菩提樹葉		楸葉	夜合樹葉		聖樓葉	
	五吉祥草						
	五傘蓋	靑蓋	紅蓋	白蓋	黑蓋	黃蓋	비단
	五杵	靑帛杵	紅帛杵	白帛杵	黑帛杵		각 방위 색 비단에 '杵'字 묵서

## 【붙임 1】 지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이견

### 청량사 건칠불좌상 보물지정에 대한 재검토

지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물로 지정한 청량사 건칠불좌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분석해본 결과 이 불상은 고려시대 불상으로 볼 수 없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 재검토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제점>

첫째, 양식상 고려시대에는 석굴암 불상과 똑같은 양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예배대상일 경우 옛 상을 모작한 예가 현재까지 한 예도 없으며, 그에 가까운 상을 제작한다고 해도 상당히 다른 양식이 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광주 칠불 등). 특히 삼국시대, 통일신라(上·下기), 고려 전후기, 조선 전후기 등 시대양식은 반드시 존재하고 있으며, 그 틀을 벗어난 예는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둘째, 외형 기법 문제입니다. 대의의 옷주름 각도가 너무 날카로운 점, 손과 구슬 등이 어색한 점 등은 옛 불상기법에서 볼 수 없는 점이고, 육계와 나발 형태, 앞뒷면 가령 앞면의 가슴과 가슴 옷주름, 다리와 다리의 옷주름, 뒷면의 대의자락 접힘이나 기법 등이 석굴암 본존과 너무 일치해서 이미테이션적인 기법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셋째, 내부기법과 손상 상태입니다. 내부를 형성하고 있는 천과 이틀 도포한 색도 거의 고태를 찾아볼 수 없으며, 근래 작품에서 예스럽게 꾸밀려고 한 예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단 내부를 직접보지 않고 사진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확정적으로 결론은 내리지 못하겠으나 우선 이런 몇 가지 점만을 분석해본 결과 급하게 지정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재검토를 요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문화재청의 선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2년 3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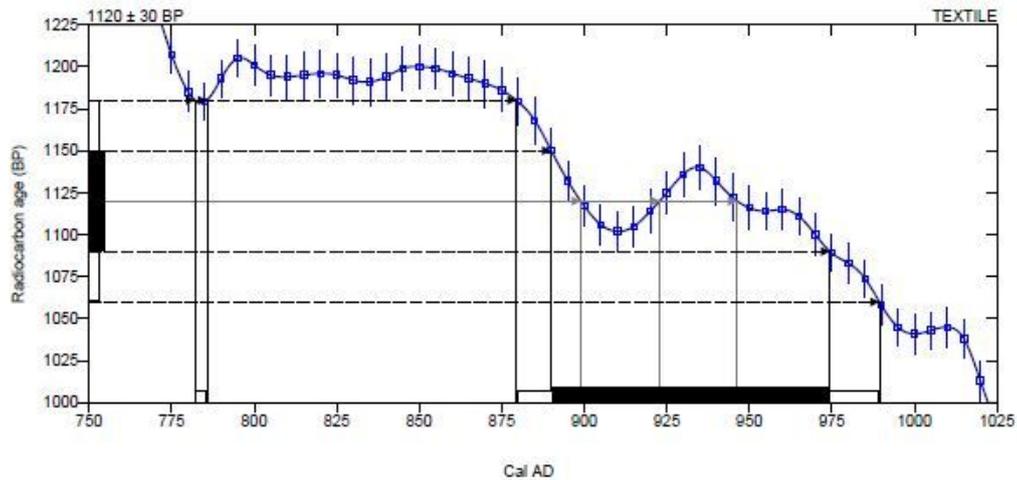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전 문화재위원) 문명대

## 【붙임 2】 방사선탄소연대측정 결과

### CALIBRATION OF RADIOCARBON AGE TO CALENDAR YEARS

(Variables: C13/C12 = -26.3 o/oo : lab. mult = 1)

Laboratory number	Beta-415823
Conventional radiocarbon age	1120 ± 30 BP
Calibrated Result (95% Probability)	Cal AD 780 to 785 (Cal BP 1170 to 1165) Cal AD 880 to 990 (Cal BP 1070 to 960)
Intercept of radiocarbon age with calibration curve	Cal AD 900 (Cal BP 1050) Cal AD 925 (Cal BP 1025) Cal AD 945 (Cal BP 1005)
Calibrated Result (68% Probability)	Cal AD 890 to 975 (Cal BP 1060 to 975)



Database used  
INTCAL13

#### References

Mathematics used for calibration scenario

A Simplified Approach to Calibrating C14 Dates, Talma, A. S., Vogel, J. C., 1993, Radiocarbon 35(2):317-322

References to INTCAL13 database

Reimer PJ et al. IntCal13 and Marine13 radiocarbon age calibration curves 0–50,000 years cal BP. Radiocarbon 55(4):1869–1887., 2013.

### Beta Analytic Radiocarbon Dating Laboratory

4985 S.W. 74th Court, Miami, Florida 33155 • Tel: (305)667-5167 • Fax: (305)663-0964 • Email: beta@radiocarbon.com

Page 3 of 3

## 2.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七 迦理迦尊者)]

### 가. 검토사항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부산시장으로부터 ‘고려 십육나한도’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신청(’13.8.2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4.1.27)를 거쳐 2014년도 제3차 분과위원회(’14.4.10) 검토사항으로 부의하였으나 ‘사용안료 검토 및 국립박물관 소장 고려나한도 비교조사 후 지정 검토’사유로 보류됨
- 이에, 비파괴 성분분석(’14.6.30 / 붙임 1참조) 및 국립중앙박물관 보관 ‘고려 십육나한도’에 대한 비교조사(’15.3.2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七 迦理迦尊者)]
- 소유자(관리자): 현\*\*
- 소재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 수 량: 1폭
- 규격(cm): 화폭 세로 60.5×가로41.6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6년(고려 고종 23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본 나한도는 현존하는 동 시기 조성의 다른 예들과 그림 솜씨를 견주어 보아

솜씨가 약간 뒤떨어짐이 파악 된다. 그러나 화면구성상의 특징과 묵서되어 있는 존자명, 남아 있는 화기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을미년-병신년(1235-1236년) 간에 일괄 조성된 1236년 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나한도는 비록 조성연대 및 솜씨에 대해 다소의 의견 차이가 있고 바탕천의 박락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현존 예가 많지 않은 고려시대 16나한도로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6나한도(제15 阿代多尊者)와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명칭은 16羅漢圖(第7 迦理迦尊者)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하나인 제7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고요하게 의자에 앉은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의 모습을 채색을 최대한 배제한 수묵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다. 이는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확연히 구분되는 16나한도의 도상적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인데, 필선과 색채, 표현방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畵記 내용과 양식적 특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 丙申年은 1236년의 丙申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棟梁 金義仁 등 무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 위기의 상황으로, 국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第15 阿代(氏)多尊者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따라서 국내·외에 현전하는 고려 나한도의 수가 극히 드물고 고려 불화가 대부분 14세기 대에 제작된 것인데 반해, 이 나한도는 13세기 전반인 1236년에 제작된 것이고 발원내용, 주관자 등을 기록하고 있어 고려 불화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비록 수리 과정에서 고쳐 그린 흔적이 다소 있으나 원형을 크게 왜곡하거나 지정 가치를 크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지정명칭은 “고려 십육나한도”로 하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제15 아대다존자와 더불어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

이 나한도는 십육나한도 중의 하나인 第七迦理迦尊者를 그린 것으로 1236년(고종23)에 武官인 隊正 金義仁의 주관 하에 제작되었다. 화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온 국토가 유린당하던 시기에 나라의 태평과 왕의 성수만

세를 기원하며 조성되었는데, 기존에 알려진 고려시대 나한도와 전체적인 표현양식 및 화기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고려 나한도는 모두 16점이다. 이중 14점은 오백나한도이며, 16나한도로 추정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제15아대다존자도와 이 작품 뿐이다. 이 작품과 아대다존자도가 함께 조성되었는지, 또 이 2점의 16나한도와 오백나한도가 한 세트로 제작되었는가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일본 치온인 소장 오백나한도에 오백나한도와 16나한이 함께 그려져 있는 점. 화기의 형식이 거의 유사한 점 등을 보면 고려시대에 오백나한과 16나한이 한 세트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나한도는 현재 화면에 박락이 심하고 보수과정에서 일부 보견과 보채가 이루어졌으며 부분적으로 가필이 됨으로써 고려불화 특유의 탄력있는 필선 등은 많이 손상되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신앙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 현상

비단바탕에 수묵담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迦理迦尊者和 侍者를 표현한 족자형태의 나한도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열화에 의한 바탕천의 박락과 함께 가필 흔적이 부분적으로 엿보임.

### ○ 내용 및 특징

팔걸이의자에 오른쪽을 향하여 앉아 있는 左顔七分面の 나한상은 석가모니불의 일곱 번째 제자인 迦理迦尊者로, 둥근 머리광배를 갖추었으며 두 손은 가슴 앞에서 소맷자락 안에 모으고 두 발은 나란히 足臺 위에 올려놓았다.

구부정한 어깨에 고개를 약간 숙여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는 얼굴은 일정한 굽기의 선(鐵線)을 사용하여 각지지 않고 둥글게 나타낸 원만형으로, 이목구비의 표

현이 마치 덕망 높고 자비심 충만한 노비구의 모습을 보는 듯 실감나다. 얼굴 크기와 알맞게 그려진 귀에는 둥근 고리 모양의 귀걸이를 착용하였으며, 목에는三道 표현이 뚜렷하다.

화면 전반에 걸쳐 베어나는 붉은 갈색 톤과 붉은 기운이 감도는 색채로 안온한 느낌이며, 대의 깃과 이음새의 담묵처리와도 어우러져 격조가 있어 보인다. 존상과 의자, 배경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채용된 거의 동일한 색조로 말미암아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화면에 의자 등받이를 붉은색으로 처리하여 활기가 느껴진다.

나한이 앉아 있는 의자 밖 오른쪽에 합장한 채 시립하고 있는 시자는 얼굴은 존자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몸은 존자상과 같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加筆을 하여서인지 얼굴과 이목구비의 표현이 다소 어색하고 초점 없는 무심한 시선처리로 자애로우면서도 긴장감 있는 존자상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볼 수 있다.

특히 1235년 작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天聖尊者圖’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1236년 작 ‘제170 慧軍高尊者圖’, 1235-1236년 작 추정 ‘제15 阿代多尊者圖’ 등과 비교해 보아 평면의 화면에 먹의 농담으로 입체감을 살려내고 있으며 머리와 머리광배, 족대와 신발, 대의 깃과 이음새 등에 바림기법을 구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하고는 있다. 그러나 나한존상과 시자의 인물표현 및 의자 묘사에 있어 생동감이 약간 뒤떨어짐은 물론 표현력에서 많은 차이점이 보이는 등 어색함이 발견된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 가장자리 쪽에 ‘第七 迦理迦尊者’라는 존자명이 있어 16나한도 중의 제7존자도임이 밝혀진 본 나한도는, 일부가 잘려나가 완전한 판독은 어려우나 하단 중앙부에 화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畫記]

國土□□  
 聖壽□□  
 太子□□  
 令壽□□  
 之願  
 下□□□  
 景□□□  
 丙申□□  
 棟梁□□  
 金□□

이와 같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화기의 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조성연대가

을미년-병신년(1235-1236년)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제92 守大藏尊者, 제125 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427 願圓滿尊者) 및 제15 阿代多尊者,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제23 天聖尊者圖 등과 연관 지어 볼 때, 본 나한도 역시 마지막 부분의 ‘丙申□□’ ‘棟梁□□ 金□□’ 의 경우 ‘丙申七月’ ‘棟梁隊正 金義仁’ 으로 판독해 볼 수 있겠다.



제7 가리가존자 전경



제명



화기-적외선



얼굴



하단부분



동자승부분

## □

### ○ 조사내용

현재 고려시대에 단독의 폭으로 조성된 나한도는 16폭 정도 알려져 있고, 그 중에 16나한도는 2폭이다. 이들 작품은 乙未年에서 丙申年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그림의 양식적 특징과 화기의 내용 등으로 보아 1235~1236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불화는 ‘적병의 속멸(隣兵速滅)’, ‘국토의 태평(國土太平)’, ‘왕실의 수명장수를 발원하였으며, 불화제작의 주도층은 都兵馬錄事, 將軍, 洪茂下隊, 校尉, 隊正 등의 관직을 지닌 무신계층이며 이외 재가신도들도 일부 참가하였다. 주관자인 棟梁은 하급 군관인 隊正의 직책을 가진 金義仁으로 확인된다. 대정은 고려 때 무관 벼슬의 하나로 2군 6위에 각각 40인을 두었고 종9품에 해당하는 최하급 군관이다. 따라서 이들 나한도들은 무신정권 아래 무신들에 의해 불사가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시대에는 무량 공덕사상과 관련하여 스님들에게 음식공양을 올리는 飯僧의식과 더불어 佛弟子에게 齋를 올리는 羅漢齋가 크게 성행하였다. 특히 나한신앙에는 외적의 적멸이나 기우 등 나라의 큰 불행이 닥쳤을 때 神僧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데, 이 불화가 제작될 무렵은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난의 시기로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잘 부합한다.

이 나한도의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두른 방형의 畫題欄을 마련하고 그 안에 묵서로 “第七 迦理迦尊者”라고 세로로 썼고, 화제란 바로 옆에도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墨書하였는데, 이는 고려 나한도에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먹 선과 朱線으로 이루어진 방형의 화기란을 두어 발원내용, 제작시기, 제작의 주관자 등을 기록하였으나 하단 부분은 잘려나갔다. 비록 화기의 하단부분이 잘려 나갔지만, 현존하는 나한도 화기와 비교검토를 통해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丙申年(1236년)에 隊正 金義仁의 주관으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나한도는 의좌에 앉은 의좌상으로 암석과 수목 등 자연 산수를 배경으로 하는 오백나한도 도상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현재화기	추정화기
第七迦理迦尊者」	第七迦理迦尊者
國土□□」	國土大平
聖壽□□」	聖壽天長
太子□□」	太子千載
令壽□□」	令壽萬年
之願□」	之願□」
下□□」	下□□」
景□□」	景□□」
丙申□」	丙申□」
棟樑□□	棟樑隊正
金□□」	金義仁」

이 나한도는 존자 중심의 구도와 수묵위주의 채색을 보여준다. 주인공인 존자는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의좌에 앉은 모습인데, 화면에 압도적인 크기로 배치하여 주인공을 크게 중시하였다. 존자는 둥근 두광을 갖추고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각진 의좌에 앉았다. 가사 장삼을 걸쳤으며 오른손으로 가슴부근에서 가사자락을 움켜쥐었다. 측면으로 놓인 두 발은 방형의 足座臺 위에 가지런히 올려 두었고, 은은하게 먹 바림을 한 뾰족한 코의 비단신을 신었다. 의좌의 우측 편에는 존자를 향해 고개를 돌려 합장한 청년의 侍者를 묘사하였는데, 시자는 존자에 비해 작고 부차적인 모습으로 배치하여 尊格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시자는 존자보다 야위고 날렵한 청년의 모습이다. 의자는 자를 대고 그은 듯 딱딱하게 각 져 있으나, 등받이는 둥글게 처리하고 붉은색 비단으로 드리워 부드러움을 부가하였다. 팔걸이와 등받이 끝에는 연화머리초처럼 곱팽이 위에 연꽃을 올려놓은 형태이다.

존자는 좌안칠분면의 전신상이며, 머리는 대체로 편평하나 정수리가 약간 솟아 있고 울퉁불퉁한 뒤통수는 실감나게 표현하였다. 삭발한 머리는 옅은 먹으로 바림 질하여 파르스름한 수행승의 짧은 머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윤곽이 분명한 귀는 상·하각의 연골에 음영을 넣었고, 귓볼에는 태환식 귀고리를 착용하였다. 이 목구비는 호모범상형의 異僧의 모습인데, 호방하게 붓질한 눈썹, 푹 붙겨진 부리 부리한 눈매, 높고 우뚝한 매부리형태의 콧날, 붉게 칠한 작고 도톰한 입술, 턱선을 2~3중으로 표현하여 異國僧의 중후함을 드러내었다.

필선에서 얼굴 등 肉身의 윤곽선과 주름의 세부는 가는 선을 사용하였고, 옷 주름과 신체의 윤곽선은 이보다 굵은 선을 사용하여 억양의 변화를 주었다. 가사의

옷깃, 광배의 외연, 의자, 족좌 등에는 잔잔한 먹 바림을 하여 잔잔한 입체감을 주었고, 의자의 등걸이와 입술 등 극히 일부분에는 붉은 색을 사용하여 강조하였다. 이 나한도에서 보이는 구도, 인물표현의 기법, 필선, 색채 등의 양식적 특징은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그려진 나한도들과 유사함을 보인다.

#### ○ 문헌자료

柳麻理, 「高麗時代 五百羅漢圖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黃壽永 編), 民族社, 1987

정우택, 「나투신 隱者의 모습 - 나한도」, 『구도와 깨달음의 聖者 나한』, 국립춘천박물관, 2003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고려시대 오백나한도 및 16나한도 현황

no	작품명	제작 시기	크기(cm) 세로×가로	재질	소장처	화기	비고
1	第23 天聖尊者	1235년	59.7×41.5	견본담 채	동경국립박물관	國土大□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有 輝□□ 正羅□□ 乙 未十(月日) 棟樑 金 義	오백
2	第31 王相尊者	1235~6 년경		견본담 채	한국 개인		"
3	第92 守大藏尊者	1235년	58.0×41.0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 聖 令壽 之願 司宰 敝 乙未 棟樑 金	"
4	第112 掌法盖尊者	1235~6 년경	54.9×34.7	견본담 채	일본 개인		"
5	第125 展寶藏尊者	1235년	55.2×38.8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聖 太子 令壽 之願 將軍 垡下 高 王(土)乙未 棟 金	"
6	第145 喜見尊者	1236년	59.5×42.0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 聖壽 太子 之 願 君卿 將全 丙申 棟樑 金義	"
7	第170 慧軍高尊者	1236년	54.0×37.2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太平) 聖壽□□ 太子□□ 令壽(万年) 之願 校尉 丙申 東 梁 金	"
8	第234 上音手尊者	1235년	55.1×38.1	견본담 채	일본 大和文華館	國土太平 聖壽天長 令壽萬年之願洪茂下 隊 李? 乙未七月日 棟樑隊(正) 金義仁	"
9	第282 寶手尊者	1236년	54.6×31.7	견본담 채	한국 개인	國土大 聖壽天(長) 令壽萬歲 之願 散員 徐彦妻 丙申四月(日) 棟樑隊 金義仁	"
10	第357 義通尊者	1235~6 년경	52.8×36.8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

no	작품명	제작 시기	크기(cm) 세로×가로	재질	소장처	화기	비고
11	第379 圓上周尊者	1235년	59.0×41.3	견본담 채	한국 개인	伏惟 隣兵速滅 中外 咸□ 聖壽等□ 令壽 齊北 已身延壽□ 室 內得椿齡 之願都兵 馬錄事李奕瞻 乙未 十月日棟梁隊正金義 仁	"
12	第413 傳聖住尊者	1235~6 년경	53.3×36.7	견본담 채	일본 개인		"
13	第427 願圓滿尊者	1236년	58.6×40.7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國土太□ 聖壽天(長) 太子千(午) 令壽萬 (年) 之願金□ 智□ 丙申七月日 棟梁隊 (正) 金義仁	"
14	第464 世供養尊者	1235~6 년경	52.8×40.8	견본담 채	미국 Cleveland Museum	國土(太平) 聖壽(天 長) 令壽 願□□ 鄭 □□ 棟梁□□ 金	"
15	第7 迦理迦尊者	1236년	60.5×41.6	견본담 채	한국 개인		십육
16	第15 阿代多尊者	13세기	53.8×39.7	견본담 채	국립중앙박물관		"

\*화기는 신광희, 「한국의 나한도 연구」, 동국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p.71 재인용.

□

이 작품은 16나한 중 제7존자인 迦理迦尊者를 그린 것이다. 의자에 앉아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비구와 그를 시봉하는 侍者를 淡彩로 표현하였는데, 1매로 이루어진 비단바탕은 상당부분 박락되었으며 일부 補絹과 補彩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화면의 좌측(향우측) 상단 가장자리에는 세로로 길게 旁題蘭을 만들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第七迦理迦尊者’라고 적었으며,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한 방제란 밖으로 다시 第七迦理迦尊者라고 적었는데 글자 역시 상당부분 박락되어 몇몇 글자만 확인이 가능하다. 존자는 백색 內衣 위에 장삼과 가사를 걸쳐입고 팔걸이가 달린 등 높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머리에는 원형의 두광을 지니고 있는데, 두광은 윤곽을 짙게 그리고 안쪽은 먹으로 바림질하여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존자의 오른쪽에는 젊은 시자가 의자 뒤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존자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데, 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묘사하여 주종 간

의 차이를 확실하게 표현하였다. 가슴 앞쪽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소매자락으로 감싸 덮었으며,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내밀어 옷자락을 잡고 있다. 드러난 두 발은 가지런히 족대 위에 올려놓았다.

존자는 장년의 비구 모습으로, 파르라니 깎은 머리, 짙은 눈썹에 형형히 빛나는 눈, 콧망울이 넓고 큼직한 코, 꼭 다문 작은 입술 등이 수행자로서의 나한의 성격을 잘 나타내었다. 귀는 어깨까지 길게 늘어졌으며 둥근 고리모양의 귀걸이를 착용했는데, 이러한 귀걸이 형태는 고려 오백나한도중 제92守大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第329 圓上周尊者, 제464 世供養尊者 등에서도 확인된다. 존자가 앉아있는 의자는 거의 존자의 머리부분까지 올라오는 높은 의자로서, 등받이 부분은 반원형으로 붉은 천으로 덮혀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연봉우리로 장식하였다. 의자 뒤에는 상체를 드러낸 시자가 존자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합장하고 서있다. 시자의 얼굴은 다소 가채되어 부자연스러운데, 이목구비는 존자와 유사하다. 이처럼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존자가 앉아있고 옆에 시자가 서있는 형식은 고려 16나한도의 하나로 추정되는 제15 아대다존자도(국립중앙박물관소장)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은 존자가 발을 올려놓은 足臺 또한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도상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채색은 열은 갈색으로 화면 전체를 칠한 후 먹으로 윤곽을 그린 후 두광이라던가 머리부분, 족대 등 일부분에 바림질을 가하여 濃淡을 표현하였으며, 의자 등받이부분 등에 부분적으로 붉은색을 사용하였다. 또한 장삼 가장자리에는 짙은 먹으로 칠하여 농담을 이용한 입체효과를 표현한 반면, 자칫 단조롭기 쉬운 화면에 변화를 주었다.

한편 화면 하단 중앙에는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윤곽선을 먹으로 그린 뒤 다시 붉은선을 둘렀다. 화기는 아랫부분이 잘려나가고 글자 또한 박락되었는데, 현재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國土□□」 聖壽□□」 太子□□」 令壽□□」 之願」 下□□□」 景□□□」 丙申□□」 棟梁□□」 金□□」

화기 중 상당 부분이 잘려나가 전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丙申이라는 간지와 이 불화를 제작하는데 棟梁, 즉 시주를 모아 불화를 제작하는 등 불사를 주관한 金씨의 이름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 나한도의 화기는 1236년과 1236년경으로 추정되는 고려 나한도의 화기와 매우 유사하여 그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 화기와 가리가존자도의 화기를 비교해보면, 이 불화는 병신년, 즉 1236년에 隊正 金義仁이 주관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화제작 불사를 주관한 김의인은 武官으로, 군인 25명으로 이루어진 최하위 군사조직인 隊의 책임자였는데,

그가 어떤 연유로 이러한 대불사를 계획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에서 화기 앞부분에 나라의 태평과 임금의 성수만세를 기원하거나 이웃의 병사가 물러가기를 바란다(제329존자도)는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몽고군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유린되던 때에 나한의 신통력으로 몽고군을 몰아내고 나라가 태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武人の 신분으로 오백나한도와 16나한도 제작이라는 대불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나한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제7가리가존자라고 쓰여진 묵서에 의해 볼 때 16나한 가운데 7번째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16나한은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미륵불이 나타나기까지涅槃에 들지 않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불법을 수호하도록 부처님께 위임받은 제자들로, 三界(과거·현재·미래)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三藏(경·율·논)에 통달하였으며, 특히 外典에 능하여 外道를 항복받고, 신통력으로써 자신들의 수명을 연장하였다고 한다. 16나한에 대한 신앙은 중국 당나라 때 玄奘이 654년에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를 번역한 이후 크게 성행하였다. 『法住記』에 의하면 16나한 중 7번째 존자인 가리가존자(迦理迦, kalika)는 기상나한(騎象羅漢)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1,000명의 아라한과 함께 僧伽茶洲에 머무르며 불법을 행했으며 正法을 守護하고 중생을 이롭게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三國遺事》 駕洛國記에 수로왕이 도움을 정한 뒤 “산천이 빼어나서 가히 16나한이 살 만한 곳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미 오래전부터 16나한 신앙이 알려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한에 대한 신앙이 성행한 것은 고려시대인데, 923년(태조 6) 태조가 梁나라에 보냈던 사신 尹質이 오백나한상을 가지고 귀국하자 해주 崇山寺에 봉안하게 하였으며, 왕실에서는 神光寺, 神穴寺, 外帝釋院, 王輪寺, 普濟寺, 神護寺 등에서 비오기를 기원하거나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國家設行의 羅漢齋를 자주 베풀기도 했다. 따라서 이 16나한도를 비롯해 국내외에 전하는 고려 오백나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제작되었다.

【붙임1】 휴대용X-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한 사용안료의 비파괴 성분분석

## ‘고려16나한도’ 채색 안료의 성분분석 결과

2014. 6.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 1. 분석대상

### ○ '고려16나한도'(1236년 추정) 채색 안료

- 적색, 흑색, 백색, 갈색 등

## 2. 분석내용 및 방법

### ○ 분석내용

- 불화 채색 안료에 대한 주요 성분의 비파괴분석

### ○ 분석기기 및 조건

- 장 비 명 : 휴대용X-선형광분석기(Portable X-ray Fluorescence Analyzer, Delta Professional, Innov-X Systems Inc., America)
- 분석조건 : Soil Mode, 분석시간 30초, Rh Target, 40kV, 100 $\mu$ A, spot size 15mm

## 3. 분석결과

- 고려16나한도에 채색된 주요 색상별 안료의 비파괴 성분분석을 통해 사용안료를 아래와 같이 추정할 수 있음.

사용위치	색상(추정)	추정안료
글씨테두리, 대의 등	적색	주사(진사)
내의, 발목양말 등	백색	연백(연분)
배경(바탕) 등	황갈색	연백(연분), 탄산칼슘(합분 또는 호분 등)
광배, 얼굴 등	연갈색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눈동자, 글씨 등	흑색	흑석지(먹) 또는 카본블랙

- 배경(바탕) 채색층과 광배 등 전체적으로 연한 황갈색을 띠는 층위에 사용된 안료는 성분분석만으로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음.
- 성분조성을 통해 판단한 각 색상별 안료 종류는 다음과 같음.
  - 적색(赤色) 안료는 Hg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주사(朱砂 또는 진사辰

- 砂, Cinnabar, HgS)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백색(白色) 안료는 Pb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어 연백[鉛白, 또는 연분鉛粉, Lead white,  $2\text{PbCO}_3 \cdot \text{Pb}(\text{OH})_2$ ]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배경(바탕)층 등에서 Ca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탄산칼슘(Calcium Carbonate,  $\text{CaCO}_3$ , Calcite) 종류의 호분(胡粉) 또는 합분(蛤粉)이 일부 같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흑색(黑色) 안료는 주로 바탕층의 성분 이외에 별도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먹(墨)과 같은 흑석지(黑石脂, Graphite, C)나 카본블랙(Carbon Black)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녹색(綠色) 안료는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유물에서 녹색으로 판단되는 부위는 찾을 수가 없음. 다만, 일부 색상에서 Cu가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석록[石綠,  $2\text{CuO} \cdot \text{CO}_2 \cdot \text{H}_2\text{O}$ ] 또는 동록[銅綠,  $\text{Cu}(\text{C}_2\text{H}_3\text{O}_2)_2 \cdot 2\text{Cu}(\text{OH})_2$ ] 등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4. 고찰 및 종합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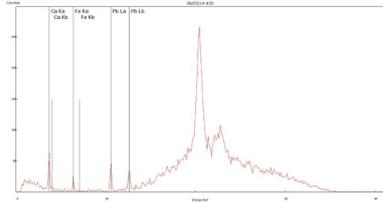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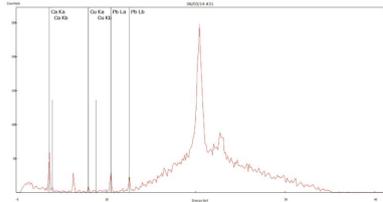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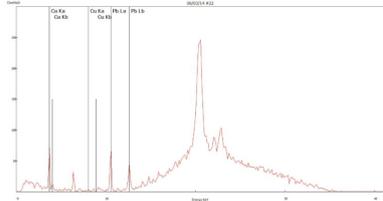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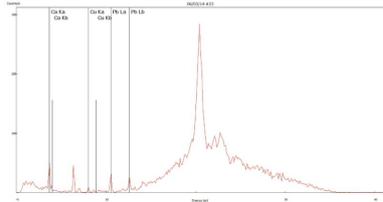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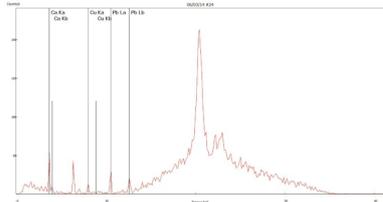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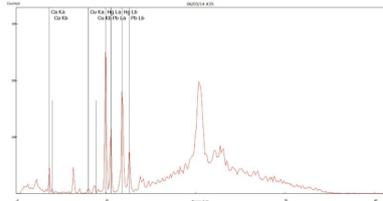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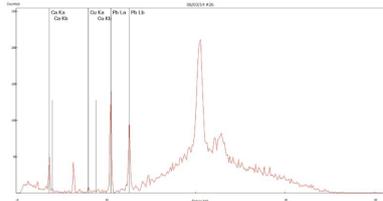
- 색상별 안료의 비파괴 성분분석을 통해 ‘고려16나한도’에 사용된 안료 원료물질을 분석한 결과, 적색이나 백색 등 주요 색상에 사용된 안료의 종류를 추정할 수 있었음.
- 일부를 제외하고 안료의 대부분이 변색되거나 탈락되어 명확한 색상의 구분과 사용안료의 추정이 어려웠으며, 보다 정확한 색상별 사용안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탈락된 시편의 단면분석 등 파괴분석이 수반되어야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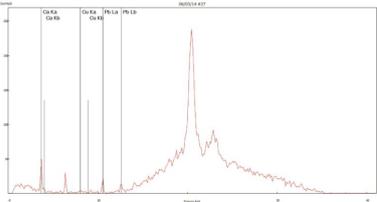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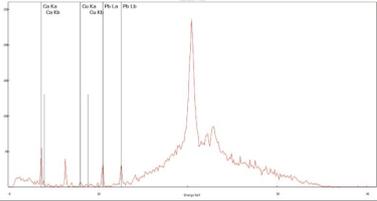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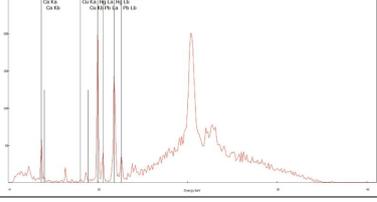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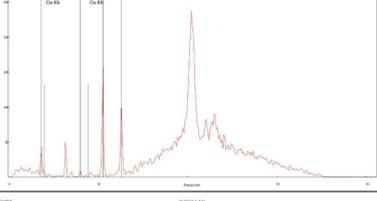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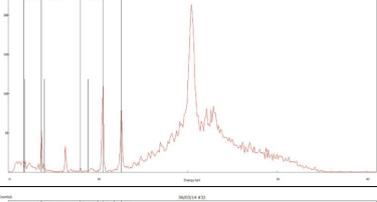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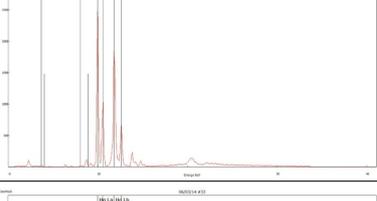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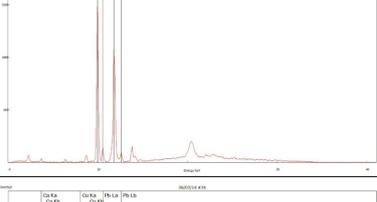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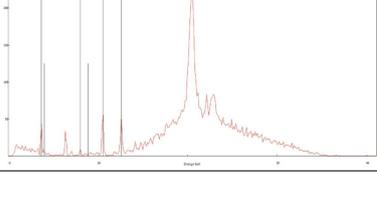
붙임 : ‘고려16나한도’ 채색 안료의 분석 결과데이터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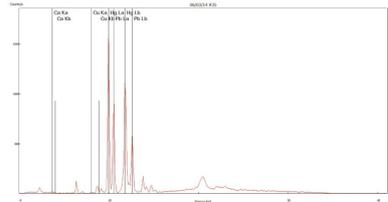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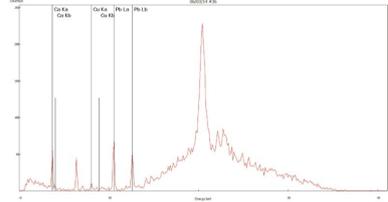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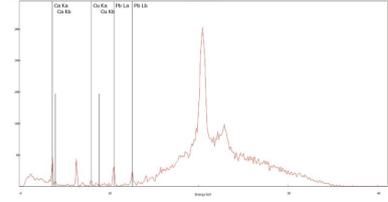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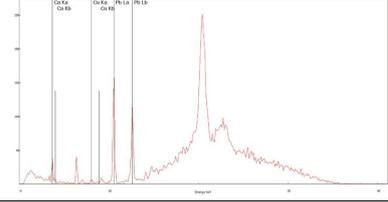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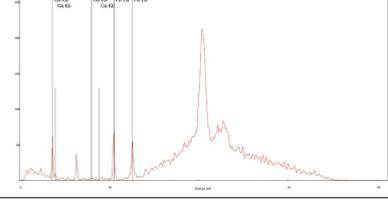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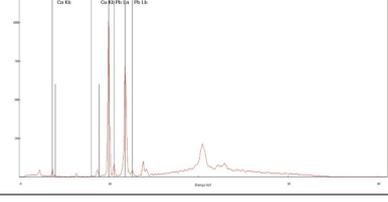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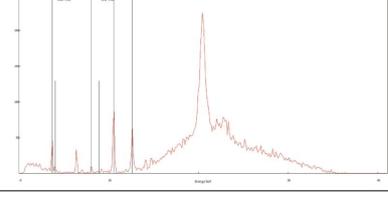


그림 1. '고려16나한도' 채색안료 P-XRF 분석위치도

표 1. '고려16나한도' 채색안료 비파괴 성분원소 결과 및 추정 안료

분석번호	명칭	분석위치 이미지	P-XRF 결과그래프	주요 검출원소	추정 안료명
p0	배경 (박락)			Pb, Ca, Fe	연백(연분), 탄산칼슘(합분 또는 호분 등)
p1	배경			Pb, Cu, Ca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탄산칼슘(합분 또는 호분 등)
p2	광배			Pb, Ca, Cu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p3	머리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석록 또는 동록
p4	눈동자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5	입술			Hg, Pb, Cu, Ca	주사(진사)
p6	상내의			Pb, Cu, Ca	연백(연분)

p7	대의			Pb, Ca, Cu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p8	대의 전답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9	의자 등받이 천			Hg, Pb, Cu, Ca	주사(진사)
p10	대의 안감			Pb, Cu, Ca	연백(연분)
p11	내의 (박락)			Pb, Cu, Ca, Si	연백(연분)
p12	의자 등받이 천자락			Hg, Pb, Cu, Ca	주사(진사)
p13	글씨 테두리			Hg, Pb	주사(진사)
p14	글씨			Pb, Ca, Cu,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15	천자락			Hg, Pb, Ca, Cu	주사(진사)
p16	의자 다리			Pb, Cu, Ca	연백(연분),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17	신발 상부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p18	발목 양말			Pb, Cu, Ca	연백(연분)
p19	동자 승머리			Pb, Ca, Cu	연백(연분), 석록 또는 동록
p20	화기 테두리			Hg, Ca, Cu	주사(진사)
p21	단상 테두리			Pb, Cu, Ca	흑석지(떡) 또는 카본블랙

### 3.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대다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十五 阿代多尊者)]

#### 가. 검토사항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대다존자)’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 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5.3.2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대다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十五 阿代多尊者)]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1폭
- 규격(cm): 53.8×39.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6년경
- 제작자: 혜간(惠間)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본 나한도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화기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 가운데 화기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판독이 가능한 자료(제92 守大藏尊者, 제125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

軍高尊者, 제427 願圓滿尊者) 및 부산 개인 소장 16나한도(제7 가리가존자)로 이루어 보아, 본 나한도 역시 乙未年-丙申年(1235-1236년)에 일괄 조성한 작품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16나한도로서 부산 개인 소장 16나한도(제7 가리가존자)와 함께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명칭은 16羅漢圖로 하고 괄호 속에 해당 존자명을 기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고려시대 나한신앙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현재 불화로 남아 있는 16나한도를 비롯하여 제7 가리가존자도와 이 작품이 유일할 정도로 그 유례가 드물다. 작품은 전반적으로 화면의 여백을 존중한 안정된 구도 속에 농묵의 변화를 통한 깊은 공간감과 입체감을 표현하였으며, 안정된 구도와 세밀하고 유려한 필선, 그리고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백색과 붉은색, 짙은 농묵 등의 묘한 색채대비를 통하여 격조 높은 그림을 완성하였다. 특히 고려 16나한도와 오백나한도를 통틀어 작자명이 밝혀진 유일한 예로서도 주목된다.

제작 이후 수 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화면의 꺾임과 박락, 꺾임, 그리고 후대의 수리 등 아픈 상흔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으나 현재 고려시대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더구나 국내에 잔존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부산의 개인 소장품인 “제7 가리가존자도”와 함께 일괄로 지정하되 가지번호를 주어 지정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이 나한도는 십육나한도 중 15번째인 阿伐多尊者(또는 阿氏多尊者)를 그린 것이다. 현재 화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존에 알려진 고려 오백나한도 및 16나한도와 전체적인 표현양식 및 화기 등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1235년(고종22)~1236년(고종23)에 武官인 隊正 金義仁의 주관 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나한도는 울이 굵은 비단바탕에 그렸는데 전반적으로 안료의 박락이 엿보이며 화면에 구김이 많고 부분적으로 화전이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필선이 수려하고 보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부산개인소장 第七迦理迦尊者와 이 작품 뿐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고려시대 16나한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명칭은 “고려 십육나한도(제15 아벌다존자)”로 함.

### 조사보고서

## □

### ○ 현상

비단바탕에 수묵담채로 표현한 나한도로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음. 화면 전반에 걸쳐 열화에 의한 안료의 박락이 엿보이는 하나 필선이 수려하고 보존상태 또한 양호한 편임.

### ○ 내용 및 특징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 ‘第十五 阿代多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는 나한도로서, 석가불의 16제자 중 제15존자인 阿氏多尊者의 誤記인 듯하다.

畫記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지는 않으나 화기의 판독이 어느 정도 가능하여 조성연대가 乙未年-丙申年(1235-1236년)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나한도(제92 守大藏尊者, 제125 辰寶藏尊者, 제145 喜見尊者, 제170 慧軍高尊者, 제427 願圓滿尊者)들과 비교해 보아 본 나한도 역시 동일시기에 조성되었으며, 조성에 관여한 자 또한 ‘棟梁隊正 金義仁’ 으로 추정된다.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큼직하게 그린 나한의 경우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하고 팔걸이의자에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비구의 모습으로 두 발은 足臺 위에 가지런히 표현되었으며, 두 손은 오른 어깨에 비껴 기댄 竹節形 주장자를 감싸 쥐고 있다. 허리를 구부린 자세를 하고 시선은 앞 쪽에 서 있는 시자를 향하여 서로 무엇인가 얘기를 나누는 듯하다.

나한이 착용한 法衣는 裙衣에 長衫을 두르고 있는 형식으로 채색은 안료의 박락과 퇴락으로 떨어져 명확하지 않으나, 먹선으로 나타난 의습선은 활달하고 유려하여 빼어난 솜씨가 돋보인다.

나한상에 비해 작게 그려진 侍者는 승려형 인물로 앞·뒤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앞쪽의 시자는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두 손으로 묶음 끈이 길게 늘어진 두루마리를 펼쳐들고 서서 눈은 아래를 향하고 입을 약간 벌리고 있어 무엇인가를 읽고 있는 듯하며, 뒤쪽의 시자는 꼳꼳하게 서서 나한을 바라보며 두 손으로 꼳송이가 아래쪽으로 늘어진 연꽃다발을 받들고 있다.

배경 역할을 하는 의자는 높은 등받이와 팔걸이가 마련되어 있는 의자로 등받이에는 草葉紋이 그려진 붉은색 바탕천이 둘러져 있으며, 팔걸이 끝부분에는 수식이 마련되어 있다.

발을 딛고 있는 足臺는 네 모서리에 수각형의 다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족대 뒤쪽 하단에 ‘惠間’ 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다.





고려십육나한도(제15 아대다존자)

□

○ 조사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오백나한도는 모두 6폭으로, 그 중에서 16나한도는 1폭이며 오백나한도는 6폭이다. 도상적으로 구분하면 대체로 16나한도는 의좌에 앉아 있고, 권속이 등장하는 반면, 오백나한도는 야외 암석과 수목을 배경 배경으로 하여 수행하거나 신통력을 부리는 장면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 나한도들은 고려시대 때 크게 성행했던 나한신앙에 대한 결과여서 고려시대 불화 연구는 물론 나한신앙 연구에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존자는 허리를 약간 구부려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의좌에 우안칠분면을 취하고 앉았으며, 두 발은 나란히 내려 방형의 족자대를 딛고 있다. 족자대는 짙은 濃墨으로 처리하여 등받이의 맑은 붉은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 존자의 머리 뒤로 형성된 둥근 광배는 먹 바림질 하여 존자의 얼굴을 돋보이게 함과 동시에 무한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 등받이에는 당초문이 시문된 붉은 천을 드리워 존자의 성스러운 尊格을 부각시켰고, 의자에도 먹선으로 단청문양처럼 문양초를 섬세하게 넣었는데, 이러한 표현방식은 부산 개인소장 제7가리가 존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요소이다. 존자는 대나무 주장자를 두 손으로 움켜잡고 老軀를 의지하였고, 허리를 약간 구부려 두루마리를 펼쳐 든 侍者를 내려 보

고 있는 모습이다. 하얗게 늘어진 눈썹과 약간 올려 뜬 새까만 눈동자가 묘한 대비를 이루며 마치 살아 있는 존자를 보는 듯 생기가 감돈다.

존자는 짧게 드러낸 백발과 흰 수염, 이마에 표현된 물결형태 주름살과 굴곡진 깡마른 윤곽을 통해 살집 없는 늙은 존자의 얼굴 표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백발과 흰수염은 호분을 사용하였다. 착의는 가사와 균의를 입었다. 가사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편단우견으로 걸쳤으며, 가사에는 크기가 일정치 않은 點文을 붓으로 쿡쿡 찍듯이 시문하였다. 존자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혀 두루마리를 펼쳐 든 시자를 향해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의좌의 우측에는 팔걸이 높이 정도밖에 안 되는 키가 작고 왜소한 侍者가 두 손으로 연꽃을 잡고 서 있다. 이처럼 존자의 주위에 시자들이 등장하는 도상은 미국의 Freer Gallery 소장 傳 梵隆筆 나한도와 劉松年筆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작가미상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등 남송대 나한도에서도 볼 수 있어 상호 영향관계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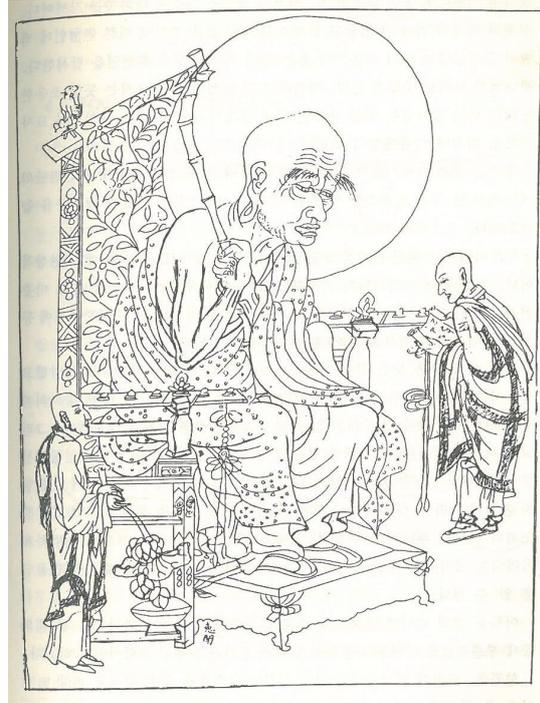
오른쪽의 의자와 죽좌대 사이에는 묵서로 “慧間(?)”이라는 묵서를 써 놓았는데, 이는 이 그림을 그린 작자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화면의 오른쪽 붉은 화제란의 존자명은 마멸되었고, 왼쪽 편에 후대에 먹 글씨로 다시 옮겨 쓴 것에는 “第十五 阿代多尊者”라고 뚜렷이 확인된다. 석가여래의 16제자를 기록한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에는 “제15 阿氏多尊者”라고 되어 있고, 조선 후기의 의식집인 『五百聖衆請文』에는 “제15 阿伐多尊者”로 되어 있는데, 글자의 획과 형태로 보서는 “伐”자를 “代”자로 잘못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한의 두광이 화면 상부의 끝단에 닿아 있어 화면 위 부분 중 일부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잘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작당시 화면은 지금보다 좀 더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풍이나 도상 등 전반적인 면에서 부산의 개인소장품인 “제7 가리가존자도”와 셋트로 구성된 16나한도 중 한 폭으로 생각되므로, 제작시기도 부산의 제7존자도와 여타의 오백나한도와 마찬가지로 1235~1236년경 나라의 태평과 왕실의 안녕을 발원하며 隊正 金義仁의 주관 하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15 아대다존자도



제15 아대다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고려시대 오백나한도 연구」에서 전재

### ○ 참고문헌

『高麗, 영원한 美』, 호암갤러리, 1993

『高麗時代의 佛畫』, 시공사, 1997

柳麻理, 「高麗時代 五百羅漢圖의 研究」, 『韓國佛教美術史論』, 民族社, 1987

신광희, 「高麗時代 羅漢圖의 특성」, 『美術史學研究』 275·276, 韓國美術史學會, 2012

### □

#### ○ 조사내용

이 작품은 제15존자인 아대다존자도로서, 노비구와 그를 시봉하는 侍子 2인을 함께 그렸다. 노나한은 왼쪽을 향해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인 채 두 다리를 足臺에 올려놓고 등 높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백발, 길고 흰 눈썹, 흰 수염,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 주름살에서 나이든 모습이 역력하다. 오른쪽 가슴 부근으로 두 손을 올려 비스듬히 죽절형 주장자를 감싸 쥐고, 눈을 약간 아래로 내려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죽절형 주장자에 몸을 의지하고 힘없이 앉아있는 노비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노비구의 얼굴 표정에는 날카로움과 기백이 살아있고 형형한 눈빛은 오랜 세월의 수행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 존자가 앉아있는 의자는 머리 위까지 올

라오는 등높은 의자로서, 등받이 부분은 반원형으로 붉은 바탕에 화려한 문양이 그려져 있으며 가장자리에는 연봉우리로 장식되었다. 의자의 오른쪽에는 중년의 비구가 긴 줄기의 흰 연꽃을 들고 서 있으며, 왼쪽에는 사미형의 젊은 비구가 경전을 펼쳐들고 노나한과 마주보며 다소곳이 서있다. 이처럼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존자가 앉아있고 옆에 시자가 서있는 형식은 고려 16나한도의 하나로 추정되는 第7 迦理迦尊者圖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두 작품은 존자가 발을 올려놓은 족대 또한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도상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또 여기에서 처럼 나한의 주위에 시자들이 서있는 도상은 미국 Freer Gallery 소장 傳 梵隆筆 나한도와 劉松年필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원소장), 작가미상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원소장) 등 남송대 나한도에서도 볼 수 있어, 중국 남송대 나한도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화면 왼쪽(向右) 상단에는 “第十五阿代多尊者”라고 수묵으로 기록되어 있다. 16나한 중 15번째 존자에 대해 『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에는 “阿氏多尊者是 권속1500아라한을 거느리고 鷲峰山에 거주한다”라고 하였으며, 십대제자, 십육나한, 오백나한의 차례와 존명을 명기한 조선 후기의 의식집 《五百聖衆請文》에는 16나한 중 15번째 존자를 阿伐多尊者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阿代多尊者是 阿氏多尊者 또는 阿伐多尊者的 오류로 생각되는데, 代와 伐의 글자체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오백성중청문》의 阿伐多尊者를 잘못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족대 뒤쪽 하단에는 惠間이라는 묵서명이 남아 있는데, 화승의 이름으로 추정된다.

## 4.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羅漢圖)

### 가. 검토사항

‘고려 오백나한도’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2013년 국립박물관 소장 중요문화재에 대한 국가문화재 지정추진을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8.23)을 실시하고, 대상선정을 위한 자문회의(10.22)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검토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정조사('15.3.27)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고려 오백나한도(高麗 五百羅漢圖)
- 소유자(관리자): 국유(국립중앙박물관)
-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 수 량: 6폭
- 규격(cm): 제92 수대장존자도 58.0×41.0  
제125 진보장존자도 55.2×38.8  
제145 희견존자도 59.5×42.0  
제170 혜군고존자도 54.0×37.2  
제357 의통존자도 52.8×36.8  
제427 원원만존자도 58.6×40.7
- 재 질: 견본담채
- 제작연대: 1235년-1236년(고려 고종 22년~23년)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오백나한도 6점은 부분적으로 마당천의 박락과 가채의

흔적이 있음은 물론 화기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어 완벽한 판독은 어렵다고 하겠으나, 화면구성상의 특징과 묵서되어 있는 존자명, 비교적 많은 양이 남아 있는 제427 願圓滿尊者圖 화기에 의거하여 乙未年-丙申年(1235-1236년) 간 ‘棟梁隊 正 金義仁’ 에 의해 일괄 조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비록 화기가 온전하지 못하고 보존상태 또한 다소 양호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현존 작례가 많지 않은 고려시대 오백나한도로서, 일괄하여 국가문화재로 지정·관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정명칭은 五百羅漢圖로 하고 각기 괄호 속에 해당 존자명을 기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

고려시대 나한도는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기에 걸쳐 유행하였으나 불화로 남은 오백나한도와 16나한도를 비롯하여 몇 폭에 지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 나한도는 모두 한 폭에 한 존자씩만을 그리되, 오백나한도는 야외의 암산으로 배경으로 하여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거나 신통력을 부리는 해학적인 모습으로 그려졌으며, 16나한도 중 하나인 第15 阿代多尊者는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큼직한 의자에 앉아 권속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 엄연히 구분된다.

크기는 대체로 세로 55~60cm 내외, 가로 35-40cm 내외의 絹本 위에 그려졌으며 입술이나 머리, 의자의 장식 직물, 가사, 지물 등 극히 일부에 제한적으로 채색을 사용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수묵을 기본으로 하여 그윽함에서 우러나는 우아함으로 화격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가사의 조와 광배 등에는 발묵법을 이용하여 무한한 공간감과 입체감 통해 존자의 수행 깊이를 더해 주는 효과를 주고 있으며, 수행자의 옷차림이지만 목깃이나 소매 등 가사장삼 사이로 새하얀 속옷을 드러내 맵시 있고 세련된 옷차림을 보여준다. 붓놀림은 활달하고, 구사된 선은 담백하고 간결하여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었다. 광배와 기물, 가사의 條와 문양 등에는 금니를 사용하여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등 고려불화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 암석의 표현에서 중앙부를 비워 照光효과를 주는 등 이른바 李郭派 화풍이 가미되어 있어 고려시대 산수화의 경향을 이해하는데도 중요한 자료이다.

모든 작품에서 화면의 좌측 또는 우측 상단에 붉은색 화제란을 마련하고 화면에 그려진 존자의 차례와 尊名을 명시하여 도상의 이해를 돕고 있는가 하면, 화면 하단 중앙에도 붉은색 화기란을 마련하여 제작시기, 발원자, 그리고 발원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고려시대 불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화기를 통해 이들 오백나한도는 乙未年과 그 다음해인 丙申年에 걸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화풍과 도상 등으로 미루어 1235년~1236년에 제작된 것으로

로 추정되며, 제작의 주관자는 隊正 金義仁으로 확인된다.

이들 작품들은 제작 이후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 화면의 꺾임과 박락, 꺾임, 그리고 후대의 수리 등 세월의 상흔이 곳곳에서 확인되지만, 현재 고려시대 13세기에 조성된 불화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고, 더구나 국내에 잔존하는 사례가 더욱 희귀하기 때문에 그 존재만으로도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괄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하되,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번호를 부여하여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립박물관 소장 고려 오백나한도 6점(第92 守大藏尊者, 第125 辰寶藏尊者, 第145 喜見尊者, 第170 慧軍高尊者, 第357 義通尊者, 第427 願圓滿尊者)는 을미년과 병신년의 두 해에 걸쳐 일괄적으로 제작되었다. 을미년, 즉 1235년 제작으로 추정되는 것은 제92수대장존자, 제125정보장존자 등 2점이고, 병신년, 즉 1236년 제작으로 생각되는 것은 제145희견존자, 제170혜군고존자, 제427원원만존자 등 3점이다. 제357의통존자도는 화기란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존자의 자세와 가사의 형식, 암반의 표현 등에서 123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第170上音手尊者圖(일본 大和文華館 소장)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이 역시 1235~123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면은 대개 세로 55~60cm 내외, 가로 35~40cm 내외의 비단바탕에 水墨淡彩로 그려졌으며, 일부 붉은색과 흰색을 칠했다. 존자들은 대부분 원형 두광을 갖춘 채 가사 장삼을 입고 측면을 향해 암석 위에 걸터앉아 舍利器(수대장존자), 淨瓶(정보장존자), 香爐(혜군고존자, 원원만존자), 如意(의통존자) 등을 들거나 앞에 놓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윤곽의 필선은 먹선으로 강하고 힘이 있으며, 얼굴 부분은 좀더 섬세한 필선을 사용하였다. 화기에 의하면 이 작품들은 모두 隊正 金義仁의 주관하에 일괄 조성되었다고는 하지만, 양식적 특징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러 명의 화사가 나누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국박 소장 오백나한도 6점은 고려시대에 성행한 나한신앙을 배경으로 하여 조성된 것으로, 비록 화기가 온전치 못하고 화면의 박락과 보채 및 가필이 된 것이 많긴 하지만 국내에 몇 점 전하지 않는 고려 나한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에 국가문화재(보물)로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

#### ○ 현상

비단바탕에 수묵담채로 의자 또는 바위에 앉아 있는 존자를 그린 오백나한도 중의 6점으로서, 화면 전반에 걸쳐 열화에 의한 바탕천의 박락과 함께 가필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나 보존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임.

#### ○ 내용 및 특징

##### .제92 守大藏尊者

암벽을 배경으로 암벽 사이에 놓여 있는 대나무 의자 위에 右向 하고 걸터앉아 두 손으로 연화받침을 하고 몸체에 문양이 그려진 상감청자 추정의 淨瓶을 받쳐 들고 있다. 정병에는 버들가지가 꽂혀 있는데 그 위로는 瑞氣가 뻗어나가며, 무릎 앞쪽의 經床 위에는 두각 다리를 한 寶珠形 기물이 놓여 있다.

금선 테두리를 한 투명 머리광배를 구비한 나한존상은 머리칼과 수염이 하얗고 큼직한 둥근 귀고리를 한 채 어깨가 구부정한 자세에 머리를 약간 뒤로 젖혀 앞쪽을 응시하고 있어 신통력 있는 老比丘를 보는 듯하다.

착용하고 있는 가사는 쪽의 이음새인 組에 金剛杵 문양을 표현 하고 여백에는 草花紋을 그려 장식하였으며, 소매 끝자락에 호분을 칠하고 암벽 면에 흰색 초화문을 표현하여 전반적으로 장식적 임이 파악된다.

배경을 이루는 바위면은 濃墨을 사용하여 음영을 나타낸 반면 의습선은 가늘고 힘찬 먹선을 사용함으로써 회화성이 엿보인다.

화면 상단 좌측(向右)에는 ‘第九十二 守大藏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 중앙부에는 조성시기 및 조성 관련자, 발원 내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國土 聖壽 令壽 之願 司 徹 乙未 棟梁 金’ 이라는 내용의 화기가 일부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1235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파악 된다.

##### .제125 辰寶藏尊者

화면 우측(向左) 상단에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고, 하단에 ‘國土 聖壽 太子 令壽 之願 將軍 □下 高光 乙未 棟梁 金’ 이라는 내용의 화기 일부가 남아 있는 존자도로서 바위 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右向하여 앉아 있다.

두 손 가운데 오른 손으로는 버들가지가 꽂혀 있는 정병을 들고 있으며, 왼 손

은 원 무릎 위에 두어 한가롭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원 어깨로는 가사를 묶은 끈이 흘러내리고 있다.

본 나한도 역시 화기로 미루어 보아 1235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제145 喜見尊者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하고 바위에 걸터앉아 구부정한 어깨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두 손을 맞잡고 화면 좌측(向右) 상단의 피어 나는 구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는 듯하다.

걸터앉은 바위와 法衣에 농묵으로 음영처리를 하여 간략하면서도 깊이감이 있어 보인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 ‘第一百四十五 喜見尊者’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아래쪽이 결실되어 온전하지 못한 ‘國土聖壽 太子 令壽 之願 軍鄉 □ 全 丙申 棟梁 金義’ 라는 내용의 화기가 남아 있다.

화기로 미루어 보아 본 나한도는 1236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되었음이 짐작된다.

#### .제170 慧軍高尊者

암벽을 뒤 배경으로 하고 바위 위에 右向하여 몸을 튼 채 결가부좌하고 앉아 두 손을 북부쪽에서 맞댄 禪定印 자세를 취하여 명상에 잠긴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한 존자의 경우 선이 굵고 강한 인상에 넓은 어깨를 하여 근엄하면서도 禪風 넘치는 高僧을 대하는 듯하다.

선정자세와 어울리게 존자 오른쪽 평평한 곳 경상 위에는 高杯形 향로가 놓여 있고 香煙이 피어나고 있는데, 연기를 코 밑으로 스쳐 지나가게 표현하여 參禪三昧境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듯하다.

화면 우측(向左) 상단에 ‘第一百七十 慧軍高尊者’ 라는 존자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 중앙에는 아랫부분이 결실된 ‘國土 聖壽 令壽 之願 校尉 丙申 棟梁 金’ 이라는 내용의 화기 일부가 남아 있다.

화기로 보아 본 나한도는 1236년 棟梁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제357 義通尊者

둥근 머리광배를 구비한 채 바위 위에 右向하여 결가부좌하고 있는 나한도로서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는 ‘第三百五十七 義通 尊者’ 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화기는 남아 있지 않다.

아래쪽을 응시하고 있는 존자의 경우 왼 손을 가슴 앞으로 들어 손 등이 보이도록 살짝 구부리고 있으며, 무릎 아래쪽의 오른 손으로는 如意를 들고 있다.

바위 면과 자유롭게 흘러내리는 法衣 자락에 농묵 처리함으로써 농익은 회화성이 엿보인다.

화기가 남아 있지 않아 분명하지는 않지만 존자상 및 표현기법 상으로 미루어 보아 1235-1236년에 일괄 조성한 나한도로 추정 된다.

#### .제427 願圓滿尊者

바위 위에 左向하여 결가부좌하고 앉아 있는 존자도로서 시선은 아래쪽을 향하고 있으며, 두 손 중 오른 손으로는 손자루가 긴 柄香爐를 잡고 왼 손은 향로 뚜껑을 잡고 있다.

화면의 손상이 심하여 명확한 표현은 잘 볼 수 없으나 화면 상단 좌측(向右)에는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 명이 묵서되어 있으며, 하단 중앙부에는 나한도 중 가장 많은 내용의 화기가 남아 있다.

화기는 ‘國土大 聖壽天 太子千 令壽萬 之願全 智 丙申七月 棟梁隊 金義仁’ 라는 내용으로 본 나한도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 일괄에 대한 조성시기와 조성관련자, 발원 내용을 파악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화면 하단 테두리 바깥 부분에는 광서 18년 임진년(1892년) 정월 沙彌 允五가 쓴 추서가 첨부되어 있다.

## □

### ○ 조사내용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고려시대 나한도는 16나한도 1폭, 오백나한도 6폭 합쳐서 모두 7폭을 소장하고 있다. 도상적으로 구분하면 16나한도는 존자는 의좌에 앉아 측면관을 하였고, 의자 주위에 권속들이 시위하는 모습이고, 오백나한도는 암석과 수목을 배경 배경으로 하여 수행하거나 신통력을 부리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 구분이 된다. 이 나한도들은 고려시대 때 크게 성행했던 나한신앙에 대한 결과여서 고려시대 불화 연구는 물론 나한신앙 연구에도 절대적인 자료이다.

### ○ 第九十二 守大藏尊者

왼쪽 상단에 먹 글씨로 제92 수대장존자라고 내려 썼다. 존자는 얇은 바위굴 안에 의자를 마련하고 그 위에 걸터앉았다. 존자는 측면관을 하였으며 허리 부근에는 마치 팔걸이처럼 거친 바위가 가로지르고 있다. 머리는 백발로 표현하였고, 컷 불에는 둥근 귀고리를 착용하였다. 금선을 두른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고개를 살

짜 들어 두 손으로 받쳐 든 사리에서 솟구쳐 오르는 瑞光을 응시하고 있다. 그 앞의 탁자에는 사리기의 뚜껑으로 생각되는 기물이 놓여 있고, 기물과 사리병의 외곽선은 금니로 처리하였다. 존자는 가사장삼을 걸쳤으며, 가사의 조에는 여타의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떡 바림으로 음영을 주었고, 다시 그 위에 금니로 금강저 문양을 섬세하게 시문하여 장엄하였다. 가사의 條에 화려한 금니로 문양을 시문하는 것은 고려 불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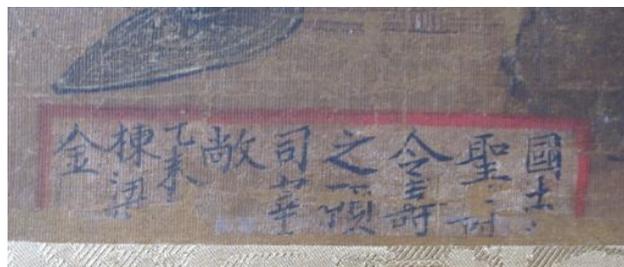
이 나한도는 乙未年, 즉 1235년 隊正 金(義仁)이 주관하였으며, 다른 나한도와 달리 어물의 조달과 하천의 교통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司宰寺의 관리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畫記」

國土」聖」令壽」之願」司宰」敝」乙未」棟梁」金」



제92 수대장존자도, 1235년



제92 수대장존자도 화기

○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

왼쪽 상단에 붉은색 방란과 나란히 묵서로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라고 적어 놓았는데, 방란의 글씨는 탈락이 심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붉은색 화기란을 두르고 그 안에 화기를 적어 놓았다. 따라서 이 작품은 오백나한도 중 125번째 진보장존자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른쪽을 향해 두 무릎을

모아 바위에 걸터앉아 마치 오른손 바닥에 올려놓은 정병을 눈을 부라려 물이 솟구치게 하는 신통력을 부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표현하였다. 무채색의 장삼위에 條가 있는 가사를 걸쳤으며 왼쪽 어깨에는 가사를 고정한 고리와 매듭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가사의 조와 장삼의 테두리, 존자가 앉은 바위 등에는 발묵법을 사용하여 음양의 효과를 주어 깊이와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y형으로 여민 옷깃과 타원형으로 넓게 흘러내린 소매 자락 안에는 얇고 부드러운 하얀 속옷이 드러나 맵시가 있다. 묘선은 가늘고 힘 있는 선을 구사하였고, 가사에는 먹의 濃淡으로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화기는 탈락이 심하고, 하단부가 잘려 나갔다.

國土…」聖壽…」太子…」令壽…」之願」

將軍…」垞下…」高…」乙未…」棟梁…」金…」

화기의 내용으로 보아 일군의 나한도와 함께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화기 가운데 태자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는 고려사에 기록된 고종22년(1235), 즉 乙未年 正月에 원자인 ○○(후에 元宗)을 태자로 책봉하였고 6월에 혼례를 올렸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125 진보장존자도, 1235년



제125 진보장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논문에서 전재

○ 第一百四十五 喜見尊者

이 작품은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일본식 장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신년에 그려진 오백나한도 중 제145 희견존자를 그린 것이다. 화면 좌측 상단에 붉은 화제란과 그 옆에 후서로 “第一百四十五喜見尊者”라는 畫題를 세로 먹 글씨로 적어 놓았고 화면의 하단 중앙에는 붉은색 방란을 마련하고 화기를 적어 놓았으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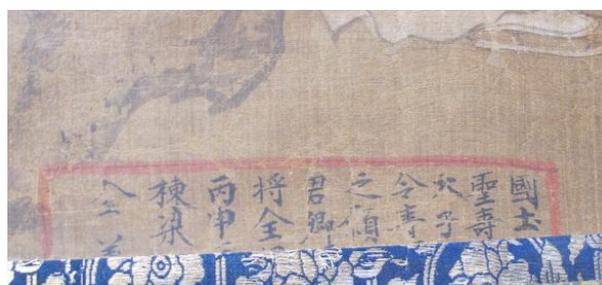
부는 잘려나가고 일부만 남아 있다. 존자는 암반 위에 걸터 앉아 측면관을 하였는데, 고개를 들어 시선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 타원형의 얼굴에 이목구비는 이국적인 젊은 비구의 모습이며, 얼굴에는 분홍빛이 감돈다. 콧볼에는 둥근 고리 모양의 귀고리를 착용하였으며, 턱 바림을 한 둥근 광배를 가지고 있으며, 두 손은 가슴 앞으로 모아 깍지를 끼었다. 장삼 위에 條가 표현된 붉은 색 가사를 걸쳤다. 하얀 속옷자락이 가사장삼 바깥으로 슬쩍 빠져나와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발에는 코가 뾰족하고 폭이 좁은 세장한 신을 신었다. 군데군데 수리의 흔적이 확인되나 구도와 인물의 표현 등은 안정적이며, 선의 굵기의 변화는 미미하지만, 의습과 신체의 윤곽 등에 사용된 선은 세련되고 활달한 선을 사용하였다. 이에 더하여 차분하게 가라앉은 고급스러운 색감을 사용하여 고려 불화의 수준 높은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은 다른 고려 나한도에 비해 얼굴과 가사 등 전반적으로 채색을 많이 사용한 편이다.

畫記

國土」聖壽」太子」令壽」之願」君卿」將全」丙申」棟梁」金義」



제145 회견존자도, 1236년



제145 회견존자도 화기

○ 第一百七十 慧軍高尊者圖

얼굴이 풍만하고 이목구비도 큼직하게 표현된 장년의 모습이다. 턱으로 음영을 넣은 바위대좌 위에 걸가부좌하고 앉았고, 두 손은 명치에서 가지런히 포개어 禪定印처럼 취하였다. 머리 뒤로는 원형의 두광을 갖추었으며, 가사는 條가 나뉜진

분소의의를 입었고, 오른쪽 어깨 위로 가사를 묶은 고리 장식이 표현되었다. 巖座와 연결된 원편 巖盤 위에는 절첩본의 경책과 고배형 향완이 놓여 있다. 등 뒤에 작게 표현된 수직 암반은 구름이 에워싸고 있어 무한한 공간감과 원근감을 의도하되, 산수보다는 인물중심의 나한도의 특성을 잘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입이 벌어진 원통형의 몸통에 깔대기 모양의 받침대가 붙은 고배형 향완은 당시 유행했던 청동은입사향완과 같은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뚜껑이 표현된 완전한 형태로 표현되어 향완 연구에 주목되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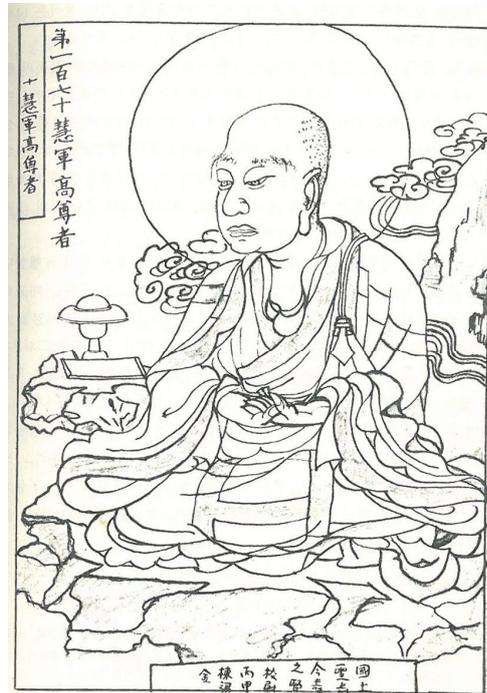
좌측 상단에 붉은 색 방란과 바로 옆에 먹 글씨로 “第一 百七十慧軍者尊者“라고 내려 썼다. 화면 하단 중앙부분에 붉은 방란을 마련하고 그 안에 화기를 적어 놓았으나 표구로 인하여 하단부는 잘려 나가고 윗부분의 8행 2자 정도가 확인된다. 화기를 통해 이 나한도도 다른 오백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병신년, 즉 1235년 동량 김의인의 주관으로 그려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화기

國土」聖壽」令壽」之願」校尉」丙申」棟梁」金」



제170 혜군고존자도, 1236년



제170 혜군고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논문에서 전재

○ 第三百五十七 義通尊者

화면의 좌우상단에 그림의 제목을 적어 놓았다. 왼쪽 상단에는 먹 글씨로 내려 썼고, 오른쪽 상단에는 붉은색 방란을 마련하고 그림의 제목을 적었으나 글씨와 방란이 많이 잘려나가 현재는 글씨가 확인되지 않는다. 존자는 타원형의 바위 위에 측면관을 하고 가부좌하고 앉았으며 머리 뒤로는 큼직한 圓光을 갖추었다. 오

큰손으로 여의를 잡았고, 왼손은 가슴 앞에 들어 설법하듯 포즈를 취하였다. 길게 늘어진 눈썹은 몇 번의 붓질로 나타내었으며, 이마는 넓고 뒤통수는 둥글게 표현하였다. 존자의 시선은 땅을 향해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고, 굳게 다문 입술은 붉게 칠하였으며, 이마와 볼, 목에는 老僧의 수행의 이력을 말해주듯 주름과 骨筋이 잘 드러나 있다. 명문은 잘려 나갔다. 가사의 條에는 먹바림을 하였다. 신체의 윤곽선은 유사한 굵기의 선을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차분한 인상을 주며, 가사의 衣褶은 활달하게 멋스럽고 생동감 있게 처리하였다.



제357 의통존자도



제357 의통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논문에서 전재

○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

이 존자는 아무런 배경 묘사 없이 암반 위에 걸가부좌 하고 앉은 단독의 젊은 비구형 존자상이다. 머리에는 먹바림을 한 원형의 두광을 갖추고 있으며, 條가 있는 가사장삼을 걸쳤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 붉은색의 방란과 그 바로 옆에 먹 글씨로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라는 제목을 後書 하였는데, 붉은색 방란의 글씨는 마멸이 심하여 알아보기 힘들다.

존자는 우안칠분면을 한 전신상으로 암좌에 앉아 수행하고 있는 단엄한 표현하였는데, 화면 전체가 마멸이 심하여 형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세밀한 붓질로 단정하게 표현한 젊은 비구를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짙은 눈썹 아래 눈동자가 살아 있는 예리한 눈을 묘사하였고 굳게 다문 붉은 입술을 통해 굳은 의지를 담아 내었다. 장삼 위에 條가 표현된 무문의 가사를 걸쳤고, 가사 조의 음영을 통해

입체감을 나타내었다. 목과 타원형으로 크게 벌어진 소매 안에는 부드러운 하얀 속옷을 드러내 멋을 내었다. 왼손으로는 S자형의 반침이 달려 있는 향로의 뚜껑을 잡았고, 오른손으로도 무언가의 지물을 들고 있다. 어깨는 넓고 둥글며 앉은 모양 안정감이 있다.

화면의 중앙 하단에는 붉은색 방란에 쓴 화기의 일부가 잘려나간 채 남아 있으며, 아래쪽 덧댄 회장부분에는 1892년에 沙彌 允五이 쓴 墨書가 남아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황해도 신광사에 전해오던 것이라 한다. 일부 잘려나간 원래 화기에는 丙申年에 나라의 태평과 국왕과 태자의 만수무강을 발원하였으며, 그림 제작의 주관자는 隊正 金義仁으로 기록하고 있다.

畫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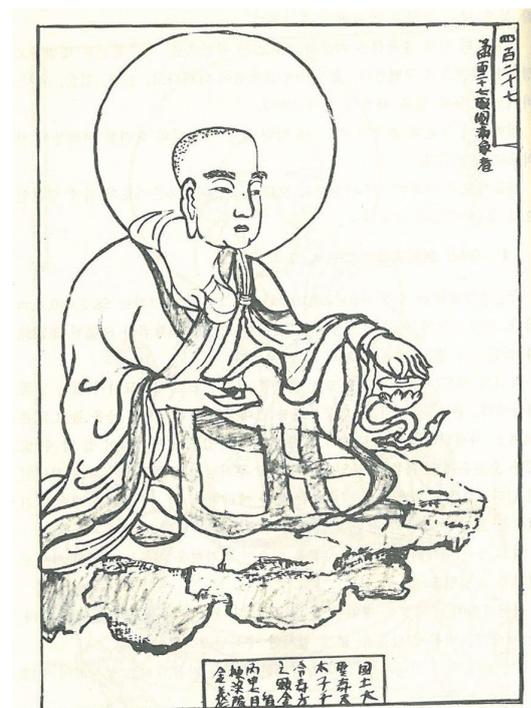
國土大「聖壽天」太子千「令壽萬」之願金「智」丙申七月「棟梁隊」金義仁」

沙彌 允五 墨書

高麗太祖六年府卿尹質使」於後梁梁帝以五道子所畫」五百羅漢幀奉賜曰可奉」安于東國名山麗太祖承」詔奉安于首陽山神光寺」至今千有餘載猶存眞本」雖爲剝落敢慕古人名」畫誠意亦使吾輩得」拜」尊者七分面目不勝欽仰」補缺復排以爲有緣者之」作福云爾」光緒十八年壬辰正月日」沙彌允五」



제427 원원만존자도, 1236년



제427원원만존자도 도면, 유마리의 논문에서 전재



① 第92 守大藏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8.0×41.0cm
- 재질 : 견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5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화면 향우측의 괴석에 등을 대고 앉아있는 노나한을 그린 제92 수대장존자도이다. 존자는 다리가 높은 탁자를 앞에 두고 나무를 엮어서 둥글게 만든 墩臺形 의자에 두 다리를 내려뜨리고 앉아서, 받침 위에 놓인 사리병을 양손으로 받쳐 들고 고개를 살짝 들어 사리병 속에서 뻗어 올라가는 瑞氣를 바라보고 있다. 사리병은 목이 길고 원형에 가까운 몸체로 이루어졌는데, 금니로 촘촘하게 문양이 그려져 있다. 존자 앞 탁자 위에 놓인 2단의 투각형 다리를 가진 기물은 형태로 보아 사리기의 뚜껑으로 생각되지만 확실치 않다. 존자가 앉은 돈대형 의자는 남송대 유송년필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소장)에서 존자가 앉아 있는 의자와 매우 비슷하며, 서기가 뻗어 올라가는 사리병을 손에 들고 서기를 바라보는 모습은 남송대의 작가미상 나한도(대만 국립고궁박물관소장)와 유사하여 전체적인 도상이 중국 나한도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존자는 화려한 금니의 문양이 그려진 가사를 입고 있으며, 가사의 각 조에는 金剛杵 문양, 사이사이에는 난 문양이 장식되었다. 얼굴은 코가 크고 턱이 각져 강한 인상을 주며, 귀에는 큼직한 금 귀걸이를 착용하였다. 머리와 소맷자락, 발등 등 부분적으로 호분을 칠해 강조하였다. 이 존자도는 배경을 이루는 바위면에는 濃墨을 사용하여 음영을 나타낸 반면 광배라던가 가사의 금강저, 난 문양 등은 다른 나한도에 비해 금니를 많이 사용했는데, 의습선 역시 가는 먹선으로 그린 뒤 그와 중첩하여 금니로 선을 그어 장식하였다.

한편, 화면 상단 좌측(向右)에는 짙은 먹으로 ‘第九十二守大藏尊者’, 상단 우측(향좌)에는 붉은 선 안에 ‘000守天藏尊者’라고 존자명이 적혀있다. 《五百聖衆請文》에 92번째 존자명이 ‘守大藏尊者’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상단좌측에 적힌 묵서는 ‘第九十二守大藏尊者’가 맞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단 중앙부에는 붉은색으로 선을 두른 화기란에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之願 司宰□□ 敝□ 乙未□□ 棟梁[隊]  
[正] 金[義][仁]

이라는 묵서의 화기가 남아있다. 화기 일부가 박락되긴 했지만, 다른 작품의 화

기와 비교해볼 때 乙未年(1235)에 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오백나한도(第92 守大藏尊者), 1235년,  
건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② 第125 辰寶藏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5.2×38.8cm
- 재질 : 건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5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이 불화는 오백나한 중 125번째 존자인 辰寶藏尊者를 그린 것이다. 고운 비단바탕 위에 그려졌으나 화면의 박락이 심하며, 가칠된 부분이 많은 등 상당부분 보존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존자는 몸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고 두 다리를 내려뜨린 채 암석 위에 걸터앉은 자세로 앉아있다. 왼손은 무릎 위에 대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손바닥 위에 정병을 들고 있는데, 정병 속에서 물줄기가 솟구쳐 올라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존자는 눈을 크게 뜨고 물줄기가 떨어진 곳에 있는 동물을 보고 있어 동물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존자의神通력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을 쳐다보는 존자의 큼직하고 거 무턱턱한 얼굴, 부릅뜬 눈, 두터운 입술 등에서 이국적인 나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화면 상단 우측(향좌)에는 붉은 화기란 안과 밖에 존자의 명칭이 묵서로 쓰여져 있으나 화기란 안쪽의 명문의 거의 지워졌으며, 바깥쪽의 묵서는 ‘第一百二十五 辰寶藏尊者’로 판독된다. 화면 하단 중앙에는 화기란이 마련되어 있는데, 윤곽선을 먹으로 그린 뒤 다시 붉은 선을 둘렀다. 화기는 아랫부분은 잘려나가고 글자 또한 박락되었는데, 현재 판독이 가능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國土[大][平] 聖壽[天][長] 太子千□ 令[壽][萬][年] 之願 將軍□ 垡下 高光 乙未 □ 棟[梁][隊][正] 金[義][仁]

화기에 의하면 이 나한도는 을미년(1235년) 將軍 高光의 시주로 棟梁 隊正 金 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를 시주한 將軍 高光은 1,000명으로 구성된 領의 지휘관이자 정4품으로, 오백나한도의 조성에 고위직인 장군도 동참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고려 오백나한도(第125 辰寶藏尊者),  
1235년, 견본수목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③ 第145 喜見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9.5×42.0cm
- 재질 : 견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6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오백나한 중 145번째 존자인 喜見尊者를 그린 그림이다. 바위에 걸터앉은 존자의 모습을 그렸는데, 화면이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며, 부분적으로 가필된 흔적이 보인다. 존자는 커다란 원형두광을 지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며, 존자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구름이 떠가고 있어 아마도 구름을 부리는 존자의神通력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구부정한 어깨에 머리를 뒤로 젖힌 채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응시하는 존자는 濃墨으로 음영처리를 한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있지만 발 아래에 땅이 그려지지 않아 마치 허공 중에 떠있는 듯 보인다. 얼굴과 가사 끝자락에 백색안료를 칠하고 바위와 가사에는 바람질을 하여 입체감을 표현하는 등 변화를 주었다. 다른 나한도에 비하여 채색이 강하고 굵은 선을 사용하여 힘있는 느낌을 주는데, 일부 채색과 선묘는 후에 기필, 가채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는 第一百四十五 喜見尊者' 존자명이 두 번 적혀있는데, 붉은 화기란 밖의 묵서는 후에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단 중앙에는 윤곽 선을 먹으로 그린 뒤 다시 붉은 선을 둘러 화기란을 만들고 화기를 적었다. 화기는 아랫부분 일부가 잘려나갔으며, 다른 나한도와 비교하여 화기 내용을 복원해 보면 아래와 같다.

國土[大][平] 聖壽[天][長] 太子[千][載] 令壽[萬][年] 之願 君卿□ 將全□ 丙申  
棟梁[隊][正] 金義[仁]

즉 이 나한도는 병신년(1236)에 나라가 태평하고 임금과 태자가 수명장수하기를 기원하며 조성한 것으로, 이 역시 隊正 金義仁에 의해 조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오백나한도(第145 喜見尊者),  
1236년,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④ 第170 慧軍高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4.0×37.2cm
- 재질 : 견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6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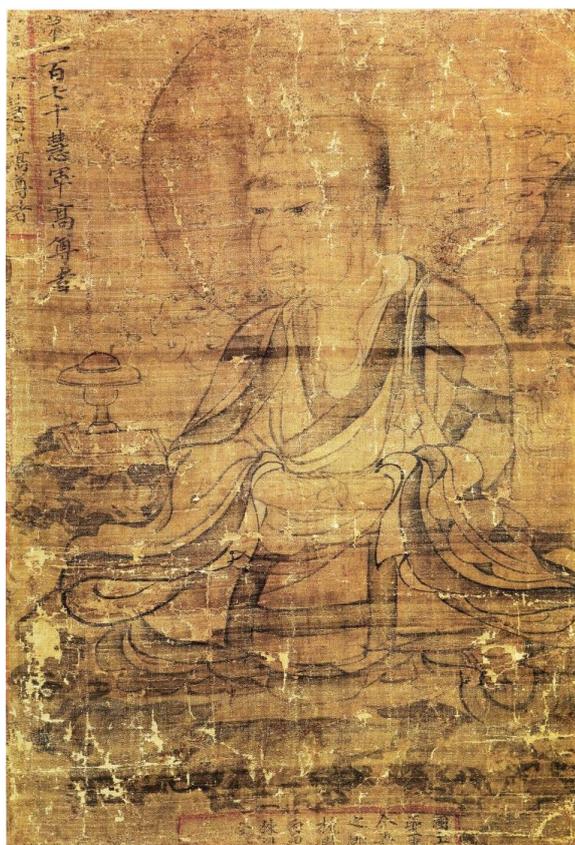
오백나한 중 170번째 존자인 慧軍高尊者를 그린 것으로, 바위 위에 앉아 곁가 부좌한 나한을 그렸다. 존자는 농묵으로 음영을 처리한 넓은 암반 위에 앉아 배 앞으로 두 손을 모아 선정인의 자세를 취한 채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고 앉아있다. 커다란 눈을 약간 아래로 내리깔고 선정에 든 나한은 큼직한 얼굴에 매부리코, 짙은 눈썹, 꼭 다문 입 등에서 근엄하면서도 후덕한 인상이 풍긴다. 나한의 앞에 있는 작은 암반 위에 놓인 高杯形 香爐(香垵)에서는 향연이 피어 오르고 있는데, 향연이 길게 뻗어가는 모습에서 깊은 禪定三昧에 빠진 수도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커다란 두광을 지닌 나한의 모습, 화면에 꼭 차게끔 나한을 배치한 구성은 곱으면서도 단순한 옷주름과 함께 강한 인상을 주지만, 바

람에 흠날리듯 자연스러운 옷자락과 먹의 효과를 최대한 살린 바림질기법, 釘頭蛇尾描의 필선, 섬세한 얼굴 묘사 등에서 뛰어난 양식을 보여준다. 옷자락 부분과 일부 채색은 후보되었다.

화면 우측(向左) 상단에는 붉은 선의 화기란 안팎으로 ‘第一百七十 慧軍高尊者’라는 존자명이 두 번 묵서되어 있는데, 밖의 글씨는 후에 가필된 것이다. 하단 중앙에는 붉은 선을 두르고 먹으로 화기를 적었다. 화기는 아랫부분이 일부 결실되었으나, 남아있는 부분과 복원된 화기는 다음과 같다.

國土[大][平] 聖壽[天][長] 令壽[萬][年] 之願 校尉□ 丙申□ 棟梁[隊][正] 金[義][仁]

이 나한도는 병신년(1236년)에 나라가 태평하고 임금과 태자가 수명장수하기를 기원하며 校尉의 시주로 隊正 金義仁이 발원 조성하였다. 이 나한도를 시주한 인물은 2개의 隊로 편성되는 伍를 통솔하던 정9품의 하위무관인 校尉로, 정4품 장군이 시주한 第125 辰寶藏尊者와 달리 하위무신들 역시 나한도의 주요 시주자였음을 보여준다.



고려 오백나한도(第170 慧軍高尊者), 1236년, 견본수목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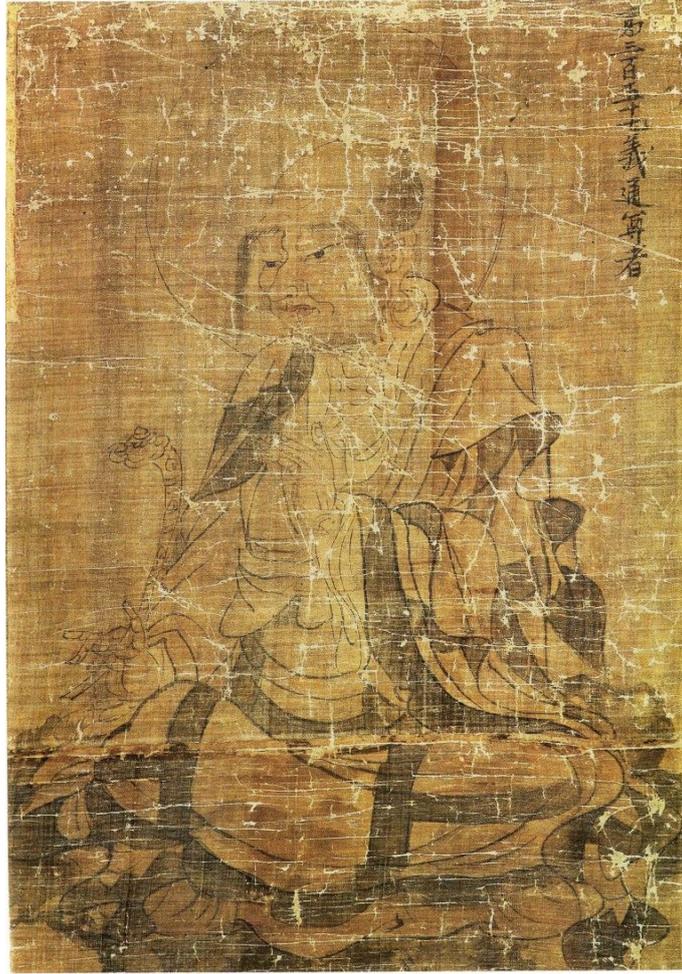
⑤ 第357 義通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2.8×36.8cm
- 재질 : 견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5~6년경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이 불화는 오백나한 중 357번째 존자인 義通尊者를 그린 것이다. 치밀한 비단에 그려졌는데 전체적으로 화면에 구김이 많고 박락된 부분이 많으며, 인물 표현과 옷자락부분에 약간 가필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화면의 향우측 부분과 아래부분은 색이 매우 짙어보여 갈변현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분적으로 보전이 되었다.

존자는 둥근 머리광배를 지니고 오른쪽을 향해 약간 몸을 튼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암반 위에 앉아있다. 얼굴은 윤곽선이 가늘고 세밀한 편이며, 능숙한 필치로 이목구비를 그렸는데, 눈썹이 길게 늘어진 모습이 흥미롭다. 양 어깨에는 가사를 걸치고 結跏趺坐의 좌세로 앉아 왼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손등이 보이도록 살짝 구부리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如意를 들고 있다. 섬세한 얼굴 표현에 비해 옷자락은 굵고 강한 필선으로 그리고 條線은 濃墨으로 처리하였는데, 옷자락의 주름이 매우 유려하여 작가의 기량이 뛰어남을 엿볼 수 있다. 존자가 앉은 암반도 濃墨으로 처리하였다.

화면 좌측(向右) 상단에는 ‘第三百五十七 義通尊者’라는 명칭이 묵서되어 있으며, 우측(향좌) 상단에는 화기란의 붉은선만 남기고 잘라내어 원래의 묵서명은 남아 있지 않다. 화면 중앙에도 화기란이 남아있지 않지만 존자의 자세와 가사의 형식, 암반의 표현 등에서 1236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第170上音手尊者圖(일본 大和文華館소장)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이 작품 역시 1235-1236년에 일괄 조성한 나한도 중 한 점으로 추정된다.



고려 오백나한도(第357 義通尊者), 1235~1236년경,  
건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⑥ 第427 願圓滿尊者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 규격 : 58.6×40.7cm
- 재질 : 건본수묵담채
- 수량 : 1점
- 연대 : 1236년
- 문화재의 현상 및 특징

오백나한 중 427번째 존자인 願圓滿尊者를 그린 그림으로, 1236년에 隊正 金 義仁의 주도로 조성되었다. 화면의 존상이 매우 심하고 다른 작품에 비해 비단 바탕의 울이 성근 편이다. 화면 상단 향우측에 ‘第四百二十七 願圓滿尊者’ 명이 묵서되어 있으나 워낙에 손상이 심해 잘 보이지 않는다. 존자는 몸을 약간 왼쪽으로 틀고 해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는 커다란 두광을 두르고 향로를 들었다. 존자가 들고 있는 향로는 원형의 爐身에 연꽃 모양의 받침이 있으

며 긴 손잡이가 달려있는 柄香爐로, 존자는 오른손으로 향로의 손잡이를 잡고 爐身 위에서 왼손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데, 노신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병향로는 일반적으로 行香儀式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병향로를 나한이 들고 있는 예는 일본 네주미술관 소장 석가 16나한도,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석가십육나한도에서도 볼 수 있어 고려시대에 널리 사용되던 향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나한도의 하단에는 광서 18년 임진년(1892년) 정월에 沙彌 允五이 쓴 목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高麗太祖六年府卿尹質使於後梁梁帝以五道子所畫五百羅漢幀奉賜曰可奉安于東國名山麗太祖承詔奉安于首陽山神光寺至今千有餘載猶存眞本雖爲剝落敢慕古人名畫誠意亦使吾輩得拜尊者七分面目不勝欽仰補缺復排以爲有緣者之作福云爾光緒十八年壬辰 正月日 沙彌允五

(고려 태조6년 부경 윤질이 후량에 사신으로 갔는데, 양제가 오도자가 그린 오백나한도를 주면서 동쪽나라 명산에 봉안하라고 했다. 이를 전해들은 태조는 이 그림을 수양산 신광사에 봉안하라고 명했다. 지금으로부터 천여 년이 넘었는데도 진본이 남아있으니 비록 벗겨지고 떨어졌으나 감히 옛 사람의 명화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존자의 칠분면목을 절하며 공경하게 하니 欽仰을 이기지 못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인연이 있는자로서 복을 짓는 것이라 할 것이다. 광서18년 임진 정월일 사미윤옥)

이 내용은 이 작품을 비롯한 고려 오백나한도가 후량에서 온 吳道子가 그린 오백나한도로서 신광사에 봉안되었던 그림이라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오백나한도의 조성시기와 조성관련자, 발원 내용을 파악하는데 자료적 가치가 크다. 그렇지만 19세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하더라도 지금 전해오는 고려 오백나한도를 후량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마도 후량에서 가져온 오백나한도를 후대에 고려에서 모사한 그림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오백나한도(第427 願圓滿尊者), 1236년, 견본수묵담채, 국립중앙박물관소장

## 5. 성화칠년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가. 검토사항

‘성화칠년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성화칠년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5.9)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3)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성화칠년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소유자(관리자): 홍\*\*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1冊(6張)
- 규격(cm): 세로 22.4(16.4) × 가로 13.5(10.8)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금속활자본(金屬活字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479년(成宗 10) 推定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年(1471, 성종 2)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를 수록한 명단으로 현재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앞

서는 유물이다. 또한 科試에 합격한 趙鑣이 跋文을 직접 지어 수록하였다는 특별한 점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현재 전하는 인본이 적은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 書誌學的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1471, 成宗 2, 辛卯)년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의 名單으로 成化 15(1479, 成宗 10)년 7월에 간행된 榜目이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재까지 公開된 榜目으로는 刊行時期가 가장 앞서고 당시 科試에 합격한 趙鑣(?~?)이 跋文을 지음으로써 해당 科試에서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독특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와 같이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書誌學的 가치가 큰 것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前期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擧制度史 등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修理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1471, 成宗 2, 辛卯)년 3월에 시행된 別試 文武科의 합격자 명단으로 成化 15(1479, 成宗 10)년 7월에 간행된 榜目이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으며, 현재까지 공개된 榜目으로는 간행시기가 가장 앞서고 당시 文科 3등에 합격한 趙鑣(?~?)이 跋文을 지음으로써 해당 科試에서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이와 같이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書誌學的 가치가 크고, 조선시대 전기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擧制度史 研究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修理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명칭은 “신묘삼월문무과전시방목”으로 함

### 조사보고서

## □

### 書誌事項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編著者不明]. -- 金屬活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0(1479) 推定].

1冊(6張) : 四周單邊, 半郭 16.4×10.8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22.4×13.5 cm. 楮紙. 線裝(改裝).

表 題: 辛卯殿試榜目

內 題: 辛卯龍戶榜目

卷首題: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

卷末跋: 上之宅憂之二年冬十月乙亥諭諸道監/ 司曰予明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體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萬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顛顛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舉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編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年七月初吉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鑛利民謹跋.

## ○ 현 상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 소유자가 1980년대 말경에 原州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문화재라고 전해진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재 앞뒤의 표지가 개장된 상태이다. 表題는 ‘辛卯殿試榜目’이나 卷首題는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이

다. 모두 6장으로 그 중 1장은 7~9행의 상부 글자 일부가 결락되었고, 제6장에서는 8행의 가운데 일부와 9행 그리고 판심부 전체가 결락된 상태이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化 7年(1471, 성종 2)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의 명단이다. 이에 대한 기록은 『성종실록』에 보인다.

取文科金訥等九人(『성종실록』 9권, 成宗 2年 3月 壬寅)

幸慕華館 御館門 試武科 取金確等十七人 仍命諸將及衛士 試三甲射·三甲槍·毛毬·擊毬.(『성종실록』 9권, 成宗 2年 3月 庚子)

문과는 1등에 金訥 등 2인, 2등에는 兪臣老 등 3인, 3등에는 趙鑣 등 4인으로 모두 9명이 수록되었고, 무과는 1등에 金確 등 3인, 2등에는 蔣處仁 등 5인, 3등에는 黃仲孫 등 9인으로 모두 17명의 명단이 올라있다.

권말에는 문과 3등에 합격한 趙鑣이 지은 跋文이 있다. 간기는 成化 15年(1479, 성종 10)년 7월로 되어 있어 시험을 치룬 이후 8년이 지나서 간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武科榜



跋文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세조 11년(1465)에 鄭蘭宗의 글씨

를 字本으로 하여 주조한 乙酉字로 인출되었다. 이 銅活字는 圓覺寺를 준공하고 「大方廣圓覺修陀羅了義經」을 印出하기 위하여 주조한 것으로 口訣을 달기 위하여 한글 활자도 주성하였다. 이 활자는 글자체가 단정하지 않다고 혹평받아 그 사용 사례가 많지 않은데, 더욱 甲辰字를 새로 주조하면서 이 활자를 녹여서 사용한 때문에 사용기간이 짧아 전하는 印本도 많지 않다.

조선전기에 金屬活字로 인쇄된 榜目 중에서 지정된 것으로는 燕山君 7年(1501) 科試의 합격자를 수록한 「司馬榜目」(보물 제1464호), 中宗 8年(1513) 科試의 합격자를 수록한 「正德癸酉司馬榜目」(보물 제524호)과 「文武雜科榜目」(보물 제603호) 등이 있다. 이와 비교할 때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현재까지 공개된 항목으로는 간행시기가 가장 앞서는 유물이라 할 수 있다.

### ○ 지정사례

- 보물 제 524호 「驪州李氏 玉山門中典籍-正德癸酉司馬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 603호 「文武雜科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1464호 「司馬榜目」(燕山君 7, 1501)



■ 書誌記述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編著者不明]. -- 金屬活字本. -- [刊行地不明]: [刊行處不明], [成宗 10(1479) 推定].

1冊(6張) : 四周單邊, 半郭 16.4×10.8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22.4×13.5cm. 楮紙. 線裝(改裝).

表 題: 辛卯殿試榜目

內 題: 辛卯龍戶榜目

卷首題: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

卷末跋: 上之宅憂之二(1470, 성종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성종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体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성종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顛顛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

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  
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  
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

活字名: 金屬活字 乙酉字 中間字

伝來歷: 소유자 홍\*\*이 1980년대 말경에 原州의 조\*\*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한  
다.

■ 現狀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소유자 홍\*\*이 1980년  
대 말경에 原州에 사는 지인 조\*\*으로부터 구입한 문화재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반포리체아파트 103동 3102호의 홍\*\*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현재 상태는 前後의 表紙가 改裝  
된 전체 6張이다. 그 중 제1장은 제7~9행의 상부의 글자 일부가 缺落되어 있  
고 末張인 제6장도 제8행의 가운데 일부가 毀損되어 글자가 缺落되었으며, 글  
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9행과 版心部分은 전체가 缺落되어 있다.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表題는 ‘辛卯殿試榜目’이고 卷首  
題는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이며 도합 6張이다. 楮紙에 金屬活  
字인 乙酉字의 中間字로 印刷되었으며 每半葉의 行字數는 9行 16字이고, 半郭  
의 크기는 가로 16.8 cm 세로 10.4cm이다. 前後의 表紙는 改裝되었으며 제1장은  
제7~9행의 上部의 글자 一部가 缺落되어 있고 末張인 제6장 역시 제8행의 가  
운데 一部가 毀損되어 글자가 缺落되었다.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推定되는 제9  
행과 版心部分은 全体가 缺落된 상태이다.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내용은 成化 7(1471, 성종 2, 신  
묘)년 3월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의 名單으로, 이는 成宗實錄 2(1471)  
年 3月 29日의 “文科에 金訥(1448~1492)<sup>9)10)</sup> 등 9인<sup>11)</sup>을 뽑았다”라는 記事와  
同年(1471) 3월 27日의 “武科를 試驗하여 金確(?~?)<sup>12)</sup> 등 17인을 뽑았다”라는  
記事와 일치하고 있다.

9)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世祖 14(1468)年 2月 25(丙辰)日條.

宗簿寺正尹子滌 來進新取生員·進士等試券 命饋之 上覽兩榜一等人試券 成均幼學趙亨門爲生員第一人 金訥進士第一人.

10)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9(壬寅)日條.

取文科金訥等九人.

11) 當時에 選取된 9人은 金訥(1448~1492)·鄭摯(?~?)·俞臣老(?~?)·李禮堅(1436~1510)·南梯(?~?)·趙鑣(?~?)·金瑞  
亨(?~?)·孫尙長(?~?)·孫敍倫(?~1457) 등이다.

12)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7(庚子)日條.

幸慕華館 御館門 試武科 取金確等十七人 仍命諸將及衛士 試三甲射·三甲槍·毛毬·擊毬.

調査本「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에 수록된 “上之宅憂之二(1470, 성종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성종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体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성종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顯顯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庶/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의 跋文 著作時期가 成化 15(1479, 성종 10)년 7월인 것으로 보아 放榜 이후 8년이 지나서 刊行된 것으로 추정되며, 跋文을 지은 趙鑣(?~?)은 당시 文科 3등(丙科) 1位로 합격한 인물로 當該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독특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調査本「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을 印出한 乙酉字는 世宗 11(1465)년에 鄭蘭宗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鑄造한 大字와 中間字 및 小字 그리고 한글자의 銅活字로 이 활자는 圓覺寺를 준공하고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印出하기 위하여 주도된 활자이다. 이후 甲辰字를 새로 鑄造하면서 이 活字를 녹여서 사용한 때문에 使用期間이 짧아 傳存하는 印本이 많지 않은 편이다. 現伝本으로는 「碧巖錄」, 「六經合部」 중의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觀世音菩薩禮文」, 「兵將說」, 「唐書」, 「文翰類選大成」 등이 있다. 調査本「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本文이 포함 6장에 불과하나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해낸 印本이라는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前期에 金屬活字로 인쇄된 榜目 중에서 個別的으로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것은 司馬榜目 2종과 文武科榜目 1종 등 포함 3종에 불과하다. 보물 제 1464호 [弘治辛酉]司馬榜目은 燕山君 7(1501)년 科試의 放榜이며, 보물 제524호 [正德癸酉]司馬榜目과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은 中宗 8(1513)의 放榜이다. 반면에 調査本「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宗 2(1471)년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의 放榜으로 成宗 10(1479)년 7월에 刊印된 것으로, 현재까지 公開된 榜目으로는 放榜 및 刊行時期가 가장 앞서는 榜目이다.

調査本「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跋文을 지은 趙鑣(?~?)은 당시 科試에서 文科 3등 1位로 합격하였는데 當該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跋文을 지은 독특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으며, 또한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도 書誌學的 가치가 큰 것일 뿐 아니라 조선시대 前期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學制度史 등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따라서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 지정사례

우리나라 最古의 榜目은 조선 제8대 睿宗 원(1469)년에 甲寅字로 찍어낸 「司馬榜目」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榜目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榜目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調査本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成宗 10, 1479)
- 보물 제524호 [正德癸酉]司馬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1464호 [弘治十四年辛酉]司馬榜目(燕山君 7, 1501)

###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記述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 / [編著者不明]. -- 金屬活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不明], [成宗 10(1479) 推定].

1冊(6張) : 四周單邊, 半郭 16.4×10.8cm, 有界,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 22.4×13.5cm. 楮紙. 線裝(改裝).

表 題: 辛卯殿試榜目

內 題: 辛卯龍虎榜目

卷首題: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

卷末跋: 上之宅憂之二(1470, 成宗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成宗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体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成宗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

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顯顯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

活字名: 金屬活字 乙酉字 中間字

狀 態: 부분적으로 毀損되고 글자가 缺落되어 보존처리와 再裝訂이 필요함  
 所 藏: 홍\*\*(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반포리체아파트 103동 3102호)  
 傳來歷: 1980년대 말경에 소장자가 原州의 조병윤으로부터 구입함  
 既指定: 金屬活字로 인쇄된 榜目은 司馬榜目 2종(보물 제524호, 제1464호)과 文武雜科榜目(보물 제603호) 1종이 개별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동일본은 없음

■ 現狀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소장자가 1980년대 말경에 原州에 사는 지인 조병윤으로부터 구입한 문화재로 현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반포리체아파트 103동 3102호의 홍\*\*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상태는 전체 6張으로 前後 表紙가 改裝되어 있다. 그 중 제1장은 제7~9행 상부의 글자 일부가 缺落되어 있고, 제6장도 제8행 가운데 일부가 훼손되어 글자가 缺落되었으며,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9행과 版心部分은 전체가 결락되어 있다.

### ○ 내용 및 특징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表題는 ‘辛卯殿試榜目’이고 卷首題는 ‘成化七年辛卯三月二十九日文科殿試榜’이며 전체 6張이다. 楮紙에 금속활자인 乙酉字 中間字로 인쇄되었으며 行字數는 9行16字이고, 半郭의 크기는 가로 16.8 cm 세로 10.4cm이다. 前後 表紙가 改裝되었으며 제1장은 제7~9행 상부의 글자 일부가 缺落되어 있고 마지막 장인 제6장 역시 제8행 가운데 일부가 훼손되어 글자가 缺落되었다. 글자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9행과 版心部分은 전체가 결락된 상태이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내용은 成化 7년(1471, 성종 2, 신묘) 3월에 시행된 別試의 文武科 合格者 名單으로, 이는 성종실록 2(1471)년

3월 29일의 “文科에 金訥(1448~1492)<sup>13)</sup> 등 9인<sup>14)</sup>을 뽑았다”라는 기사와 同年(1471) 3월 27일의 “武科를 試驗하여 金確(?~?)<sup>15)</sup> 등 17인을 뽑았다”라는 기사와 일치하고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에 수록된 “上之宅憂之二(1470, 성종 1)年冬十月乙亥(11월 1일)諭諸道監/ 司曰予明(1471, 성종 2)年春諒陰禮畢視學取士以/ 資其納誨其各体予至懷山林草澤之/ 閒懷瑾握瑜之士含嗟畜怨不能自振/ 者比或有之亦令所在守令躬造其門/ 禮而遣之越辛卯仲春(1471, 성종 2년 2월)四方學者咸集/ 于京動以万數嗚呼光岳氣分鍾其秀/ 者爲賢而賢材之出/ 天地之爲邦家計也/ 天門洞開旁招俊又文章材士颯颯昂昂/ 皆欲一試以展素蘊及其終也擢文科/ 者九人中武學者十七人夫大東千里/ 不爲褊小糾合材傑不爲寡弱而共戴/ 天花者乃止此數夫豈偶然哉蓋亦分不/ 淺歟況/ 國家之待文武如一而文武之相視如/ 弟兄凡我諸兄式相好矣先敬信而後/ 恩怨重忠義而輕富貴斷斷兮休休焉/ 以事/ 一人以永終譽則庶幾乎應/ 天地生賢之計而副/ 聖上取士之意矣然則後之若子若孫豈/ 不於歌泮水詠鳧鷖之間觀此榜目而/ 欣欣然相告也此不佞所以印此而投/ 贈之意也時成化十五(1479, 성종 10)年七月初吉(1일)榜/ 末務功郎典校署博士趙鑣(?~?)利民謹跋”의 跋文이 成化 15(1479, 성종 10)년 7월인 것으로 보아 放榜 이후 8년이 지나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발문을 지은 趙鑣(?~?)은 당시 文科 3등(丙科) 1위로 합격한 인물로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발문을 지은 희귀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을 印出한 銅活字 乙酉字는 世宗 11(1465)년에 鄭蘭宗의 글씨를 字本으로 하여 主조한 大字, 中間字, 小字 및 한 글자의 이 활자는 圓覺寺를 主공하고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印出하기 위하여 主조된 활자이다. 이후 甲辰字를 새로 主조하면서 이 활자를 捺여서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이십년으로 짧아서 現존하는 印本이 많지 않은 편이다. 現傳本으로는 「碧巖錄」, 「六經合部」 중의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觀世音菩薩禮文」, 「兵將說」, 「唐書」, 「文翰類選大成」 등이 있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본문이 6장에 불과하나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찍은 印本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榜目 중에서 個別的으로 國家文化財로 지정된 것은 司馬榜目 2종과 文武科榜目 1종 등 道합 3종에 불과하다. 보물 제 1464호 [弘治辛酉]司馬榜目은 燕山君 7(1501)년 科試의 放榜이며, 보물 제524호

13)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9(壬寅)日條.

取文科金訥等九人.

14) 합격자 9人是 金訥(1448~1492)·鄭摯(?~?)·俞臣老(?~?)·李禮堅(1436~1510)·南梯(?~?)·趙鑣(?~?)·金瑞亨(?~?)·孫尙長(?~?)·孫敍倫(?~1457) 등이다.

15) 春秋館 編, 「朝鮮王朝實錄」. 成宗 2(1471)年 3月 27(庚子)日條.

幸慕華館 御館門 試武科 取金確等十七人 仍命諸將及衛士 試三甲射·三甲槍·毛毬·擊毬.

[正德癸酉]司馬榜目과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은 中宗 8(1513)의 放榜이다. 반면에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은 成宗 2(1471)년에 치러진 別試의 文武科의 放榜으로 成宗 10(1479)년 7월에 刊印된 것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榜目으로는 放榜 및 간행시기가 가장 앞서는 榜目이다.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의 榜目을 지은 趙鑣(?~?)은 당시 科試에서 文科 3등 1位로 합격하였는데 해당 科試에 합격한 인물이 榜目을 지은 희귀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乙酉字 中間字만으로 印出되었다는 점에서도 書誌學的 가치가 크고 조선시대 전기의 人物과 社會史 및 科擧制度史 등의 研究를 위해서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 ○ 지정사례

우리나라 最古의 榜目은 조선 제8대 睿宗 원(1469)년에 甲寅字로 찍어낸 「司馬榜目」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 榜目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榜目이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조사본 [成化七年辛卯三月]文武科殿試榜目(成宗 10, 1479)
- 보물 제524호 [正德癸酉]司馬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603호 [正德癸酉]文武雜科榜目(中宗 8, 1513)
- 보물 제1464호 [弘治十四年辛酉]司馬榜目(燕山君 7, 1501)

###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查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6.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가. 검토사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  
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7.16)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6)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소유자(관리자): 남\*\*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10권2책
- 규격(cm): 세로 24.0(19.4) × 가로 14.0(12.3)
- 재 질: 죽지[竹紙(中國 元朝)]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309년(고려 충선왕 1)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고려 忠宣王 1年(1309)에 간행된 판본으로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

어 판각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토가 기입되어 있어서 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 구결이 적어도 3종이 전하는데 이 책에 있는 구결이 가장 이른 시기의 구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비록 훼손상태는 심하나 高麗 板本으로 初印本이며, 훈민정음 이전의 국어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라는 점에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朝의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解釋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원(1309)년에 刊行된 版本으로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板刻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佛敎學과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특히 漢文의 學習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 더욱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保存修理 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朝의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의 戒環(?~?)이 解釋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1(1309)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판각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불교학과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漢文의 學習 및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읽는 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서도 귀중

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훼손상태가 심하여 차후 紙類文化財 보존처리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조사보고서



#### 書誌事項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密帝(?~?, 唐) 漢譯 ; 戒環(?~?, 宋) 解.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者)不明], [高麗 忠宣王 1(1309) 推定].

10卷2冊 : 四周雙邊, 半郭 19.4×12.3cm, 有界, 15行30字, 無魚尾 ; 24.0×14.0cm. 中國紙. 線裝(改裝).

題簽題: 首楞嚴要解上·下

卷首頭: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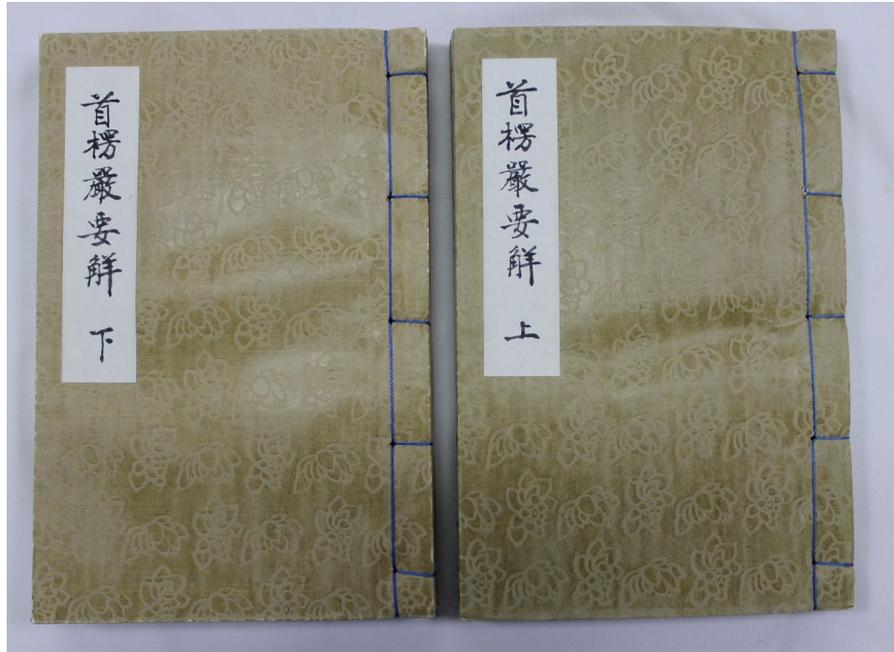
版心題: 楞嚴

## ○ 현 상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원래 慶北 安東市의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의 소장본이었는데, 1997년경에 현 소장자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은 현재 낮은 品質의 중국종이에 인쇄된 까닭에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인데, 1990년대에 전체를 繕接하여 2책으로 장책한 상태이다. 전 10권 170여 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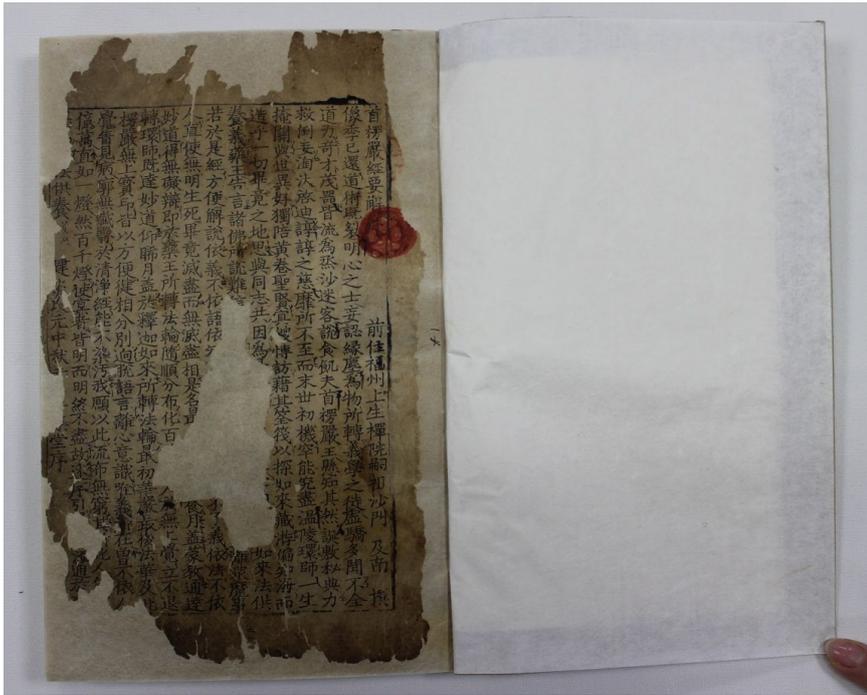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上·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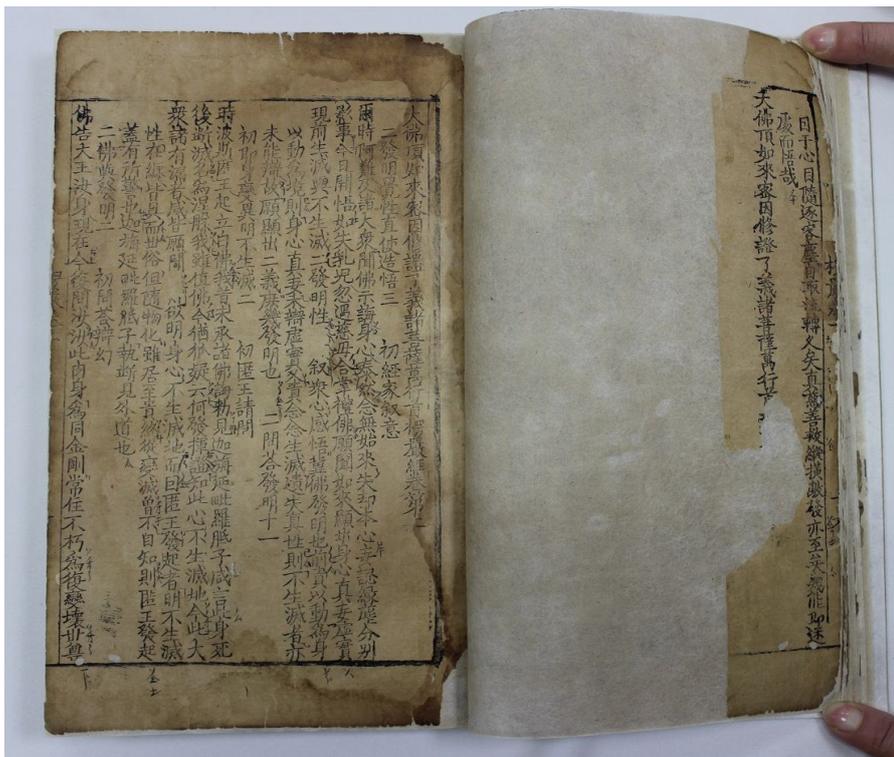
###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나라 中宗 神龍 1年(705)에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쉽게 풀이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1年(1309)에 간행된 목판 小字本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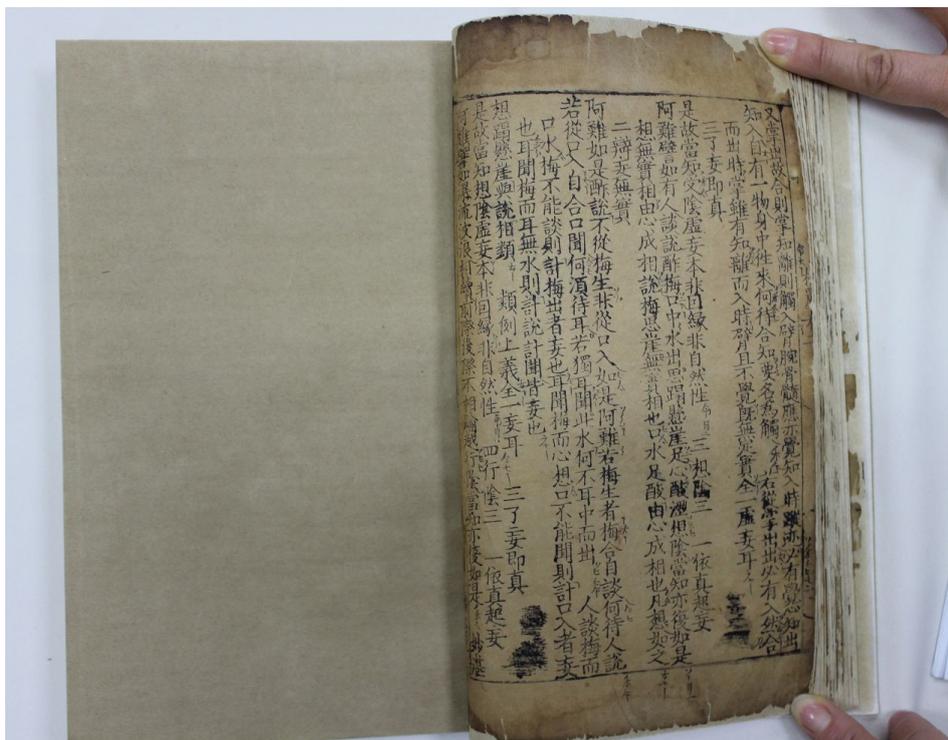
비록 卷末이 결락되어 刊記를 알 수 없으나, 보물 제959호로 지정된 「慶州 祇林寺 塑造毗盧遮那佛 腹藏典籍」 가운데 하나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四之七과 동일한 판본으로 그곳에 기록된 元 武宗 至大 2年(1309, 忠宣王 1, 己酉)에 쓴 誌文을 통하여 고려 忠宣王 1年(1309)에 간행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기 지정된 책은 高麗의 楮紙에 인쇄되어 있고 胡蝶裝本이라면, 조사본은 元나라의 竹紙에 印刷되었고 線裝本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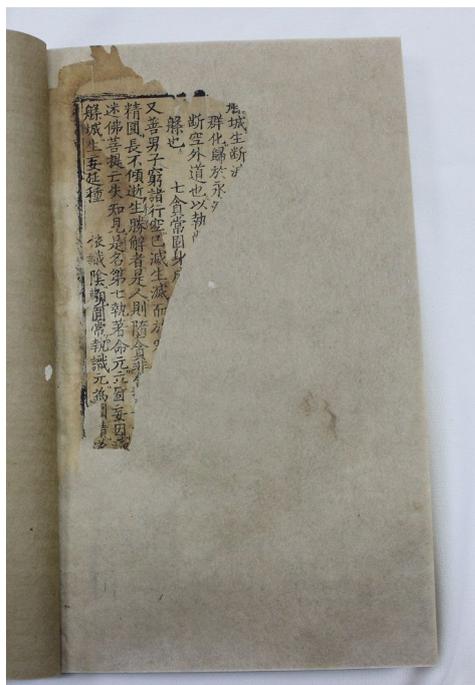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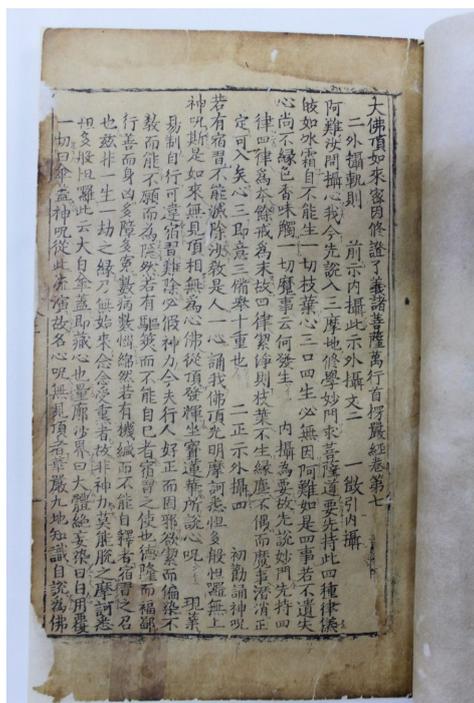
首楞嚴經了解 序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1 末/卷2 首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2 末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7 首/卷10 末

한편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吐가 기입되어 있어서 주목된다. 구결은 한문의 학습이나 독해의 수단으로 한문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吐로 표시해 놓은 것인데, 조사본에 기입되어 있는 口訣은 고려시대 말기부터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口訣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 지정사례

보물 제959-2-2호 「慶州 祇林寺 塑造毗盧遮那佛 腹藏典籍-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卷四之七, 卷八之九」

### ○ 문헌자료

남풍현, 「朴東燮本 능엄경의 解題」, 『구결자료집』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書誌記述 :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密帝(?~?, 唐) 漢譯 ; 戒環(?~?, 宋) 解.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者)不明], [高麗忠宣王 1(1309) 推定].

10卷2冊 : 四周雙邊, 半郭 19.4×12.3cm, 有界, 半郭 15行30字, 無魚尾 ; 24.0×14.0cm. 中國紙. 線裝(改裝).

題簽題: 首楞嚴要解上·下

卷頭題: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版心題: 楞嚴

狀 態: 品質이 좋지 못한 中國紙에 印刷된 까닭에 毀損이 심하여 1990년대 全張을 裱接하여 2冊으로 裝冊하였다 한다. 全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伝來歷: 1997년경에 現 所藏者가 원래 慶北 安東市의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씨의 所藏本을 現 所藏者의 중요한 연구의 자료였으므로 現 所藏者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한 것이라 한다.

既指定: 보물 제959-2-2호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現狀 :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1997년경에 현 所藏者가 원래 慶北 安東市의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의 所藏本을 현 소장자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까지 현 所藏者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현재 상태는 品質이 좋지 못한 中國紙에 印刷된 까닭에 毀損이 심하여 1990년대 全張을 繕接하여 2冊으로 裝冊하였다 한다. 全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차후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家나 繕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朝 中宗 원(705)년에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쉽게 풀이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楞嚴經」은 密敎部에 수록되어 있으며 印度의 바깥으로 流通되지 못하게 하라는 王의 嚴命이 있어 唐朝 이전까지는 中國에 전해지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中國에서 많이 加筆되어 거의 中國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楞嚴經」의 내용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菩提心을 얻게 되고 眞正한 境地를 體得한다’고 보아 中國 禪家의 實踐道와 近접하며 密敎적인 색채가 짙다.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佛陀의 제자인 阿難陀(?~?)가 摩登伽가 여인의 呪術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석가)께서 神通력으로 구해낸다. 그리고서 禪定의 힘과 「白傘蓋陀羅尼」의 功德力을 찬양하며, 이 陀羅尼에 의해 모든 魔鬼障을 물리치고 禪定에 前念하여 如來의 眞實한 境地를 얻어 生死의 苦惱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목적임을 밝혔다. 따라서 「楞嚴經」은 密敎思想이 가미되기는 하였지만 禪定이 역설되고 있기 때문에 密敎 쪽보다는 禪家에서 환영을 받아 中國에서의 註釋家들은 모두 禪門의 비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高麗時代 中期의 閑庵 普幻(?~?)의 「首楞嚴經環解刪補記」는 宋朝 戒環(?~?)의 「首楞嚴經要解」의 잘못된 곳을 고쳐 刪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楞嚴經」은 한국 불교 根本經典의 하나로 ‘小華嚴經’이라 불리며 널리 讀誦되

고 있으며, 僧侶들이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經典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만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體得하여 자신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사상으로 하고 있어, 「金剛經」·「圓覺經」·「大乘起信論」 등과 함께 조선시대 승려들이 수행과정에서 배우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원(1309)년에 刊行된 木板小字本の 版本으로 推定된다. 調査本은 卷末이 缺落되어 刊行의 記錄을 알 수 없으나,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중의 하나인 보물 제 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대비할 때 동일한 版本이다. 그것은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권10의 卷末에는 “旧本은 글자가 커서 修行僧이 携帶하고 다니기가 不便하여 僧統 仲昱 등이 國大夫人 鄭氏와 함께 발원하고 글씨를 가늘게 써서 새겨 200부를 인쇄하여 널리 베푼다”는 元朝 武宗 至大 2(1309, 충선왕 1, 己酉)년에 쓴 誌文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도 高麗 忠宣王 원(1309)년에 간행된 版本으로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口訣은 漢文의 學習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독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吐가 기입되어 있어서 그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高麗時代 末期부터 朝鮮時代 初期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종의 口訣이 전하는데 調査本에 기입되어 있는 口訣은 가장 이른 시기의 口訣이라는 研究結果가 수차례에 걸쳐 學界에 報告·評価된 바 있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大文과 註文의 글자는 크기가 같으나, 註文은 大文의 末字에서 2字정도 띄우고 시작하여 行이 바뀌면 大文보다 1字 내려서 썼다. 書籍의 分量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이러한 방식은 調査本이 嚆矢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의 楮紙에 인쇄되어 있는 반면에 調査本대나무(竹)를 主原料로 製作된 元朝의 竹紙에 印刷되어 있다. 또한 調査本은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板刻된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佛敎學과 書誌學의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특히 漢文의 學習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助辭나 魚尾 또는 讀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 더욱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나 楷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 지정사례

調査本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동일한 판본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959-2-2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高麗 忠宣王 원(1309)년.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

## ○ 문헌자료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口訣資料集 1: 高麗時代 楞嚴經. (韓國學資料叢書: 6).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記述 :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般刺密帝(?~?, 唐) 漢譯 ; 戒環(?~?, 宋) 解. -- 木板本(小字本). -- [刊行地不明] : [刊行處(者)不明], [高麗忠宣王 1(1309) 推定].

10卷2冊 : 四周雙邊, 半郭 19.4×12.3cm, 有界, 15行30字, 無魚尾 ; 24.0×14.0cm. 中國紙. 線裝(改裝).

題簽題: 首楞嚴要解上·下

卷頭題: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版心題: 楞嚴

狀 態: 낮은 品質의 中國紙에 인쇄된 까닭에 毀損이 심하여 1990년대에 전체를 補接해서 2冊으로 裝冊함. 全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음.

所 藏: 南豊鉉(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傳來歷: 원래 慶北 安東市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씨의 소장본이었는데 現 소장자의 중요한 연구 자료였으므로, 1997년경에 現 소장자가 소장

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한 것이라 함.

既定: 보물 제959-2-2호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 現狀 :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원래 慶北 安東市의 慶北教育研究院에 근무하던 故 朴東燮의 소장본이었는데, 1997년경에 현 소장자가 소장하던 다른 古書와 交換·引受하여 현재까지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현재 상태는 낮은 品質의 중국종이에 인쇄된 까닭에 훼손이 심하며, 1990년대에 전체를 補接하여 2冊으로 裝冊하였다. 총 10卷 170여장 중에서 145장 정도가 남아 있으며 제1권 제2장, 제2권 제18장, 제4권 제18~19장, 제5권 제3~4장, 제7~13장, 제6권 제1~2장, 제7권 제16장 이후, 제8권 제1장, 제10권 제8장 이후 등의 20여장 이상이 落張 또는 훼손된 상태이며, 부분적으로 損傷된 곳도 있다. 차후 紙類文化財保存處理 專門家나 補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唐나라 中宗 神龍 1(705)년에 般刺密帝(?~?)가 漢譯하고 宋朝의 戒環(?~?)이 쉽게 풀이한 密敎思想과 禪宗思想을 실한 大乘經典으로 「大佛頂首楞嚴經」·「首楞嚴經」·「楞嚴經」이라고도 한다. 「楞嚴經」은 密敎部에 수록되어 있으며 印度 이외의 나라에는 전하지 말라는 王의 엄명이 있어 唐나라 이전까지는 중국에 전래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아 중국에서 후대에 찬술된 僞經이라는 설도 있다.

「楞嚴經」의 내용은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菩提心을 얻게 되고 眞正한 경지를 체득한다’고 보아 중국 禪家의 實踐道와 근접하며 密敎적인 색채가 짙다.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佛陀의 제자인 阿難陀(?~?)가 摩登伽라는 여인의 呪術에 의해 마귀도에 떨어지려는 것을 부처(석가)께서 神通력으로 구해낸다. 그리고 禪定의 힘과 「白傘蓋陀羅尼」의 功德力을 찬양하며, 이 陀羅尼에 의해 모든 魔鬼障을 물리치고 禪定에 전념하여 如來의 眞實한 경지를 얻어 생사의 고뇌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후의 목적임을 밝혔다. 따라서 「楞嚴經」은 密敎思想이 가미되기는 하였지만 禪定이 역설되고 있기 때문에 밀교 쪽보다는 禪家에서 환영을 받아 중국에서의 주석가들은 모두 禪門의 비구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楞嚴經」은 한국 불교 근본 경전의 하나로 ‘小華嚴經’이라 불리며 널리 讀誦되고 있으며, 僧侶들이 수련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만으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체득하여 자신의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사상으로 하고 있어, 「金剛經」·「圓覺經」·「大乘起信論」 등과

함께 조선시대 승려들이 수행과정에서 배우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 忠宣王 1(1309)년에 刊行된 木版 小字本의 판본으로 추정된다. 조사본은 卷末이 결락되어 刊記를 알 수 없으나,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 腹藏典籍 중의 하나인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동일한 판본이다.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권10의 卷末에는 “舊本은 글자가 커서 修行僧이 휴대하고 다니기가 불편하여 僧統 仲昱 등이 國大夫人 鄭氏와 함께 발원하고 글씨를 가늘게 써서 새겨 200부를 인쇄하여 널리 베푼다”는 元 武宗 至大 2(1309, 충선왕 1, 己酉)년에 쓴 誌文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도 高麗 忠宣王 1 (1309)년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口訣은 漢文의 학습이나 讀解의 수단으로 漢文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읽는 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順讀口訣의 吐가 기입되어 있어서 이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高麗時代 末期부터 朝鮮時代 初期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3종의 口訣이 전하는데 조사본에 기입되어 있는 口訣은 가장 이른 시기의 口訣이라고 평가되며, 그 연구결과가 학계에 報告된 바 있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의 大文과 註文의 글자는 크기가 같으나, 註文은 大文의 끝 글자에서 2字정도 띄우고 시작하여 行이 바뀌면 大文보다 1字 내려서 썼다. 서적의 分量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이러한 방식은 조사본이 효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 지정된 보물 제959-2-2호의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高麗의 楮紙에 인쇄되어 있는 반면에 조사본은 대나무(竹)를 主原料로 製作된 元나라의 竹紙에 印刷되어 있다. 또한 조사본은 字劃이 분명하고 墨色도 선명하고 좋은 점으로 미루어 판각 직후에 印出된 初印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은 불교학과 書誌學 研究에 귀중한 자료일 뿐 아니라, 漢文의 학습 및 독해의 수단으로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읽는 법을 따로 표시해 놓은 口訣研究에 있어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다만 훼손상태가 심하여 차후 紙類文化財 보존처리전문가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 지정사례

조사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과 동일한 판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959-2-2호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高麗 忠宣王 원(1309)년. 慶州祇林寺毗盧遮那佛腹藏典籍.

○ 문헌자료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口訣資料集 1: 高麗時代 楞嚴經. (韓國學資料叢書: 6). 성남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5.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7. 유가사지론 권20(瑜伽師地論 卷二十)

### 가. 검토사항

‘유가사지론 권20’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유가사지론 권20’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13.10.28)이 있어 관계전문가의 조사(’15.3.6)를 실시하였음
- 이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유가사지론 권20(瑜伽師地論 卷二十)
- 소유자(관리자): 남\*\*
-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 수 량: 1권1축
- 규격(cm): 전장(匡) 세로 31.9(22.3) × 가로 1500.4(48.4)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목판본(木版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1246년(고려 고종33) 판각, 13~14세기경 후인(後印) 추정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의 玄奘이 한역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고려 고종33년(1246, 丙午)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재조대장경의 판본으로,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장정한 後印本으로 추정된다.

조사본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결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

기경에 印出해낸 고려 재조대장경의 판본으로서 중요하며, 특히 各張 各行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瑜伽師地論」은 인도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朝의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으로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修行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實踐法을 논한 것이라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朝의 玄奘이 漢譯한 100권 중의 제20권으로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版本이다. 調査本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缺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版本으로 佛敎學 및 大藏經研究에는 물론 各張 各行의 左右에 釋讀口訣이 筆寫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版本學研究 및 書誌學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調査本 「瑜伽師地論」은 國家文化財로 指定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價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나 裱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瑜伽師地論」은 5세기경 인도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 玄奘(602~ 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으로 瑜伽行을 닦는 修行者의 깨달음에 이르는 實踐法인 17地를 밝힌 내용을 논한 것이라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玄奘이 漢譯한 100권 중의 제20권으로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版本이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缺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版本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佛敎學 및 大藏經研究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各張 各行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研究하고 保存·管理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물로 지정예고함.
  - 명칭은 “재조본 유가사지론 권20”으로 함.

### 조사보고서

## □

### 書誌事項

瑜伽師地論. 卷20 / 彌勒菩薩(?~?, 5世紀頃) 著 ; 玄奘(602~664, 唐) 漢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年 板刻, 13~14世紀頃 後印 推定].

1卷1軸 : 上下單邊, 全匡 22.3×48.4cm, 無界, 全葉 23行14字, 無魚尾 ; 全張 32.1×1500.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瑜伽師地論

板尾題: 瑜伽師地論

板尾: 每板尾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張 習’라 있음.

刊記: 卷末 ‘瑜伽師地論 卷第二十 /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卷尾: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三十二張 習

## ○ 현 상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1993년경 소장자 南豊鉉 教授가 古書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장자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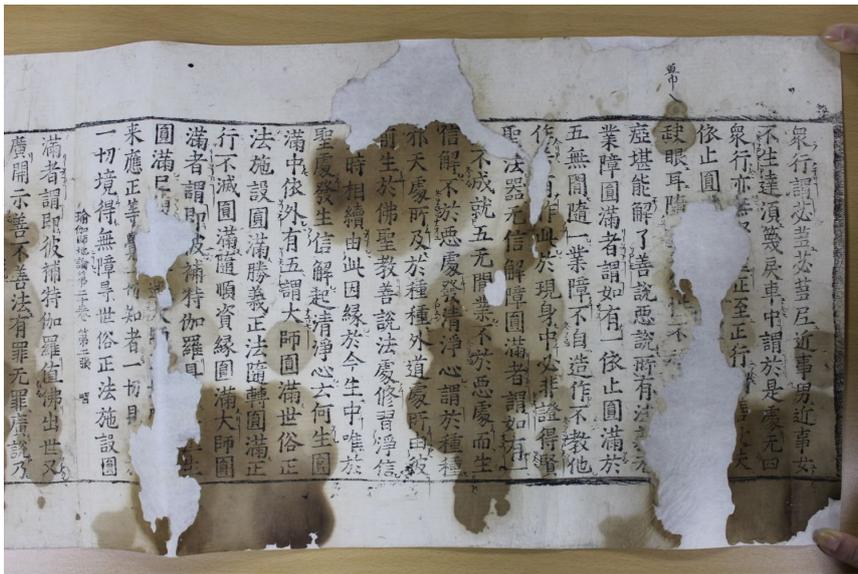
조사본은 현재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나 나머지 29장은 완전하며,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전체에 남아있는 상태이다.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세척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배접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은 새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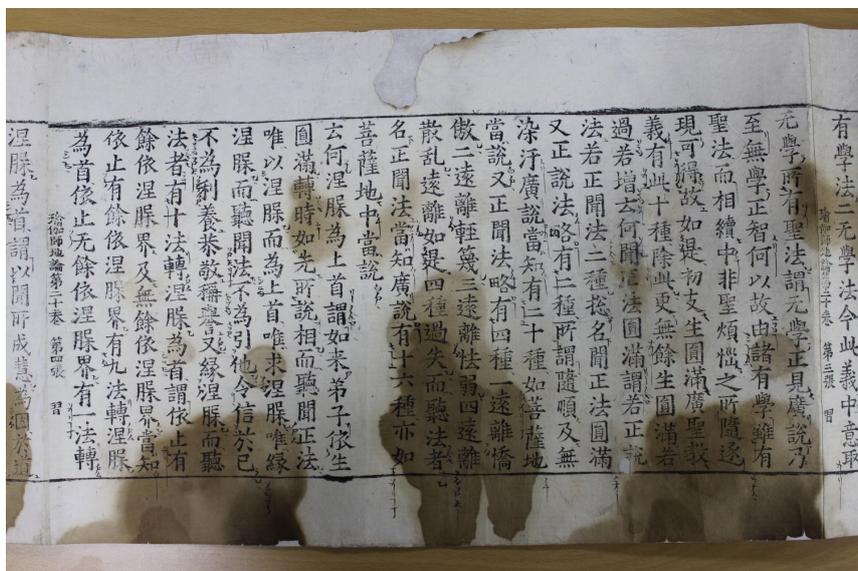
「瑜伽師地論」은 5세기경 인도의 論師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이다. 이 경전은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수행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전체를 本地分, 攝結擇分, 攝釋分, 攝異門分, 攝事分 등의 5분으로

나누어 17地를 논술하고 있어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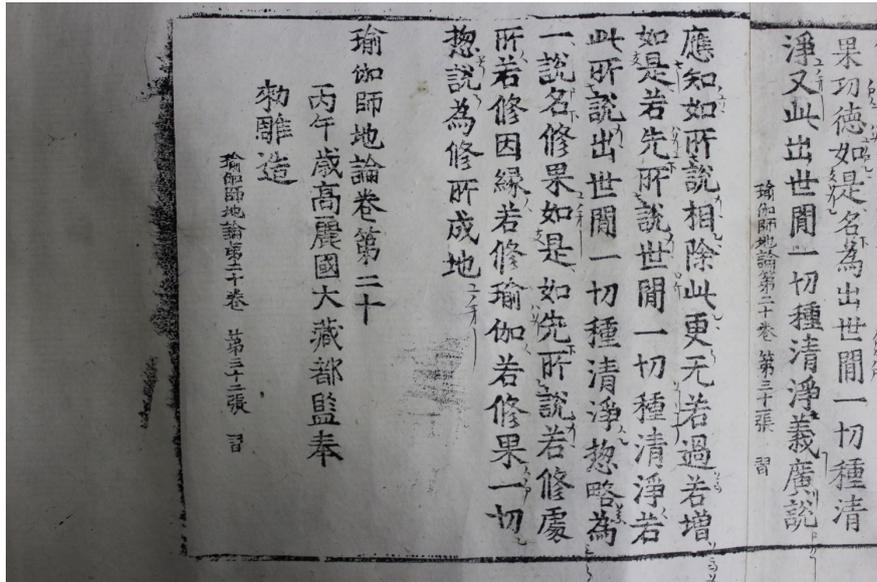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의 玄奘이 한역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고려 고종33년(1246, 丙午)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재조대장경의 판본으로, 조사본은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장정한 後印本으로 추정된다. 板式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이 없으며 行字數는 23行14字이다. 板尾에는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 등으로 經名·卷次·張次 그리고 函次 등이 새겨져 있다.



유가사지론 권20 제2장



유가사지론 권20 제4장



유가사지론 권20 제32장 권말 간기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각 장 전체에 걸쳐 각 행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는 국어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이해되고 있다.

○ 지정사례

- 보물 제 969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64(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 972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55(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1658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42(원각사)

○ 문헌자료

- 남풍현, 「고려본 유가사지론의 석독구결에 대하여」, 『동방학지』 81, 1993.  
 남풍현, 『유가사지론 석독구결의 연구』, 태학사, 1999.



■ 書誌記述 : 調査本 「瑜伽師地論」 卷20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瑜伽師地論. 卷20 / 彌勒菩薩(?~?, 5世紀頃) 著 ; 玄奘(602~664, 唐) 漢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年 板刻, 13~14世紀頃 後印 推定].

1卷1軸 : 上下單邊, 全匡 22.3×48.4cm, 無界, 全葉 23行14字, 無魚尾 ; 全張 32.1×1500.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瑜伽師地論

板尾題: 瑜伽師地論

板尾: 每板尾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張 習’라 있음.

刊記: 卷末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 있다.

狀態: 전체가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있고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하다.

保存歷: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褙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이 제작하였다 한다.

伝來歷: 1993년경 所藏者가 古書 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하였다 한다.

既指定: 보물 제1658호(卷42), 보물 제972호(卷55), 보물 제969호(卷64).

■ 現狀 :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1993년경 所藏者 南豊鉉 教授가 古書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所藏者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의 현재 상태는 전체가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남아있고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하다.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褙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 제작하였다 한다. 차후 紙類文化財 保存處理專門家나 褙貼匠 등에 의한 再裝訂이 요구된다.

## ○ 내용 및 특징

「瑜伽師地論」은 인도의 論師 彌勒菩薩(5世紀頃)의 저술을 唐朝의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이다. 역사상 實存人物로서의 彌勒은 인도 大乘佛敎 2大學派 중의 하나인 瑜伽行派의 始祖로, 大乘初期 「般若經」 이래의 空思想에 기초하여 「海深密經」 등에 의한 唯識學說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瑜伽師地論」은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修行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實踐法을 논한 것이라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전체를 本地分, 攝結擇分, 攝釋分, 攝異門分, 攝事分 등의 5분으로 나누어 17地를 논술하고 있다. 本地分(제1~50권)은 聲門·獨覺·菩薩 등 三乘을 거쳐 佛位에 이르는 根本十七地를 分別하고 있으며, 攝結擇分(제51~80권)은 17地의 要義를 문답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攝釋分(제81~82권)은 여러 가지 偈·經에 있는 體·釋·師·說·衆·聽·讚佛 등의 儀側을 해석하고 있고 攝異門分(제83~84권)은 偈·經 중에 있는 諸法의 三毒·布施·持戒 등의 名義와 差別을 해석하고 있으며, 攝事分(제85~100권)은 經藏·論藏·律藏 등 三藏 중의 要意를 略攝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朝의 玄奘이 漢譯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版本이며, 調査本은 再雕大藏經의 木板으로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裝訂한 後印本이다. 板式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이 없으며 行字數는 每張 23行14字이다. 板尾에는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으로 經名·卷次·張次 그리고 函次 등이 새겨져 있다.

調査本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缺落되고 第2~3張이 毀損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版本으로 佛敎學 및 大藏經 研究에는 물론 各張 各行의 左右에 釋讀口訣이 筆寫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나아가 版本學 및 書誌學 研究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 ○ 지정사례

調査本 「瑜伽師地論」과 同一한 版本의 再雕本 「瑜伽師地論」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658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42. 원각사.
- 보물 제972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55.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969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64. 국립중앙박물관.

####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書誌記述 : 조사본 「瑜伽師地論」 卷20의 書誌記述은 다음과 같다.

瑜伽師地論. 卷20 / 彌勒菩薩(?~?, 5世紀頃) 著 ; 玄奘(602~664, 唐) 漢譯. -- 木板本. -- [刊行地不明] : [大藏都監], [高麗 高宗 33(1246)年 板刻, 13~14世紀頃 後印 推定].

1卷1軸 : 上下單邊, 全匡 22.3×48.4cm, 無界, 全葉 23行14字, 無魚尾 ; 全張 32.1×1500.4cm. 楮紙. 卷軸裝.

卷頭題: 瑜伽師地論

板尾題: 瑜伽師地論

板尾: 每板尾에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張 習’라 있음.

刊記: 卷末 ‘瑜伽師地論 卷第二十 /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

卷尾: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三十二張 習

狀態: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전체에 남아있고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함.

所藏: 南豊鉉(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709-3)

保存歷: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繕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이 제작함.

傳來歷: 1993년경 所藏者가 古書 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함.

既指定: 보물 제1658호(卷42), 보물 제972호(卷55), 보물 제969호(卷64).

■ 現狀 :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1993년경 소장자 南豊鉉 教授가 古書仲介人 故 최길동씨로 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장자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의 현재 상태는 漏濕으로 인한 자국이 전체에 남아있고 제1장은 탈락되고 2장은 훼손되어 30여자가 탈락되어 있으며 나머지 29장은 완전하다. 2013년 3월에 靖齋文化財保存研究所에서 洗滌을 하고 파손된 부분을 繕接하여 안정을 시키고 卷末의 軸棒을 새로 제작하였다 한다.

## ○ 내용 및 특징

「瑜伽師地論」은 5세기경 인도의 論師 彌勒菩薩의 저술을 唐 玄奘(602~664)이 100卷으로 漢譯한 論이다. 역사상 실존인물로서의 彌勒은 인도 大乘佛敎 2대학과 중의 하나인 瑜伽行派의 始祖로, 大乘初期 「般若經」 이래의 空思想에 기초하여 「海深密經」 등에 의한 唯識學說을 수립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瑜伽師地論」은 瑜伽行을 닦는 사람의 修行의 단계인 17地를 밝힌 내용으로, 전체를 本地分, 攝結擇分, 攝釋分, 攝異門分, 攝事分 등의 5분으로 나누어 17地를 논술하고 있어 ‘十七地論’이라고도 한다. 本地分(제1~50권)은 聲門·獨覺·菩薩 등 三乘을 거쳐 佛位에 이르는 根本十七地를 分別하고 있으며, 攝結擇分(제51~80권)은 17地의 要義를 문답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攝釋分(제81~82권)은 여러 가지 偈·經에 있는 體·釋·師·說·衆·聽·讚佛 등의 儀側을 해석하고 있고 攝異門分(제83~84권)은 偈·經 중에 있는 諸法의 三毒·布施·持戒 등의 名義와 差別을 해석하고 있으며, 攝事分(제85~100권)은 經藏·論藏·律藏 등 三藏 중의 要

意를 略攝하고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唐의 玄奘이 漢역한 100권 중의 제20권이다. 卷末의 “丙午歲(高麗 高宗 33, 1246)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라는 刊記로 볼 때 高麗 高宗 33(1246, 丙午)년에 大藏都監에서 板刻한 再雕大藏經의 판본이며, 조사본은 再雕大藏經의 木板으로 13~14세기경에 印出하여 卷子本으로 장정한 後印本으로 추정된다. 板式은 上下單邊이고 界線이 없으며 行字數는 23行14字이다. 板尾에는 ‘瑜伽師地論 第二十卷 第二張 習’ 등으로 經名·卷次·張次 그리고 函次 등이 새겨져 있다.

조사본 「瑜伽師地論」은 비록 卷首의 第1張이 결락되고 第2~3張이 훼손되어 있으나 13~14세기에 印出해낸 高麗 再雕大藏經의 판본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佛敎學 및 大藏經研究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특히 各張 各行의 좌우에 釋讀口訣이 필사되어 있어 國語史 研究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 ○ 지정사례

조사본 「瑜伽師地論」과 同一한 版本의 再雕本 「瑜伽師地論」이 國家文化財로 指定된 事例는 다음과 같다

- 보물 제1658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42. 원각사.
- 보물 제972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55.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969호. 再雕本 瑜伽師地論 卷64. 국립중앙박물관.

#### ○ 문헌자료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文化財 指定申請書.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서울特別市 文化財委員會 編, 國家指定申請文化財 調査報告書 (신승운·오용섭·박상국의 조사보고서). 서울 : 서울特別市, 2013.
- 국가기록유산(<http://www.memorykorea.go.kr/>)

## 8. 조선왕조의궤(분상/비유일/완질/활자, 분상/비유일/비완질)

### 가. 검토사항

‘조선왕조의궤’의 보물 지정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안사유

- '07년 6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이래, 국민적 관심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조사('11~'13)를 실시함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조선왕조의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신청 대상목록』 작성팀을 구성하여 어람용과 분상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관계전문가의 자문회의를 통해 분상용에 대한 검토('15.10.01) 함
- 위 사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의 가치가 있다고 검토되면 지정예고(30일간) 하려는 것임

### 다. 주요내용

- 지정현황: 비지정
- 명 칭: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有, 無) 활자본,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有) 필사본,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有)활자본,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無) 필사본,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無) 활자본, 고본, 전사본, 용도미상본]
- 소유자(관리자):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경상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 충남대학교,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 소재지: 목록 참조
- 수 량: 총 430건 1,352책

- 재 질: 저지(楮紙)
- 판 종: 필사본(筆寫本), 활자본(活字本)
- 형 식: 선장본(線裝本)
- 제작연대: 조선후기

## 라. 조사자 검토 의견

○

국왕이 수행하는 국정 가운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국가 행사나 사업을 대상으로 제작되었던 의궤는, 행사나 사업의 내역 일체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공개함으로써 철저했던 조선시대 기록정신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즉, 행사나 사업 기간 중에 국왕이 내린 명령서, 업무를 분장한 관청 간에 오간 공문서, 업무의 분장 상황, 업무 담당자의 명단, 행사 또는 공사에 동원된 인원, 소요 물품, 경비의 지출 내역, 유공자에 대한 포상 상황이 모두 기록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거나 탄 곳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본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무) 활자본 의궤 215건 973책,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 의궤 73건 110책,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유) 활자본 의궤 6건 26책,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무) 필사본 의궤 42건 51책,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무) 활자본 의궤 75건 167책, 기타 고본 의궤 15건 19책, 전사본 의궤 1건 1책, 용도 미상본 의궤 3건 5책으로 총 430건 1,356책은 향후 관련분야의 연구에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귀중한 자료이다.

따라서 조사본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무) 활자본 의궤 외 7건 총 430건 1,352책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보존·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상처가 없는 활자본 의궤 등 복본이 많은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 의궤,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무) 필사본 의궤, 기타 고본 의궤, 전사본 의궤 등은 기 조사한 어람용 및 예람용 의궤 및 다른 일반의궤와 함께 검토한 후 일괄 지정할 필요가 있다.

## 마. 의결사항

- 보류 : 일괄 검토 필요

조사보고서



### ○ 현 상

조사본 『조선왕조의궤(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는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다. 조사본 『조선왕조의궤(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유) 필사본)』의 현재 상태는 거의 대부분 양호한 편이며 일부 표지는 후대에 개장되었다.

### 조사결과

○ 수량 :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有, 無) 활자본』 215건 977책,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有) 필사본』 73건 110책,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有) 활자본』 6건 26책, 『조선왕조의궤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無) 필사본 42건 51책,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無) 활자본 75건 167책, 고본 15건 19책, 전사본 1건 1책, 용도미상본 3건 5책』 총 430건 1,352책

### ○ 상세현황

-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有, 無) 활자본 의궤 : 215건 973책
  - 규장각 :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150건 660책
  - 장서각 : 『華城城役儀軌』 등 19건 85책
  - 계명대학교 : 『慈慶殿進爵整禮儀軌』 1건 1책
  - 고려대학교 : 『[壬寅]進宴儀軌』 등 7건 38책
  - 국립고궁박물관 :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10건 49책
  - 국립중앙도서관 : 『華成城役儀軌』 등 6건 34책
  - 국립중앙박물관 : 『華城城役儀軌』 등 3건 17책
  - 동국대학교 : 『[高宗辛丑]進宴儀軌』 1건 4책
  - 서울역사박물관 : 『華城城役儀軌』 1건 9책
  - 성균관대학교 : 『華城城役儀軌』 등 2건 13책
  - 연세대학교 : 『[丁亥]進饌儀軌』 등 8건 41책
  - 전남대학교 : 『[純祖己丑] 進饌儀軌』 1건 4책
  - 조선대학교 : 『[高宗丁亥]進饌儀軌』 2건 8책
  - 충남대학교 : 『[純祖 戊子] 進爵儀軌』 등 2건 6책

-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 『[高宗 壬辰]進饌儀軌』 등 2건 8책
-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有) 필사본 : 73건 110책
  - 규장각 : 『國葬都監都廳儀軌』 등 66건 103책
  - 장서각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등 7건 7책
-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有)활자본 : 6건 26책
  - 규장각 :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2건 14책
  - 장서각 :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4건 12책
-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無) 필사본 : 42건 51책
  - 규장각 : 『推刷都監儀軌』 등 32건 39책
  - 장서각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등 9건 11책
  - 국립중앙도서관 : 『[肇慶壇 濬慶墓 永慶墓]營建廳儀軌』 1건 1책
- 분상용 비유일본 비완질본 분상처(無) 활자본 : 75건 167책
  - 규장각 :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35건 82책
  - 장서각 :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8건 27책
  - 경상대학교 : 『[純祖己丑] 進饌儀軌』 등 1건 1책
  - 계명대학교 : 『[高宗壬辰]進饌儀軌』 등 2건 2책
  - 고려대학교 : 『[辛丑]進饌儀軌』 등 8건 12책
  - 국립중앙도서관 : 『園幸乙卯整理儀軌』 등 5건 11책
  - 단국대학교 : 『[高宗壬寅]進宴儀軌』 2건 4책
  - 서울역사박물관 : 『[純祖戊子]進爵儀軌』 등 4건 5책
  - 성균관대학교 : 『園幸乙卯整理儀軌』 1건 1책
  - 연세대학교 : 『華城城役儀軌』 등 5건 14책
  - 오륜대 순교자박물관 : 『[高宗 辛丑]進宴儀軌』 등 2건 4책
  - 이화여자대학교 : 『華城城役儀軌』 등 2건 4책
- 고본 : 15건 19책
  - 장서각 : 『[英祖·貞純王后]嘉禮都監儀軌』 등 15건 19책
- 전사본 : 1건 1책
  - 국립중앙도서관 : 『王子阿只氏安胎儀軌』 1건 1책
- 용도 미상본 : 3건 5책
  - 장서각 : 『[淸瑾縣主]嘉禮儀軌』 등 3건 5책

## ○ 내용 및 특징

조선시대 의궤는 태조 때 최초로 편찬하기 시작하여(『세종실록』 권55, 세종 14년 3월 癸亥條에 정도전, 권근 등이 찬수한 종묘 제사 때의 춤에 관한 의궤와 『성종실록』 권172, 성종 15년 11월 丁亥條에 태조4년 경복궁 창건시 그 건설과정을 기록한 『景福宮造成儀軌』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조선전기의 의궤들은 임진왜란 때 대부분 소실되어 남아있지 않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제작한 것이다.

조사대상이 된 의궤는 의궤 중 현재까지 비유일본이면서 완질이며 분상처가 있는 것과 미상인 것의 활자본으로 여겨지는 의궤 215건 973책과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있는 필사본 73건 110책,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있는 활자본 6건 26책,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미상인 필사본 42건 51책,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미상인 활자본 75건 167책, 기타 고본 15건 19책, 전사본 1건 1책, 용도 미상본 3건 5책으로 총 430건 1,356책이다. 이 중에 효종 8년(1657) 10월에 작성된 규장각 소장의 『推刷都監儀軌』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며, 광무6년(1913) 8월에 작성된 장서각 소장의 『[光武壬寅]進宴儀軌』가 가장 후대의 것이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 행사는 왕실의 혼인을 비롯하여 왕과 왕세자의 책봉, 왕실의 장례, 제사, 궁중 잔치, 활쏘기, 胎의 봉안, 국왕의 행차, 궁궐 건축, 親農·親蠶 행사, 사신의 영접 등 국가나 왕실 행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행사의 과정을 날짜에 따라 기록한 각종 공문서를 비롯하여 업무의 분담, 담당자의 명단, 동원된 인원, 소요된 물품, 경비의 지출,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행사의 가장 중요한 행렬은 班次圖를 통해 표현했다. 이러한 내용의 체제는 시대나 의궤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도감의 관원명단을 적은 座目, 의궤의 진행과정을 적은 時日, 의궤의 주요장면이나 주요도구의 그림을 실은 圖式, 圖說, 업무시 오고간 문서들을 기록한 教旨, 上奏文, 인건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적은 財用, 물품을 제조한 각종 기술자의 명단인 工匠, 의궤 집행시 유공자 포상 내용을 적은 賞典 등의 형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의궤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조선만의 독특한 전통으로서 예법을 중시하고 기록을 철저히 보존하려는 조선시대의 우수한 기록문화 중 하나인 것이다.

조사본은 이 중에 비유일본이면서 완질이며 분상처가 있는 것과 미상인 것의 활자본으로 여겨지는 의궤 215건 977책과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있는 필사본 73건 110책,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있는 활자본 6건 26책,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미상인 필사본 42건 51책, 비유일본이면서 비완질이며 분상처가 미상인 활자본 75건 167책, 기타 고본 15건 19책, 전사

본 1건 1책, 용도 미상본 3건 5책으로 총 430건 1,356책이다. (각 의궤의 상세목록은 별첨목록 참조)

#### ○ 문헌자료

김문식, 신병주, 『조선 왕실기록문화의 꽃, 의궤』, 돌베개, 2005.

박정혜, 「의궤를 통해 본 조선시대의 화원」, 『美術史研究』 第9號(미술사연구회, 1995).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 해제집』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3-2005.

서울대 규장각. 『규장각소장 의궤목록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5.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신승운, 「조선왕조 의궤의 조사연구와 정리방안」, 『조선왕조 의궤의 번역현황과 과제』 발표자료집, 한국고전번역원, 2009.

심재우, 「조선왕조의궤의 현존상황과 보존방안」, 『조선왕조 기록문화의 꽃 의궤』 발표자료집, 문화재청, 2007.

옥영정, 「의궤의 서지학적 연구성과와 편찬 간행관련 기록의 활용」, 『조선왕조 의궤 현황과 전망』 국립중앙박물관 (2012.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소장의궤해제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200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의궤목록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07.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일지사, 2005.

분상용 비유일본 완질본 분상처(有,無) 활자본 의뢰 : 215건 973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장처	사진유/무	확인
1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공란→8 권	8	○	2-2898	정00241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조사카드 권책수에 의거 8권 으로 수정함.	장서각	이미지 <b>未</b> <b>제공</b>	소장처에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음. 동일본 가지정번호 334-11의거하여 최종시기 작성 제작건수를 조사카드의 기록에 따라 첨가
2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불분권	8	○	朝14523- 8	고박 00074	분상용	활자본	47	65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국립고궁박 물관	이미지 <b>未</b> <b>제공</b>	소장처에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음. 동일본 가지정번호 334-11의거하여 최종시기 작성 제작건수를 조사카드의 기록에 따라 첨가
3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공란→5 권	8	○	규14534	규00269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고박 카드에는 강화부로 소 장처가 나옴. 조사카드 권책수에 의거하여 공란에서 5권으로 수정, 동 일본과 권책수가 다름. (정리 자가 각각 달라서 권책수 세 는것이 다른것 같음) 조사카드에 의거하여 분상처 를 화성행궁으로 기재	규장각	이미지 <b>未</b> <b>제공</b>	소장처에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음. 동일본 가지정번호 334-11의거하여 최종시기 작성 조사카드에는 5권 (권수와 부편을 제외)되어 있으나 다른 규장각본은 제외된 것을 포함하여 10권으로 표기하므로 목록에는 권수와 부편을 모두 포함한 10권으로 표기 분상처가 334-5와 같아서 확인 필요. 조사카드에는 분상처를 참고한 부분이 없음.
4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10권	8	○	규14518	규00406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장각	이미지 <b>未</b> <b>제공</b>	소장처에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음. 동일본 가지정번호 334-11의거하여 최종시기 작성 제작건수를 조사카드의 기록에 따라 첨가
5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10권	8	○	규14524	규00410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조사카드에 의거하여 분상처 를 화성행궁으로 기재 (첫 장 뒷면에 '華城行宮'이라고 분 상처가 쓰여 있음.)	규장각	이미지 <b>未</b> <b>제공</b>	소장처에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음. 동일본 가지정번호 334-11의거하여 최종시기 작성 분상처가 334-3와 같아서 확인 필요. 조사카드에 분상처를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함. 제작건수를 조사카드의 기록에 따라 첨가
6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10권	8	○	규14527	규00413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장각	이미지 <b>未</b> <b>제공</b>	소장처에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음. 동일본 가지정번호 334-11의거하여 최종시기 작성 제작건수를 조사카드의 기록에 따라 첨가
7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10권	8	○	규14529	규00416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조사카드에 의거하여 분상처 를 화성행궁으로 기재 (첫 장 뒷면에 '華城行宮'이라고 분 상처가 쓰여 있음.)	규장각	이미지 <b>未</b> <b>제공</b>	소장처에서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음. 동일본 가지정번호 334-11의거하여 최종시기 작성 분상처가 334-3와 같아서 확인 필요. 조사카드에 분상처를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함. 제작건수를 조사카드의 기록에 따라 첨가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8	원행음묘정리의 계	1795	정조 19년		(1797-03-24) 2책 p72	8권	8	○	B-8A- 308	고대0006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참서각과 고대, 연대 는 8권 규장각은 10권으로 표기하는 데 통일이 필요함.	고려
9	원행음묘정리의 계	1795	정조 19년		(1797-03-24)	8권	8	○	만송 B8 A308	고대0007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고려
10	원행음묘정리의 계	1795	정조 19년		(1797-03-24)	8권	8	○	394.5 원 행을 1~8	연대0005	분상용	활자본	49	61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연세
11	원행음묘정리의 계	1795	정조 19년		(1797-03-24) 2책 p72	공란→ 10권	8	○	규14532	규00267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12	원행음묘정리의 계	1795	정조 19년		(1800-윤04- 17)	공란→ 10권	8	○	규14519	규00268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13	원행음묘정리의 계	1795	정조 19년		(1797-03-24) 2책 p72	10권	8	○	규14520	규00407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14	원행음묘정리의 계	1795	정조 19년		(1800-윤04- 17)	10권	8	○	규14521	규00408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5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800-윤04-17)	10권	8	○	규14525	규00411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16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2책 p72	공란→ 10권	8	○	규14526	규00412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2책이 2부 있음 -6책 결본	규
17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10권	8	○	규14533	규00420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18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797-03-24)	10권	8	○	규14531 의1	규00418	분상용	활자본	49	63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19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신수 20000	국립박물관0001	분상용	활자본	105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초사카드에서 의궤의 권책수가 12번 수량의 10권 9책과 20번 비고의 9권 9책으로 서로 다름. 통일이 필요함. (목록의 10권을 따름)	국립박물관
20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규14590	규00438	분상용	활자본	105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21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728.81 화 성성 1~4	연대0001	분상용	활자본	94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제공된 이미지에선는 사주 쌍번임.	연세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22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서 1886	역사박 0002	분상용	활자본	94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제공된 이미지에에는 글자수가 22자임.	서울 국립서
23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6권 3부 편	9	○	한 古朝 71-1	중도0007	분상용	활자본	106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다른 소장처와 다르게 책수는 같지만 권수를 다르게 표기함.	국립서
24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6권 3부 편	9	○	古 833-1	중도0008	분상용	활자본	106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국립서
25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2-3604	창00289	분상용	활자본	100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공격지 뒷면 주기: "園所齋室".	창
26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B-8 A- 309	고대0008	분상용	활자본	103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고려
27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규14593	규00442	분상용	활자본	105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규
28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801-09-18 '순조실록' 권3 1년(1801 신유) 9월 18일 임진 2번째기사	10권	9	○	B 13 MB- 1	성균관대 0001	분상용	활자본	98	무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성균
29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불분권	9	○	의74	미상	분상용	활자본	100	무		비유일본	-카드번호가 미상이라 검토하지 못함.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30	자경전진작정 례의궤	1827	순조 27년			3권	1	○	이귀 951.093 조총영 2	개명대 0001	분상용	활자본	52	무	제외	비유일본	-검토하지 못함.	계명
31	진찬의궤	1827	순조 27년			4권	4	○	394.4 진 찬의 정- 해-1-3	연대0011	분상용	활자본	71	11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제공된 이미지를 통해 사주 단범이 아닌 사주쌍변으로 변경	연세
32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1828-05-01) 2책 p142	4권	2	○	제319호	충남대 0001	분상용	활자본	92	8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충남
33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830-06-16) p164(pdf)	4권	4	○	2-2873	장00221	분상용	활자본	119 → 107	무→ 12	제작 6건 규장각, 춘추관, 예조, 태 백산, 오 대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장
34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830-06-16) 2책 p136	4권	4	○	古朝 29-2	중도0015	분상용	활자본	107	12		비유일본		국립 서
35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830-06-16)	4권	4	○	고 2F2 진 811	전남대 0001	분상용	활자본	107	12		비유일본		전남
36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830-06-16)	4권	4	○	규14369	규01375	분상용	활자본	106 → 107	13→ 12	제작 6건 규장각, 춘추관, 예조, 태 백산, 오 대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조사카드와 동일본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규
37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830-06-16) 2책 p139	4권	4	○	규14370	규01376	분상용	활자본	106 → 107	13→ 12	제작 6건 규장각, 춘추관, 예조, 태 백산, 오 대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조사카드와 동일본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38	진찬의궤	1848	현종 14년	윤4월 →공란	(1849-윤04- 22) p54 (pdf1)	4권	4	○	2-2874	장00222	분상용	활자본	64→ 58	무→ 7	제작 6권 규장각, 춘추관, 예조, 태 백산, 오 대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규 14372, 규 14373과 동일 본이나 년도가 다름(확인요 망) -규장각 설명에는 의궤는 1849년에 간행되어 진 것이 라고 기록 사진없음 장서각홈피 확인: 진찬의궤 (1권- 소장처 모름)	장
39	진찬의궤	1848	현종 14년	윤4월 →공란	(1849-윤04- 22)	4권	4	○	394.4 진 연의 무- 1-4	연대0009	분상용	활자본	58	7	제작 6권 규장각, 춘추관, 예조, 태 백산, 오 대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음 활자가 찍힌 끝부분에 진찬 의궤라고 되어있음 (권수, 1권)- 기록카드 6개서 중 한 곳으로 추정 제공된 이미지를 통해 사주 단번이 아닌 사주쌍변으로 변경	연세
40	진찬의궤	1848	현종 14년	윤4월 →공란	(1849-윤04- 22) 2책 p22	4권	4	○	제 1535 / 제305호	충남대 0002	분상용	활자본	58	7	미상	비유일본	소장번호가 정확하지 여부 (확인요망)- 정확함. 사진있음: 내제있음(권수)- 기록카드 조사카드와 동일본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충남
41	진찬의궤	1849	현종 15년	윤4월 →공란	(1849-윤04- 22) 2책 p25	4권	4	○	규14372	규14163	분상용	활자본	58	7	제작 동조 내입 1건, 내입 5건, 내입 20 건, 서고 3건, 규장 각, 4차 사고, 예 조 각 1 건, 진찬 당량 각 1 건	비유일본	규장각홈피 확인: 진찬의궤 사진없음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조사카드와 동일본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규
42	진찬의궤	1849	현종 15년	윤4월 →공란	(1849-윤04- 22)	4권	4	○	궤14373	궤14164	분상용	활자본	58	7	제작 동조 내입 1건, 내입 5건, 내입 20 건, 서고 3건, 규장 각, 4차 사고, 예 조 각 1 건, 진찬 당량 각 1 건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음 활자가 찍힌 끝부분에 진찬 의궤라고 되어 있음(권수)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조사카드와 동일본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궤
43	진찬의궤	1849	현종 15년	윤4월	(1849-윤04- 22)	4권	4	○	의81	미상	분상용	활자본	58	7		비유일본	조사카드가 없음 고궁박물관 소장: 사진이 있 음- 내제있음, 원질 확인함 (진찬의궤-권 수) 조사카드와 동일본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국립 물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44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p55(pdf1)	4권	4	○	2-2875	장00223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제작 7건 규장각, 시강원, 춘추관, 예조, 태 백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 정리자활자본	장
45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2책 p22	4권	4	○	古朝 29-3	중도0013	분상용	활자본	58	7	미상	비유일본		국립 서
46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朝 14377	고박 00065	분상용	활자본	58	7	미상	비유일본	동일본 가지정번호 504-16 의 판식주기사항에 따라 사 주단번을 사주쌍번으로 변경	국립 물
47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394.4 진 찬의 정- 1-4	연대0012	분상용	활자본	71	11	미상	비유일본	제공된 이미지를 통해 사주 단번이 아닌 사주쌍번으로 변경 도설과 반차도의 경우 동일 본들과 전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요망.	연세
48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394.4 진 찬의 정- 1-4	연대0013	분상용	활자본	58	7	미상	비유일본	제공된 이미지를 통해 사주 단번이 아닌 사주쌍번으로 변경 가지정번호 504-4,5의 소장 번호가 같으므로 확인요망 됨..	연세
49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401- 1~4	규00363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0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9- 1~4	규00364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51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8- 1~4	규00365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2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7- 1~4	규00366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3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6- 1~4	규00367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4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7- 1~4	규00368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5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5- 1~4	규00369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6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6- 1~4	규00370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57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2- 1~4	규00371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8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4- 1~4	규00372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59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2책 p24	4권	4	○	규14376- 1~4	규00373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조사카드와 동일한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규
60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1- 1~4	규00374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61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3- 1~4	규00375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62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0- 1~4	규00376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63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0- 1~4	규00377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64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9- 1~4	규00378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65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0- 1~4	규00379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66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1- 1~4	규00380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67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2- 1~4	규00381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68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3- 1~4	규00382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69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95- 1~4	규00360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70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79- 1~4	규00359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71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384- 1~4	규00361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72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78-09-30)	4권	4	○	규14402- 1~4	규00362	분상용	활자본	65→ 58	무→ 7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73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893-03-14) p178(pdf)	4권	4	○	2-2880-C	장00227	분상용	활자본	83→ 107	무→ 12		비유일본	- 정리자활자본 표제에 임진이라고 적혀있고 또 반차도 개수도 다른것으 로 모아 정축년 진찬의궤와 는 다른본임. 가지정번호 515-1, 537-1과 소장번호가 같고 끝에 영문만 다음 확인 이 필요.	장
74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2-2880- B4-1~4 → 2- 2880-B4	장00226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1	제작 7건 규장각, 시강원, 춘추관, 예조, 태 백신, 오 대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조사카드에 의거 소장번호 수정. 가지정번호 515-1, 537-1 과 소장번호가 같고 끝에 영 문만 다음 확인이 필요.	장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75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6- 1~4 (510)	규00510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76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p62 (pdf)	4권	4	○	2-2876	창00224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제작 건 수: 총7건 (奎章閣, 侍講院, 春秋館, 禮曹, 太 白山, 五 臺山, 赤 雲山城 [儀軌事 目' 중에 서])	비유일본		창
77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2책 p20	4권	4	○	古 6022-9	중도0011	분상용	활자본	11→ 71	69→ 11	미상	비유일본		국립 서
78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일산 古 159-19	중도0014	분상용	활자본	11→ 71	71→ 11	미상	비유일본		국립 서
79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朝14403	고박 00066	분상용	활자본	71	11	미상	비유일본		국립 물
80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 14414- 1~4	규00518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81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2책 p22	4권	4	○	奎14405- 1~4	규00498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82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1- 1~4	규00499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83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7- 1~4 (500)	규00500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84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6- 1~4	규00501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85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5- 1~4	규00502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86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4- 1~4	규00503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87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2- 1~4	규00504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88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0- 1~4	규00505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89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9- 1~4	규00506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0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8- 1~4	규00507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1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7- 1~4	규00508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2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08- 1~4	규00511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93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0- 1~4	규00512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4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1- 1~4	규00513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5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23- 1~4	규00514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6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2- 1~4	규00515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7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07- 1~4	규00516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98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3- 1~4	규00517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99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14415- 1~4	규00519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00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奎 14406- 1~4	규00497	분상용	활자본	82→ 71	무→ 11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01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4권	4	○	O/G.390. 9519 x 988	조선대 0001	분상용	활자본	71	11	미상	비유일본		조선
102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3권	3	○	가람古 642.4- J562b- v.1-3 (520)	규00520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다른 완질본의 1,2책이 1책 으로 합본되어 있고 도식이 모두 빠져있는 점이 다르며, 책의 크기도 동일 내용을 다 른 의궤들보다 작음	규
103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890-03-16)	3권	3	○	奎14404- 1~3	규00521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동일 내용의 다른 완질본 제1 ·2책이 1책으로 합본된 상태 이며, 도식은 빠져 있음	규
104	진찬도식	1889	고종 26년			불분권	1	○	만송 B7 A3B	고대0014	분상용	활자본	120	12		비유일본	내제없음: 표제에 있는 서명 도식(도설)만 모은 것	고려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05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p178(pdf1)	4권	4	○	2-2880A	장00233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제작 7건 규정각, 시강원, 춘추관, 예조, 태 예산, 적 상산성	비유일본	가지정번호 515-1, 537-1 과 소장번호가 같고 끝에 영 문만 다른 확인이 필요. 장서각소장 (2-2878A), (2- 2878B), (2-2879A), (2- 2879C), (2-2880A)과 동일 본.	장
106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p178(pdf1)	4권	4	○	2-2879-C	장00232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비유일본	가지정번호 537-2,3,4와 소 장번호가 같고 끝에 영문만 다름. 확인이 필요. 한국학학 술정보관에는 2-2879 (1,2,3)으로 영문이 아닌 숫 자로 표기됨. 장서각소장 (2-2878A), (2- 2878B), (2-2879A), (2- 2879C), (2-2880A)과 동일 본.	장
107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2-2879-A	장00230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비유일본		장
108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2-2879-B	장00231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비유일본	- 정리지활자본	장
109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1712~171 5	3→순박 00003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미상	비유일본		한국 박
110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6- 1~4	규00682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11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3책 p24	4권	4	○	奎14428- 1~4	규00683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12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44- 1~4	규00684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13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43- 1~4	규00685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14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42- 1~4	규00686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15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41- 1~4	규00687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16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40- 1~4	규00688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17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9- 1~4	규00689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18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8- 1~4 (690)	규00690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19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7- 1~4	규00691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20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4- 1~4	규00692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권(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21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3- 1~4	규00693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권(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22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2- 1~4	규00694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권(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23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1- 1~4	규00695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24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29- 1~4	규00696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존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가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25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奎14435- 1~4	규00697	분상용	활자본	119 → 109	무 →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기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해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장각
126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朝14430	고박 00067	분상용	활자본	109	10	의궤사목 에는 총 7 건(규장 각, 시강 원, 춘추 관, 예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이 제작되 었다고 기 록되어 있 으나, 현 전하는 의 궤의 수를 볼 때 추 기 제작이 있었던 것 으로 보인 다.	비유일본		국립 중앙 도서관
127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893-03-14)	4권	4	○	B 13 FB- 11	성균관대 0003	분상용	활자본	109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해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성균 관대
128	진연의궤	1901	광무 5 년		(1902-03-14) p163(pdf)	4권	4	○	2-2868	장00219	분상용	활자본	128 → 117	무 → 10	제작 8건 규장각, 시강원, 비서원, 장례원, 성축산성,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비유일본		장 서각

연번	서명	서기	광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29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66- 1~4 (920)	규00920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30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67- 1~4	규00921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31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68- 1~4	규00922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32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69- 1~4	규00923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33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0- 1~4	규00924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34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1- 1~4	규00925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35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2-1~4	규00926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00926
136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3-1~4	규00927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00927
137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4-1~4	규00928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00928
138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5-1~4	규00929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00929
139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6-1~4	규00930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00930
140	진연의궤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1712~1715→O/G 780. 915. 스978	0003→소 선대 0002	분상용	활자본	116	10	미상	비유일본	잘못된 이미지를 제공함. 진 연의궤가 아닌 정해진찬의궤 임. 소장번호와 카드번호 그리고 현소장처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수정함. 도설과 반차도의 전체 수가 동일본과 다르므로 동일본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남.	한국 박물관 선대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41	진연의계	1901	광무 5 년		(1902-03-14)	4권	4	○	1709-1711→D 392 진64 v.1~4	0006→동 국대 0001	분상용	활자본	127	10	미상	비유일본	소장번호와 카드번호 그리고 현소장처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수정함.  도설과 반차도의 전체 수가 동일본과 다르므로 동일본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둠.	한국 박물관 국대
142	진연의계	1901	광무 5 년		(1902-03-14)	4권	4	○	1716-1719→朝 14463	0004→고 박00069	분상용	활자본	117	10	미상	비유일본	소장번호와 카드번호 그리고 현소장처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수정함.	한국 박물관 립고
143	진연의계	1901	광무 5 년		(1902-03-14)	4권	4	○	2-2870	장00220	분상용	활자본	128 → 117	무→ 10		비유일본	총8권(奎章閣, 待講院, 秘書院, 掌書院, 鼎足山城, 太白山, 五臺山, 赤雲山城, [附事項] 중에서.)	장
144	진연의계	1901	광무 5 년	무→7 월	(1902-03-14)	4권	4	○	394.4 진 연의	연대0006	분상용	활자본	117	10	미상	비유일본	제공된 이미지를 통해 사주 단번이 아닌 사주쌍번으로 변경	연세
145	진연의계	1901	광무 5 년		(1902-03-14)	3권	4	○	1533→奎 14478- 1~4	0001→규 00932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소장번호와 카드번호 그리고 현소장처가 잘못 입력되어 있어 수정함.	한국 박물관 장
146	진연의계	1901	광무 5 년		(1902-03-14) 3책 p21	4권	4	○	奎14464- 1~4	규00918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체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47	진연의계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65- 1~4	규00919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48	진연의계	1901	광무 5년		(1902-03-14)	4권	4	○	奎14477- 1~4	규00931	분상용	활자본	127 → 117	무→ 10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49	진찬의계	1901	광무 5년		(1902-02-09) p98(pdf1)	4권	4	○	2-2881	창00234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제작 8건 규장각, 시강원, 비서원, 장례원, 정족산성,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비유일본		창
150	진찬의계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2- 1~4	규00903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51	진찬의계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3- 1~4	규00904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52	진찬의계	1901	광무 5년		(1902 02 09)	4권	4	○	奎14454- 1~4	꺠00905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꺠

연번	서명	서기	광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53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5-1~4	규00906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54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6-1~4	규00907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55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7-1~4	규00908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56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8-1~4	규00909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57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9-1~4 (910)	규00910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58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61-1~4	규00912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59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朝14463	고박 00068	분상용	활자본	71	12	미상	비유일본		국립 중앙 도서관
160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62- 1~4	규00913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국립 중앙 도서관
161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2책 p96	4권	4	○	奎14446- 1~4	규00897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조사카드와 동일한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국립 중앙 도서관
162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47- 1~4	규00898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국립 중앙 도서관
163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48- 1~4	규00899	분상용	활자본	83→ 71	무→ 12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국립 중앙 도서관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64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394.4 진 찬의 신- 1-4	연대0010	분상용	활자본	58	7	미상	비유일본	융희4년 3월 내사 시종관이 동술 진찬의궤1건 (내사기 있음) "隆熙四年 三月 內 侍從官 李東述 進躡儀軌 一 件 令除謝恩 副提學 臣 劄 [着 押]"  제공되는 이미지를 통해 사 주단번이 아닌 사주쌍번으로 수정함.  도설과 반차도는 다른 본들 과 전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카드와 목록상에 있는 그대로 표기함.	연세
165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B7A32	고대0001	분상용	활자본	71	12	미상	비유일본	제공되는 이미지를 통해 사 주단번이 아닌 사주쌍번으로 수정함.  조사카드와 동일본 서명에 의거하여 서명을 수정	고려
166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49- 1~4 (900)	규00900	분상용	활자본	83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67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1- 1~4	규00902	분상용	활자본	83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68	진찬의궤	1901	광무 5년		(1902-02-09)	4권	4	○	奎14450- 1~4	규00901	분상용	활자본	83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69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0004→ 1716~171 9	미상→순 박00004	분상용	활자본	130	무	제작 8건 규장각, 시강원, 비서원, 장례원, 정축산상,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비유일본	조사카드에 의거하여 분상처 를 미상으로 수정하였다.	공란- 대 한 자백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70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499- 1~4	규00971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1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0- 1~4	규00972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MF필름 - M/F82-16- 314-A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 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 카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2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1- 1~4	규00973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3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2- 1~4	규00974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4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3- 1~4	규00975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5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4- 1~4	규00976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광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76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5- 1~4	규00977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7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6- 1~4	규00978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8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 14507- 1~4	규00979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79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8- 1~4	규00980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80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09- 1~4	규00981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81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10- 1~4	규00982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82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11- 1~4	규00983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83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12- 1~4	규00984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84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13- 1~4	규00985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85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14- 1~4	규00986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3,4책의 크기가 다름 (34.8× 23.1cm)	규
186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奎14515- 1~4	규00987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87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想白古 951.054- J773j- 1~4	규00988	분상용	활자본	127	무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88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2-10) p154(pdf1)	4권	4	○	2-2869- B4-1~4	장00216	분상용	활자본	133 → 123	무→ 10	총8건(奎章閣, 侍講院, 秘書院, 掌隸院, 鼎足山城, 太白山, 五臺山, 赤雲山城, [卷2 節目儀軌事目'중에서])	비유일본	이미지 확인을 통해 가지침 번호 560-16과 동일본으로 560번계열과 동일본으로 변경해야함.	장
189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신수 19999	국립박물관0002	분상용	활자본	119	10	미상	비유일본		국립 물
190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신수7363	국립박물관0003	분상용	활자본	117	10	미상	비유일본	도설의 개수는 동일본과 다르지만 이미지 확인이 필요함.	국립 물
191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11월 →공란	(1903-08-27)	4권	4	○	朝14408	고박 00071	분상용	활자본	119	10	미상	비유일본	이미지는 없으나 동일본을 통해 사주단편이 아닌 사주 생편인것으로 보고 수정	국립 물
192	진연의궤	1902	고종 39년	11월 →공란	(1903-08-27) p125 (pdf2)	4권	4→3	○	2-2867	장00215	분상용	활자본	129 → 119	무→ 10	총8건(奎章閣, 侍講院, 秘書院, 掌隸院, 鼎足山城, 太白山, 五臺山, 赤雲山城, [卷2 節目儀軌事目'중에서])	비유일본	총 4책이 되어야 하나 이미지 상으로는 3책이며 2책이 빠져 있다. 1책은 권수와 권1이 있으며, 2~3책은 권2~권3이 있다. 조사카드에 의거하여 책이 섞인것으로 보임. (다시 확인필요)	장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93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월→ 공란	(1903-02-10) p154(pdf)	4권	4	○	2-2869- A4-1~4	장00217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제작 8건 규장각, 시강원, 비서원, 장례원, 정족산성,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성.	비유일본	조사카드의 서명에따라 서명 수정'	장
194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79- 1~4	규00953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95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2- 1~4	규00954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96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3- 1~4	규00955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97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4- 1~4	규00956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198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5- 1~4	규00957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199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6- 1~4	규00958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00	진연의궤	1902	광무 년 6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7- 1~4	규00959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중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201	진연의괘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8- 1~4 (960)	규00960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02	진연의괘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89- 1~4	규00961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03	진연의괘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8-27) p164 (pdf)	4권	4	○	2-2871- 4-1~3	장00218	분상용	활자본	129 → 119	무→ 10	미상	비유일본	이본 합질본(1~3책: 壬寅11 월본, 2책과 4책: 壬寅4월본) 임 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11월본과 4월본을 대조한 결 과 이본합질본이 아니며 임 인 11월본임. 따라서 559번 계열과 동일본계열로 변경해 야함. (실제 확인이 필요)	장
204	진연의괘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90- 1~4	규00962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05	진연의괘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91- 1~4	규00963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206	진연의계	1902	광무 년	6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92- 1~4	규00964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07	진연의계	1902	광무 년	6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93- 1~4	규00965	분상용	활자본	공란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08	진연의계	1902	광무 년	4월→ 공란	(1903-02-10) 3책 p22	4권	4	○	奎14494- 1~4	규00966	분상용	활자본	133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09	진연의계	1902	광무 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95- 1~4	규00967	분상용	활자본	133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10	진연의계	1902	광무 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96- 1~4	규00968	분상용	활자본	133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211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奎14497- 1~4	규00969	분상용	활자본	133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현소
212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가람古 642.4- J563-1~4 (970)	규00970	분상용	활자본	133 → 123	무→ 10	미상	비유일본	목록과 조사카드의 권책수가 다름. 목록은 4권4책 조사카 드는 3권 4책으로 표기됨.	규
213	진연의궤	1902	광무 2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B-7 A-40	고대0009	분상용	활자본	123	10	미상	비유일본		고려
214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B7A40	고대0004	분상용	활자본	123	10	미상	비유일본	제공되는 이미지를 통해 사 주단번이 아닌 사주쌍번으로 수정함.	고려
215	진연의궤	1902	광무 6년	4월→ 공란	(1903-02-10)	4권	4	○	朝14481	고박 00070	분상용	활자본	123	10	미상	비유일본		국립 물

분상용 비유일본 미완결본 분상처(有) 필사본 : 73건110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	국장도감도청의궤	1659	현종 즉위년	11월		불분권	1	x	규14866	규00111	분상용	필사본	10	20	의정부		비유일본	-제외 -상책
2	천릉도감의궤	1673	현종 14년	10월		불분권	1	x	규15071	규00210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제작 5건 어람, 춘추 관, 의정부, 예조, 강화 부	비유일본	-제외 -元亨利貞 가운 -규15071, 규1 일본이라 나눔.
3	천릉도감도청의궤	1673	현종 14년	10월		불분권	1	x	규14885	규00212	분상용	필사본	22	무	의정부		비유일본	-제외 -리
4	천릉도감도청의궤	1673	현종 14년	10월		불분권	3	x	규13532	규00211	분상용	필사본	35	26	강화부 사고		비유일본	-제외 -元亨利貞가운
5	국장도감도청의궤	1674	현종 15년	6월		불분권	2	x	규13534	규00215	분상용	필사본	19	24	강화부 사고		비유일본	-제외 -3권 X

연번	서명	서기	월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6	국장도감도청 의궤	1701	숙종 27년	12월		불분권	1	x	규14864	규00290	분상용	필사본	41	무	의정부		비유일본	-1702년 숙종28 -上冊 缺 제외
7	금보개조도감 도청추부의궤	1705	숙종 31년	10월		불분권	1	x	규14209	규00297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예조		비유일본	
8	존송도감의궤	1713	숙종 39년	3월		불분권	1	x	규14900	규00304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비유일본	-上冊
9	국장도감도청 의궤	1720	경종 즉위년	10월		불분권	1	x	규14862	규00326	분상용	필사본	51	무	의정부		비유일본	-上冊 缺, 下冊 遺 수제 알 수 없음. 외
10	국장도감도청 의궤	1725	영조 1 년	1월		불분권	1	x	규14871	규00619	분상용	필사본	5	32	의정부		비유일본	-1724 영조 즉위 -下冊 缺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1	묘소도감의궤	1729	영조 5년	1월		불분권	1	x	규14835	규00639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비유일본	-上, 下冊 中 下冊
12	천릉도감도청의궤	1731	영조 7년	9월		불분권	1	x	규14886	규00652	분상용	필사본	6	60	의정부		비유일본	-규14886과 규14887 원질본은 아님) -전 7책 중 5책 缺 -서명 천릉도감도청
13	천릉도감도청의궤	1731	영조 7년	9월		불분권	5	x	규14887	규00653	분상용	필사본	17	무	의정부		비유일본	-서명 천릉도감도청
14	촌송도감의궤	1752	영조 28년	2월		불분권	1	x	규15073	규00776	분상용	필사본	12	8	의정부		비유일본	
15	촌송도감의궤	1752	영조 28년			불분권	1	x	규14901	규0077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비유일본	-규14901과 규14902 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6	상시봉원도감 의궤	1753	영조 29년	7월		불분권	1	x	규14926	규00783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비유일본	-규14925와 규14926(책)
17	상시봉원도감 의궤	1753	영조 29년			불분권	1	x	규14925	규00782	분상용	필사본	12	무	의정부		비유일본	-규14925와 규14926(책)
18	가상존호도감 의궤	1753	영조 29년	11월		불분권	1	x	규13270	규00784	분상용	필사본	1	무	오대산 사고		비유일본	-규13720(권상) 로 추정됨
19	가례도감도청 의궤	1759	영조 35년	6월		불분권	1	x	규13104	규01007	분상용	필사본	14	무	예조		비유일본	-下冊 -서명 이방의궤
20	가례도감의궤	1759	영조 35년	6월			1	x	2-2591	장00114	분상용	필사본	4	무	적삼산 사고		비유일본	-上冊,(2-4755) 장본)

연번	서명	서기	월	일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21	가례첨도첨의 계	1762	영조 38년	2월			1	x	2-2602	장00124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적상산 사고		비유일본	#N
22	상호도감의계	1772	영조 48년	10월		불분권	1	x	규13266	규01195	분상용	필사본	13	무	태백산 사고		비유일본	
23	상호도감의계	1772	영조 48년	10월		불분권	1	x	규13265	규01194	분상용	필사본	13	무	오대산 사고		비유일본	
24	상호도감의계	1772	영조 48년	6		불분권	1	x	2-2808	장00167	분상용	필사본	13	무	적상산 사고		비유일본	
25	촌호도감의계	1784	정조 8 년	7월		불분권	1	x	규13298	규01240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예조		비유일본	-영종대왕정성왕 전가삼촌호경무궁 추상촌호해경궁

연번	서명	서기	월	일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26	빈궁혼궁도감의궤	1786	정조	10년		불분권	1	x	규13922	규00246	분상용	필사본	18	무	예조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하책 -서명 문효세자
27	영무원천봉도감도청의궤	1789	정조	13년	10월	불분권	3	x	규13625	규00255	분상용	필사본	20	무	예조		비유일본	-1, 2, 5권만 있
28	현릉원원소도감의궤	1789	정조	13년		불분권	2	x	규13627	규00259	분상용	필사본	27	무	예조		비유일본	-어람본과 권책 여짐.
29	현릉원원소도감의궤	1789	정조	13년		불분권	2	x	규13628	규00260	분상용	필사본	27	무	강화부 사고		비유일본	-어람본과 권책 여짐.
30	촌호도감의궤	1795	정조	19년	1월	불분권	1	x	규13318	규0026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예조		비유일본	- 서명 왕대비전 상촌호해경궁기 촌호도감의궤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31	상존호도감의 계	1795	정조 19년			불분권	1	x	2-2812	장00171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적상산 사고		비유일본	-서명 왕대비전 상존호해경궁가상 존호도감의계
32	빈전혼전도감 의계	1800	순조 즉위년			2권	2	x	규13638	규00431	분상용	필사본	2	무	예조		비유일본	-下 缺本 -서명 정충대왕
33	빈전혼전도감 의계	1800	순조 즉위년			2권	2	x	규13639	규00432	분상용	필사본	2	2	정족산 사고		비유일본	-中 缺本 -서명 정충대왕
34	빈궁헌궁도감 의계	1816	순조 16년			2권	2	x	규13612	규00572	분상용	필사본	16	무	예조		비유일본	
35	현릉원원소도 감의계	1816	순조 16년			불분권	1	x	규13618	규00566	분상용	필사본	23	무	예조		비유일본	-상책 결
36	빈전혼전도감 의계	1821	순조 21년			2권	2	x	규13652	규00595	분상용	필사본	7	무	예조		비유일본	-中 缺本
37	장례도감의계	1822	순조 22년			2권	2	x	규13929	규00991	분상용	필사본	76	34	예조		비유일본	-2, 3책만 남음.
38	위경원원소도 감의계	1823	순조 23년	12월		불분권	1	x	규13938	규01045	분상용	필사본	29	무	예조		비유일본	-하책

연번	서명	서기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39	빈궁훈공도감 의궤	1830	8월	순조 30년	1권	1	x	규13722	규01018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예조		비유일본	원래는 3책으로 구성된 서는 이 중 제2·3책이 <규13719>가 분상용 사진있음: 내제없음
40	빈궁훈공도감 의궤	1830	8월	순조 30년	2권	2	x	규13719	규01019	분상용	필사본	13	무	예조		비유일본	원래는 3책으로 구성된 서는 이 중 제1책이 본서의 제1책이고, 본서의 제2책이고, 본서의 제3책에 해당 <규13722>가 분상용 사진있음: 내제없음
41	빈궁훈공도감 의궤	1830	8월	순조 30년	1권	1	x	규13720	규01020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정족산 사고		비유일본	전 3책 중 제2·3책이 규 13724가 분상용 사진있음: 내제없음
42	빈궁훈공도감 의궤	1830	8월	순조 30년	2권	2	x	규13724	규01021	분상용	필사본	13	무	정족산 사고		비유일본	전 3책 중 제1책이 13720이 본 도서 본서의 제1책이고, 본서의 제2책이 실제 의궤 사진있음: 내제없음
43	빈전훈전도감 의궤	1835	4월	현종 1년	1권	1	x	규13673	규01068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예조		비유일본	전체 3책 중에서 누락되고 제1책만 같은 예조분상본 와 한 질로 묶여있음 사진있음: 내제없음
44	빈전훈전도감 의궤	1835	4월	현종 1년	1권	1	x	규13674	규01069	분상용	필사본	13	무	예조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음

연번	서명	서기	월	일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45	추송도감의궤	1835	현종 1년	5월		1권	1	x	규13398	규01422	분상용	필사본	7	32	정족산 사고		비유일본	원래는 2책으로 3권 서는 그 중 하책이 상책이 없는 규 13 398 사진있음: 내제없
46	추송도감의궤	1835	현종 1년	5월		1권	1	x	규13399	규01423	분상용	필사본	12	무	정족산 사고		비유일본	원래는 2책으로 3 권 서는 그 중 상책이 하책이 없는 규 1 3399 사진있음: 내제있
47	증수도감의궤	1836	현종 2년	3월		1권	1	x	규14228	규01428	분상용	필사본	5	무	예조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48	증수도감의궤	1836	현종 2년	3월		1권	1	x	2-2189	장00002	분상용	필사본	무	114	종묘서	제작 7건 규 장각, 종묘 서, 춘추관, 적상산성, 강화부, 예 조, 호조	비유일본	분상처: 규장각 소 와 장서각 소장된 의궤의 분 (기독교드) 사진없음
49	빈전헌전도감 의궤	1843	현종 9년	12월		2권	2	x	규13806	규01053	분상용	필사본	13	무	춘추관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50	가례도감의궤	1844	현종 10년	10월		1권	1	x	2-2597	장00121	분상용	필사본	4	80	적상산 사고		비유일본	사진없음 장서각흡피 확인: 처 모름)
51	수릉산릉도감 의궤	1846	현종 12년	5월		1권	1	x	규13764	규01081	분상용	필사본	38	무	오대산 사고		비유일본	원래는 2책으로 3 권 서는 이 중 제1책 규13768과 합하여 사진있음: 내제없
52	수릉산릉도감 의궤	1846	현종 12년	5월		1권	1	x	규13768	규01080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오대산 사고		비유일본	규장각흡피 확인: 사진있음: 내제없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53	수릉천봉도감 도감의궤	1846	현종 12년	5월		6권	6	x	규13763	규01075	분상용	필사본	56	44	정족산 사고		비유일본	원래는 7책으로 구성은 그 중 제7책 임 규13759 본서에 로, 본서와 합하면 됨 사진있음: 내제있 일방의궤(3권)
54	수릉천봉도감 도감의궤	1846	현종 12년	5월		1권	1	x	규13759	규01076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정족산 사고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있 별공작의궤(7권)
55	상호도감의궤	1848	현종 14년	3월		1권	1	x	규13400	규01462	분상용	필사본	8	34	예조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56	빈전혼전도감 의궤	1849	철종 즉위년	10월		2권	2	x	규14840	규01093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57	경릉산릉도감 의궤	1849	철종 즉위년	11월		1권	1	x	규13795	규01097	분상용	필사본	33	무	예조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서명통일여부 확인
58	부모도감의궤	1852	철종 3년	8월		1권	1	x	2-2244	장00046	분상용	필사본	11	무	적성산 사고		비유일본	서기, 왕력이 다름 사진없음 장서각홈페이지 확인: 나, 내제가 정종대 나와있음(확인)
59	수릉천봉산릉 도감의궤	1855	철종 6년	8월		1권	1	x	규13776	규01111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춘추관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연번	서명	서기	월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60	천봉도감의궤	1855	철종 6년	10월		3권	3	x	규13948	규01122	분상용	필사본	48	33	예조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있
61	국장도감의궤	1857	철종 8년	12월		1권	1	x	규14872	규01139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있
62	국장도감의궤	1857	철종 8년	12월		3권	3	x	규13685	규01136	분상용	필사본	79	65	춘추관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있
63	빈전혼전도감 의궤	1857	철종 8년	12월		1권	1	x	규14851	규01158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의정부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64	빈전혼전도감 의궤	1857	철종 8년	12월		2권	2	x	규13689	규01153	분상용	필사본	13	무	춘추관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65	빈전혼전도감 의궤	1857	철종 8년	12월		2권	2	x	규13690	규01154	분상용	필사본	13	무	예조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
66	인릉산릉도감 의궤	1857	철종 8 년	8월		1권	1	x	규14825	규01145	분상용	필사본	30	무	의정부		비유일본	
67	휘경원천봉도 감의궤	1863	철종 14년			1권	1	x	규13957	규01245	분상용	필사본	7	무	예조		비유일본	
68	휘경원천봉원 소도감의궤	1863	철종 14년	2월		1권	1	x	규13963(12 50)	규01250	분상용	필사본	32	무	예조		비유일본	
69	국장도감의궤	1878	고종 15년			2권	2	x	규13863- 1~2	규00391	분상용	필사본	51	무	예조		비유일본	

연번	서명	서기	월	일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70	빈전후전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1권	1	x	奎13744	규00671	분상용	필사본	무	무	예조		비유일본	내제없음: 표제에
71	빈전혼전도감의궤	1890	고종 27년			4권	2	x	奎13743- 1~2	규00670	분상용	필사본	13	무	예조		비유일본	
72	국장도감의궤	1898	광무 2 년			3권	3	x	奎14868- 1~4	규00828	분상용	필사본	116	111	의정부		비유일본	
73	국장도감의궤	1898	광무 2 년			3권	3	x	奎13884- 1~3	규00827	분상용	필사본	54	무	예식원		비유일본	

분상용 비유일본 미완질본 분상처(有) 활자본 : 6건 26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 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7	x	2-2897- A	장00236	분상용	활자본	112	63	적상산사 고		비유일본
2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	x	2-2897- B8-8	장00238	분상용	활자본	49	63	경기감영		비유일본
3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8	x	규14522	규00409	분상용	활자본	49	63	화성행궁		비유일본
4	원행을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8권	6	x	규14530	규00417	분상용	활자본	무	무	화성행궁		비유일본
5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3권	2	x	2-2860	장00213	분상용	활자본	104	무	예조		비유일본
6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3권	2	x	2-2859	장00212	분상용	활자본	104	무	적상산사 고		비유일본

분상용 비유일본 미완결본 분상처(無) 필사본 : 42건 51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비고
1	추쇄도감의궤	1656	효종 7년	7월		불분권	1	x	규14934	규00106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제외
2	추쇄도감의궤	1657	효종 8년	7월		불분권	1	x	규14933	규00107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제외 -하책 -소장서기 의정무
3	천릉도감빈전 소의궤	1673	현종 14년	[10월]		불분권	1	x	규13533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제외 -제3책(利)의 일 工作, 外別工作만 수록 -카드번호 규002
4	국장도감도청 의궤	1675	숙종 1년	12월		불분권	1	x	규15077	규00218	분상용	필사본	39	무	미상		비유일본	-권수, 권말 결락
5	국장도감이방 의궤	1684	숙종 10년	4월		불분권	1	x	규14869	규00184	분상용	필사본	45	무	미상		비유일본	총2책
6	국장도감도청 의궤	1688	숙종 14년	12월		불분권	1	x	규14867	규00202	분상용	필사본	17	무	미상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하책만 있음 .외 책원질
7	산릉도감의궤	1701	숙종 27년	12월		불분권	1	x	규14824	규00286	분상용	필사본	6	무	미상		비유일본	-1702년 숙종28 -1책 缺
8	실록찬수청의 궤	1721	경종 1년	4월		불분권	1	x	규14165	규00329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하책 결
9	실록찬수청의 궤	1721	경종 1년	4월		불분권	1	x	규14166	규00330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하책 결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비
10	녹훈도감의궤	1728	영조 4년	8월		불분권	1	x	규14935	규00638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 3건 어람, 의정부, 충훈부	비유일본	-상책缺, 下冊 첫 2손. 외규장각에는 상, 하책(2책)으로 -서명은 어람본에
11	국장도감의궤	1730	영조 6년	10월		불분권	1	x	규14863	규00649	분상용	필사본	6	48	미상		비유일본	-上, 下冊 中 下冊
12	진연의궤	1744	영조 20년	9월		불분권	1	x	규14359	규00736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서명 진연청의궤
13	책례도감의궤	1751	영조 27년			불분권	1	x	규13199	규00755	분상용	필사본	13	10	미상	제작 5건 어람, 춘추관, 의정부, 예조, 강화부	비유일본	
14	가상존호도감의궤	1753	영조 29년			불분권	1	x	규13271	규00785	분상용	필사본	8	4	미상		비유일본	-상책 X
15	존숭도감	1755	영조 31년	12월		불분권	1	x	규14890	규00803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서명 존숭도감의궤
16	가례도감의궤	1759	영조 35년				1	x	2-4755	장00115	분상용	필사본	14	무	미상		비유일본	-下冊(48장)
17	묘소도감의궤	1786	정조 10년			불분권	1	x	규13924	규00248	분상용	필사본	18	무	미상		비유일본	-상책 -문묘세자묘소도
18	상례도감의궤	1815	순조 15년			4권	3	x	규13609	규00569	분상용	필사본	63	무	미상		비유일본	-서명 현경해빈상 -2책 결
19	국훈의궤	1821	순조 21년			불분권	1	x	2-3046	장00264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서명 효의왕후국
20	산릉도감의궤	1821	순조 21년			불분권	1	x	2-2277	장00072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 규13662와 한첩 -상책 -서명 건릉신릉도
21	건릉신릉도감의궤	1821	순조 21년			불분권	1	x	규13662	규00586	분상용	필사본	37	무	미상		비유일본	-장서각2-2277과 정됨 -하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비
22	휘경원원소도 감의궤	1823	순조 23년				1	x	2-2398	장0010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상책
23	상호도감의궤	1827	순조 27년	9월		불분 권	1	x	규13347	규01040	분상용	필사본	8	무	미상		비유일본	
24	진작의궤	1827	순조 27년			2권	1	x	규14362	규0103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검토하지 못함.
25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2권	1	x	규14363	규0136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조사카드는 소장
26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3권	3	x	규14367 의2	규01374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2책 누락
27	국장도감의궤	1843	헌종 9년	12월		3권	3	x	규13804	규01050	분상용	필사본	28	52	미상		비유일본	사진있음: 내제없음 표제에 분상처 기록
28	빈전흔전도감 삼방의궤	1843	헌종 9년	12월		불분 권	1	x	규13808	규01051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규 13805, 규 13808 三房儀軌 부분만 있음 동일본의 다른 의궤 때 본서는 三房儀軌 지 부분은 누락됨 사진있음: 내제없음 방의궤는 제작 건수 기록되어 있음
29	산릉도감의궤	1843	헌종 9년	12월		1권	1	x	규13811	규01057	분상용	필사본	38	무	미상		비유일본	본서만 분상처가 는데, 다른 의궤들 해 볼 때 본서는 어 정 사진있음: 내제없음 기록카드에 내제 대한 여부(확인요)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비
30	인릉산릉도감 의궤	1857	철종 8 년	8월		1권	1	x	규13698	규01144	분상용	필사본	30	무	미상		비유일본	표지에는 덧씌운 라고 분상처가 쓰 상본(규13696)이 때, 본서는 춘추관 됨.
31	취경원천봉원 소도감의궤	1863	철종 14년			1권	1	x	2-2400- 4-1	장00106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 6건 규장각, 춘추관, 강화부, 정 족산성, 오대산 사 고, 예조	비유일본	분상처: 규장각 소 외 장서각 소장된 의 분상처가
32	취경원천봉원 소도감의궤	1863	철종 14년			3권	3	x	2-2400- 4-2~4	장00107	분상용	필사본	49	32	미상		비유일본	전체 4권 중 한 권
33	국장도감의궤	1864	고종 1 년			1권	1	x	2-3022	장00261	분상용	필사본	29	72	미상	결본으로 알 수 없 음	비유일본	
34	빈전훈전도감 의궤	1864	고종 1 년			1권	1	x	2-3026	장00262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2-3027(二房儀軌) 서명: 철종대왕빈 의궤
35	빈전훈전도감 의궤	1864	고종 1 년			1권	1	x	2-3027	장00263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2-3026(別工作儀)
36	가례도감의궤	1866	고종 3 년			1권	1	x	규15078	규00226	분상용	필사본	15	무	미상		비유일본	
37	진작의궤	1873	고종 10년			1권	1	x	규14375- 2	규00337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38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권	1	x	규14400	규00385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39	빈전훈전도감 의궤	1878	고종 15년			2권	2	x	2-3021	장00260	분상용	필사본	7	무	미상		비유일본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관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비
40	빈전훈전도감 의궤	1878	고종 15년			1권	1	x	규13868- 1~3	규00397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제작 후, 추가 제작
41	예릉산릉도감 의궤	1878	고종 15년			1권	1	x	규13872	규00393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42	영건청의궤	1900	광무 4 년			1권	1	x	韓 古朝 71-5	종도0002	분상용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분상용 비유일본 미완질본 분상처(無) 활자본 : 75건 167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7	x	2-2897- B8-1~7	잠00237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2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7	x	2-2897- C8-1~7	잠00239	분상용	활자본	49	63	미상		비유일본	
3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2	x	2-2897- D2-1~2	잠00240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2,
4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5권	5	x	일산 古 159-21	중도0009	분상용	활자본	49	63	미상		비유일본	
5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3권	3	x	규14528 의1	규00414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4-
6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4권	4	x	규14528 의2	규00415	분상용	활자본	49	63	미상		비유일본	-권수, 4
7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8권	6	x	규14531 의2	규00419	분상용	활자본	49	63	미상		비유일본	-2책
8	원행음묘정리의궤	1795	정조 19년			1권	1	x	B 13FB - 9	성균관대 0002	분상용	활자본	47	63	미상		비유일본	
9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728.81 화 성성 1	연대0002	분상용	활자본	98	무	미상		비유일본	-권
10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728.81 화 성성 다	연대0003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권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1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7권	7	x	728.81 화 성성	연대0004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권
12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고서 390.22 화 63 성 1	이대0002	분상용	활자본	94	무	미상		비유일본	
13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7	x	2-3605	장00290	분상용	활자본	5	무	미상		비유일본	-권
14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	x	2-3606	장00291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1
15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가람古 951.2- H992	규00433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권수
16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규14586	규00434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9
17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9권	8	x	규14589 의1	규00435	분상용	활자본	5	무	미상		비유일본	-
18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규14589 의2	규00436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권
19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규14589 의3	규00437	분상용	활자본	5	무	미상		비유일본	-2
20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3권	3	x	규14591 의1	규00439	분상용	활자본	5	무	미상		비유일본	-2,6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21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5권	4	x	규14591 의2	규00440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4,6,
22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7권	6	x	규14591 의3	규00441	분상용	활자본	5	무	미상		비유일본	-1,
23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규14595	규00443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5,
24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7권	6	x	규14929 의1	규00444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1,
25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1권	1	x	규14929 의2	규00445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1,
26	화성성역의궤	1801	순조 1 년			5권	4	x	古 4250- 13	규00446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권수(1책),
27	화성성역의궤 부편	1801	순조 1 년			불분권	1	x	일산 古 6021-6	중도0006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8,
28	자경전진작정 례의궤	1827	순조 27년			2권	2	x	규14536	규01033	분상용	활자본	52	무	미상	제작 7건 대전, 중 궁전, 규 장각, 예 조, 창덕 궁서고	비유일본	-대전 [2권] 2 예조 [1권]
29	자경전진작정 례의궤	1827	순조 27년			2권	1	x	古複 4256.5-2	규01036	분상용	활자본	52	무	미상		비유일본	-검
30	자경전진작정 례의궤	1827	순조 27년			3권	2	x	규14535	규01567	분상용	활자본	52	무	미상		비유일본	-검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31	자경전진작정 례의궤	1828	순조 28년			2권	1	x	2-2858	장00211	분상용	활자본	52	무	미상		비유일본	-권
32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1권	1	x	서울 8200	역사박 0005	분상용	활자본	92	8	미상		비유일본	-권
33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	1	x	한 古朝 29-92	중도0012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34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2권	2	x	규14364	규01366	분상용	활자본	90	10	미상		비유일본	
35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2권	2	x	규14365	규01367	분상용	활자본	90	10	미상		비유일본	
36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1	x	규14366	규01368	분상용	활자본	90	10	미상		비유일본	-권수
37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1	x	가람古 642.4- J562ja- v.1	규01369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38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2권	2	x	가람古 642.4- J562j- v.1-2	규01370	분상용	활자본	90	10	미상		비유일본	
39	진작의궤	1828	순조 28년			-	1	x	일산 159- 20	중도0010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40	진작도식	1828	순조 28년			-	1	x	만송 B7 A11	고대0016	분상용	활자본	##	10	미상	제작건수 미상	비유일본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원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41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권	1	x	서 8201	역사박 0006	분상용	활자본	##	12	미상		비유일본	-권
42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권	1	x	B 13 진 811	경상대 0001	분상용	활자본	##	12	미상		비유일본	-권
43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3권	3	x	연민 고 390.0951 의 591쪽	단국대 0001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44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	x	규14368	규01372	분상용	활자본	##	13	미상		비유일본	-권
45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3	x	기림古 642.4- J562- v.1-3	규01373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권
46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	1	x	B7A3B	고대0003	분상용	활자본	##	10	미상		비유일본	-권수
47	진찬의궤	1829	순조 29년				1	x	규14367 의1	규01371	분상용	활자본	##	13	미상		비유일본	-권수
48	진찬의궤	1848	헌종 28년	윤4월		불분권	1	x	六古 B-7 A-41A	고대0015	분상용	활자본	58	8	미상		비유일본	진찬의궤 도 사진있 활자가 찍힌 끝 어 있 서명
49	진찬의궤	1848	헌종 14년	윤4월		2권	2	x	서윤 202	역사박 0004	분상용	활자본	7	58	미상		비유일본	사진있음: 4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50	진찬의궤	1849	현종 15년	윤4월		3권	3	x	가람古 642.4- J562m	규01469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4책 중 제1책 (3)
51	진찬의궤	1849	현종 15년	윤4월		1권	1	x	규14943	규01466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52	진찬의궤	1849	현종 15년	윤4월		1권	1	x	규25027	규01468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53	진찬의궤	1849	현종 15년	윤4월		1권	1	x	규14516	규01465	분상용	활자본	58	7	미상		비유일본	진찬의궤 4책 중 남은 동일본 다른 진 사진 및 활자가 찍힌 끝
54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1권	1	x	B7A3A	고대0002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55	진찬의궤	1877	고종 14년			2권	2	x	가람古 642.4- J562e- 1~2	규00384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56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3권	3	x	만송 B7 A3	고대0013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57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권	1	x	2-2878A	장00228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58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권	1	x	2-2878B	장00229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내제가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59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권	1	x	가람古 642.4- J562a- v.00	규00698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60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권	1	x	귀165-2. 951.093 진찬의-3	계명대 0002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61	진찬의궤	1892	고종 29년			1권	1	x	고 951.093 진찬의-1	계명대 0003	분상용	활자본	##	10	미상		비유일본	
62	진연의궤	1901	광무 5 년			2권	2	x	1532	순박 00002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63	진연의궤	1901	광무 5 년			1권	1	x	1706	순박 00005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64	진찬의궤	1901	광무 5 년			2권	2	x	奎14460- 1~2	규00911	분상용	활자본	83	무	미상		비유일본	
65	진찬의궤	1901	광무 5 년			1권	1	x	만송 B7 A3	고대0011	분상용	활자본	71	12	미상		비유일본	
66	진찬의궤	1901	광무 5 년			3권	3	x	1709~17 11	순박 00006	분상용	활자본	83	무	미상		비유일본	
67	진찬의궤	1901	광무 5 년			1권	1	x	六古 B-7 A-41 3	고대0005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68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3권	3	x	일산 古 159-18	중도0005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기록)	권	책	완결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 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69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3권	3	x	六古 B-7 A-40A	고대0010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70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11월		2권	2	x	394.4 진 연의 임- 가-7	연대0008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71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4월		3권	3	x	394.4 진 연의	연대0007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72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4월		3권	3	x	고서 390.22 진 74 의 1	이대0003	분상용	활자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73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4월		1권	1	x	고 951.0093 .진 518	단국대 0002	분상용	활자본	79	10	미상		비유일본	
74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4월		1권	1	x	치암 B7 A4	고대0012	분상용	활자본	##	10	미상		비유일본	
75	진연의궤	1902	광무 6 년	4월		1권	1	x	서 8005	역사박 0003	분상용	활자본	##	무	미상		비유일본	

고본 : 15건 19책, 전사본 : 1건 1책, 용도 미상본 : 3건 5책

연번	서명	서기	왕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	가례도감의궤	1759	영조 35년	6월		불분권	1	x	2-2594	장00116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제 록)
2	진작의궤	1873	고종 10년			1권	1	x	2-2861	장00214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3	진찬의궤	1887	고종 24년			1권	1	x	2-2877	장00225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4	빈궁훈공의궤	1911	융희 5 년			2권	2	○	2-2979	장00255	고본	필사본	유		미상		비유일본	
5	원소의궤	1911	융희 5 년			불분권	1	○	2-2342	장00094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6	산릉주감의궤	1919	융희 13년			불분권	1	○	2-2285	장00074	고본	필사본	7	무	봉모당		비유일본	내제 主監
7	천봉산릉주감 의궤	1919	융희 13년			불분권	1	○	2-2387	장00100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8	천봉주감의궤	1919	융희 13년			1권	1	x	2-2390	장00103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9	천봉주감의궤	1919	융희 13년			1권	1	x	2-2391	장00104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10	어장주감의궤	1919	융희 13년			1권	1	x	2-2921	장00247	고본	필사본	10	무	미상		비유일본	
11	어장주감의궤	1919	융희 13년			2권	2	x	2-2922	장00248	고본	필사본	20	무	미상		비유일본	

연번	서명	서기	양력	월	작성시기 (최종시기)	권	책	완질 본	소장 번호	카드 번호	용도	판종	도설	반차 도	分上處	제작 건수	유일본	
12	빈전혼전주감의궤	1919	음력 13년			2권	2	○	2-2918	장00244	고본	필사본	6	무	미상		비유일본	
13	부묘주감의궤	1921	음력 15년			2권	2	○	2-2217	장00017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14	어장주감의궤	1926	음력 20년			1권	1	x	2-2977	장00253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15	부묘주감의궤	1928				1권	1	x	2-4772	장00051	고본	필사본	무	무	미상		비유일본	
16	안태의궤	1608	광해군 즉위년	11월		불분권	1	○	古 5213- 1	중도0001	전사본	필사본	무	무	미상		유일본	-하
17	가례의궤	1772	영조 48년	3월		불분권	1	○	2-2725	작00148	미상	필사본	무	무	미상	제작 4건 어람, 동궁, 사고, 예 조	유일본	-서 의궤
18	경모궁의궤	1777~ 1800				3책	3	x	2-2411	장00109	미상	필사본	151	무	미상		비유일본	
19	추봉책봉의궤	1907	순종 즉위년			불분권	1	○	2-5073	장00339	미상	필사본	12	22	미상		비유일본	



# 보고 사항



## 1. 동산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보고

### 가. 보고사항

동산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 나. 보고사유

- 불교조각 분야 지정추진 및 지정문화재 명칭 관련 현안 3건에 대한 소위원회 ('15.8.28)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소위원회 개요

- 일시 / 장소 : 2015. 8. 28(금) / 덕수궁 회의실
- 안건 : 총 3건
  -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보물 지정 적정여부 검토
  - '경주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좌상' 문화재명칭 명명 검토
  -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명칭 변경 검토

### 라. 안건별 주요내용

#### 【'경북 봉화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 보물 지정 검토】

- 해당문화재 개요
  - 신청자(신청일자) : 경북도지사(2009.6.2)
  - 수량 / 구격 : 불상 1구 / 상 높이 90cm, 불두 높이 35.6cm
- 주요경과 : 지정조사('10.4.23/5.4) → 본위원회 검토('12.2.9 / 가결) → 지정예고 기간 중 이견 접수('12.3.9 / 고려시대 불상으로 볼 수 없기에 지정 재검토 요청) → 재조사(12.5.15) → 본위원회 심의('12.6.14 / 보류 : 탄소연대측정 후 재심의) → 탄소연대측정('15.8.4 / 불상내부 직물의 연대 AD900~945로 측정됨) → 소위원회 검토('15.8.29 / 보류 : 논의된 사항을 전제로 최종의견서 제출토록 의결됨) → 본위원회('15.10.8) 검토사항으로 부의 예정

**【‘경주 삼화령 석조미륵여래삼존좌상’ 문화재명칭 명명 검토】**

- 해당문화재 개요
  - 신청자(신청일자) : 국립경주박물관(2013.8.23)
  - 수량 / 재질 : 불상 3구 / 화강석
  - 제작연대 : 644년경(선덕여왕 13)
- 주요경과 : 지정조사('14.12.22) → 본위원회 검토('15.6.11 / 가결) → 지정예고 기간 중 이견 접수('15.8.11 / 출토지는 ‘장창골’이 적절함) → 본위원회 심의('15.8.13 / 보류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재심의) → **소위원회 검토('15.8.29 / 보류)**

**【보물 제1021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지정명칭 검토】**

- 해당문화재 개요
  - 신청자(신청일자) : 경상남도지사(2015.2.2)
  - 수량 / 수량 : 불상1구 / 전체높이 211cm, 불상높이 108cm
  - 제작연대 : 767년
- 주요경과 : 보물 지정('90.3.2) 당시 명칭은 ‘석남암수석조비로자나불좌상’ → 지정명칭 변경 정비('10.8.25) 시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변경 → 지정명칭 변경 신청('15.2.2 / 사유 : 불상 대좌에서 발견된 사리호명문에 ‘석남암수’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지정명칭으로 환원 요청) → **소위원회 검토('15.8.29 / 부결 : 현행유지)**

**마. 의결사항**

- 원안 접수